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30년사
1983-201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30년사

1983-2013

목 차

발 간 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최영철	004
축 사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윤주현	006
축 사 2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철	008
축 사 3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정대수	010
회고사 1	명예교수 김기환	012
회고사 2	명예교수 김진수	015
회고사 3	명예교수 최일생	018
회고사 4	명예교수 선우일남	022
연혁	030
제1장 교실의 역사		
1. 창립 이전기(제중원 시기~창립)	037
2. 초창기(1983년~1989년)	051
3. 성장기(1990년~1999년)	056
4. 발전기(2000년~2013년)	066

제2장 교실의 주요활동 및 성과

1. 교육	079
2. 연구	104
3. 진료	118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135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139

제3장 교실원

1. 역대 주임교수	145
2. 명예교수	146
3. 전/현직교수	148
4. 교실원 이모저모	150

제4장 동문회

1. 동문회 소개	161
2. 동문회 회칙	163
3. 동문 회고	166
4. 동문회원	174

편집후기	190
------	-----

발간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최영철

신경학^{neurology}이라는 학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진료가 시작된 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13년이며, 세브란스의전을 통해서 호주 출신 신경정신과 의사인 Charles Inglis McLaren^{1917~1937년}, 세브란스의전 내과교실이 진료 및 강의를 담당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1970년대 후반부터 김기환 교수^{1957년 연세의대 졸업}를 비롯한 여러 선배님들을 중심으로 대한 신경과학회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많은 노력 끝에 1982년 7월 23일 개정된 의료법 및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신경과가 독립하게 되었고, 연세대학교 이사회 승인을 거쳐 1983년 3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이 창립되어 정식으로 전공의 교육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13년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진료 개시 100주년이며, 신경과학교실이 창립되어 전공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나라에 신경과학이라는 학문이 인지되지 않았던 초창기 시절, 여러 선배님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고, 신경과학을 선도해 나가고 있었던 선진국에서 신경과학을 배우고 습득한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신경과학을 발전시켜 세계 신경과학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현재의 수준까지 우리 교실이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신경과학을 선도해왔던 우리 교실의 지난날과 업적을 정리하여 자료로 남김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그리고 신경과학교실 과거 30년간을 돌이켜볼 때, 우리 교실은 비약적인 성장으로 우리나라 신경과학을 선도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McLaren 교수의 뒤를 이어 신경정신과 교수인 이중철^{1937~1939년}, 세브란스의전 교수가 신경과 질환을 진료하였고, 한국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신경질환을 진료하고 실제적으로 강의에 참여한 의사는 장경 교수^{1939~1946년}, 세브란스의전 내과교실였으며, 서석조 교수^{1955~1960년}, 세브란스의전 내과교실로 명맥이 이어졌고, 1969년 미국 신경과 전문의를 획득한 이수익 교수^{1970~1973 연세의대 교수}, 미국 버지니아대학 교수 역임이 귀국하여 대한민국의 대학교로서는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신경과학교실

을 1972년 12월 21일에 개설하고 환자 진료와 학생 강의를 시작한 후 1974년에 미국으로 복귀하였습니다. 1974년 7월 미국 알라바마 대학에서 신경학을 연수한 김기환 교수가 세브란스 병원 제6내과신경내과 과장으로 취임하면서 신경과학교실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고, 1976년에는 최일생 교수^{1968년 연세의대 졸업}가, 1979년에는 선우일남 교수^{1971년 연세의대 졸업}, 1984년에는 김진수 교수^{1964년 연세의대 졸업}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오늘의 신경과학교실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김승민 교수^{1979년 연세의대 졸업}, 이병인 교수^{1974년 연세의대 졸업}, 허균 교수^{1979년 연세의대 졸업}가 교실에 합류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1983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원현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과 함께 초대과장으로 부임한 최일생 교수는 현재의 강남세브란스병원을 신경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병원으로 발전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교실은 그 동안 181명의 동문을 배출하였고 이중 52%는 대학병원, 28%는 종합병원, 16%는 개인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각 병원과 학회에서 중심역할을 하며 미래의 신경과학을 이끌고 나갈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부 동문은 연구소, 해외 병원, 선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 교실은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함께 신경과학계를 선도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 교실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끊임없는 지원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신 역대 연세의대 학장님들, 연세의료원 의료원장님들, 신촌 및 강남세브란스 병원장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교실을 위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연세대학교 신경과동문회 선후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교실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각 병원의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실사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그간의 기록을 미리미리 보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으며, 이 30년사 기록은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더욱더 알차고 상세한 교실사가 재발간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느라 도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실원들과 동문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1884년 9월 20일 미국 공사관 공의로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의료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을 통해서 서양의학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날의 한국 의학 발전에 모태가 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을 오늘날까지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축사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윤주현**

올해는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서 맥라렌 교수에 의하여 1913년부터 신경과학 진료 및 강의가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1983년 3월 창립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이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 한반도 최초로 신경과학 강의가 시작된 것은 커다란 자랑입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이 30년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시련을 딛고 영광되고 명예로운 전통과 역사를 쌓아 올린 그간의 역정과 성취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대한신경과학회의 역사와 함께 시작하여 그 규모뿐만 아니라 연구 및 학문적 업적에 있어서도 대한민국 신경과학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및 학생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대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경과학 역사의 시작과 함께 창설된 신경과학교실이 우리나라 신경과학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교실로 발전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기까지 수고하신 교실원 모두의 희생과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발전은 남다른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환자 진료와 연구, 교육에 힘쓴 신경과학교실 모든 교실원 및 동문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생각하며, 향후에도 격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신경과학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이어가고 세계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는 교실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기념책자의 편찬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과거의 전통과 업적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편찬 작업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교실원 모두의 역량을 응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간의 교실 발전의 발자취와 업적을 되새겨 보는 것은 새롭게 다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나온 교실의 역사적 발자취와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후학들에게는 큰 긍지를 심어주고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3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신경과학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사 2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3년 3월 우리 신경과학교실이 개설된 지 30주년이지만 신경계 질환의 진료와 신경과학 강의를 시작한 지는 어언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신경과학의 역사는 1913년 호주 선교사인 Charles Inglis McLaren 교수님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 뒤를 이은 이중철, 서석조, 이수익 교수님 등 여러 훌륭한 선배들의 헌신으로 세브란스 신경과학의 명맥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지면을 통하여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창립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신 김기환 교수님은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내과 혹은 정신과의 한 분과로 여겨지던 신경과의 독립과 대한신경과학회 설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1982년에는 신경과가 독립되어 대한신경과학회가 설립되었고 1983년에는 우리 의대에도 신경과학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은 김기환 교수님을 초대 주임교수로 출발한 이래 30년 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창립 당시 3명이었던 교원 수는 현재 18명으로 늘었고 강사와 전공의 과정을 거쳐 간 동문들이 180여 명에 달하며, 많은 교실 동문들께서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신경과학에 매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경과학교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신경과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동안 모든 교실 동문들께서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 치매, 파킨슨 병 등으로 우리 세브란스를 찾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우리 신경과학교실에 대한 기대감과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교실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딛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왔듯이 앞으로도 신경계 질환 환자들의 진료와 치유를 위한 활발한 연구 및 치료법 개발 등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신경과학교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간의 역사는 모든 교실 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정리하여 발간하는 작업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기념책자 발간을 통하여 선배들의 고귀한 발자취가 후학들에게도 전해져 노력과 열정을 이어 나가는 전통이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교실 동문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3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정대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신경과학 교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역사는 우리나라 신경과학의 역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1910년대부터 호주 선교사 맥라렌 교수에 의하여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신경학 분야의 진료와 교육이 시작된 곳이 바로 세브란스병원이라는 것은 우리 신경과학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맥라렌 교수 이후 당시 국내에서는 볼모지나 다름 없었던 신경과학 분야를 개척하셨고 대한신경과학회의 창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셨던 서석조, 이수익, 김기환 선생님 등 여러 선배님들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뿌리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우리나라 신경과학의 정착과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김진수, 최일생, 선우일남 선생님들께서 대한신경과학회 및 우리나라 신경과학의 발전에 공헌하신 바는 이 지면을 통하여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직에 계신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원들에 의해 우리나라 신경과학은 성장해왔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1983년 3월 창립 이후 진료, 교육,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왔고 우리나라 신경과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교원으로 시작된 교실이 이제는 무려 18명의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실로 규모가 늘어났고, 그 동안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은 동문들의 수도 180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3/4 이상이 국내의 우수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신경과학을 갈고 닦으며 다시 후학을 양성하고 있으니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신경계 희귀 - 난치병 환자들이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세브란스병원을 찾는 상황을 보면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세브란스 신경과 진료의 탁월한 우수성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30년간 모든 교실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룬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앞으로도 신경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교실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갈수록 늘어나는 신경계 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신경계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 및 연구라는 시대적 사명을 충족하는 교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대한신경과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신 지난 30년 동안의 모습과 같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원 모두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창립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이 30년간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교실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명예교수 김기환

올해가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창립 30주년이라니 감개무량합니다.

내가 신경과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서석조 선생님입니다. 6·25가 일어나던 해인 1950년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1955년에 4학년이 되었는데 이때까지만 하여도 세브란스에서 신경학이라는 강의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4학년 때 서석조 선생님이 미국에서 신경학을 전공하고 세브란스에 부임하여 신경학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신경학에 매료되었습니다. 서 선생님은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에 목소리도 저음이어서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만 강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과 강의하시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아주 잘 그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내과를 하게 되었는데 서 선생님께서 계시던 제3내과에 배정되었습니다. 그 때 서석조 선생님께서 내게 neurology를 하도록 권유하셨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서 선생님의 신경과 강의를 청강하면서 신경과학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신경과는 내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레지던트도 따로 뽑을 수 없었고 어떻게 하여 전공자를 뽑더라도 신경과학을 전공한 후 안정된 자리를 마련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과에 소속되어 있어 과를 운영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신경과를 제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1960년도에 서 선생님께서 맨 처음 신경과학회를 만들고 독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해 어느 날 서 선생님께서 외래로 민병석 선생과 나를 부르셔서 학회를 만들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신경과 독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신경과 독립을 위한 첫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로 서석조 선생님께서 60년 8월 즈음에 세브란스를 떠나 명동 카톨릭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때 서 선생님께서 세브란스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신경과가 좀 더 이른 시기에 독립하였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내과 chief였던 나도 6개월 뒤 서 선생님을 따라 카톨릭병원으로 갔습니다. 카톨릭병원에서 무척이나 고생하였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카톨릭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시절 어느 날 당시 세브란스에서 신경과를 하던 이수익 선생이 나를 찾아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브란스에서 신경과 운영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호소도 하였습니다. 이 선생이 도미한 이후 세브란스에서 내게 모교로의 복귀를 제안하였고 심사숙고 끝에 세브란스로 복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신경과 독립을 위해서는 세브란스를 뒤에 업고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학 측에서는 신경과학교실을 유지하지 않으면 신경과를 내과의 분과로 귀속할지 내 의견을 받아들일겠다고 하였는데 내가 내과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신경과의 독립을 항상 염두에 두고는 있었지만 우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내과 안에 있어야 전공의 한 명이라도 더 신경과에 입문시키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경과를 전공한 레지던트들에게 내과 전문의 자격 획득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대학에 요구하였습니다. 세브란스 제6내과에서 처음 배정받은 전공의는 지금은 cardiology를 하는 김성순으로 기억합니다. 세브란스에서 첫 6개월간은 거의 혼자 일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떠나온 카톨릭병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첫 6개월 동안 월수금은 세브란스, 화목토는 카톨릭병원에서 진료와 강의를 하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이수익 선생이 신경과학에 열정이 커서 세브란스에 개설한 신경과학 강의시간이 어찌나 많던지 한 학기에 49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이화여자대학 강의도 맡았으니 몸이 들어어도 부족할 정도로 매우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최일생, 선우일남 등 교원도 새로 들어왔고 신경과에 관심을 가지고 전공을 하는 제자들도 늘어나 즐거움도 컸습니다.

제6내과가 점차 발전해나가기는 하였지만 내과의 한 분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를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신경과 board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과나 정신과에 속하지 않고 독립된 학회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척이나 노력하였습니다. 1960년도부터 신경과 독립을 위하여 준비하였지만 처음에는 보건사회부 등 정부기관에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였고 정신과가 반대하였으며 내과에서도 반대를 하였습니다. 정신과와 내과에서 반대한 이유는 정신과 쪽에서는 개원가에서 환자를 잃을까 하는 걱정이 컸던 것 같고 내과 쪽에서는 환자수가 줄어들 걱정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가 내세웠던 '신경내과'라는 이름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대로 우리 학회가 1970년대 초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인준이 부결되었지만 신경과 의사들은 계속하여 학술활동을 지속하였고 우리의 학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1980년 무렵 내과 쪽에서 신경과를 하던 의사들이 모여 대한신경내과학회의 이름을 바꿔 대한신경과

학회를 다시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무렵에 정신과 쪽에서도 신경과를 분리시켜 학회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신경정신과학회에서 신경과가 분리되어 독립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었고 1982년 7월에 이에 따르는 전문의 수련기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에 상당수의 내과계 신경과의사들이 신경과 독립의 주체는 내과계 신경과 의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20여 년간 신경과 독립을 위하여 일하여오면서 주변의 여러 이유들로 수 차례 독립의 기회를 잃었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보건사회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 신경과 독립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야 정부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 신경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시기에 우리의 바람과 맞지 않는 점은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신경과가 독립되고 신경과 board가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신경과가 독립할 때까지 다시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였던 대한신경과학회가 자진 철회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신경과의 온전한 독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내과 쪽 신경과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당시 서석조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하셨는지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경과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간신히 서 선생님을 설득하여 시험장까지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신경과 독립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은 바로 서석조 선생님이십니다. 서석조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neurology의 개척자이며 선구자입니다. 서석조 선생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연세대의 신경과학교실도 대한신경과학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연세대의 신경과학교실 동문들도 서 선생님의 공을 높게 기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하여 대한신경과학회 창립에 도움을 주신 문태준 당시 의사협회 회장, 이용각 당시 의사협회 부회장, 이성우 당시 보건사회부 의정국장, 홍한표 당시 의사협회 사무처 학술부 국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세브란스 신경과에 있으면서 후학을 기르는 일이 가장 즐거웠고 제자들이 수련을 마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가장 큰 자량은 가르친 제자들 모두가 좋은 자리에 취직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우리 신경과학교실 후배님들에게 당부드릴 말씀은 후배님들께서 환자를 자기 몸처럼 다루는 의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실과 연세의료원의 신경과가 세상에서 가장 환자들에게 친절한 신경과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 글에 담지 못한 지난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30주년을 우리 교실원 모두 자축합니다. 그리고 교실의 발전을 위하여 정진합니다.



명예교수 김진수

의사로서 지낸 50년의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 즐겁고 행복한 세월이었던 것 같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군의관 3년 차로 근무하고 있을 때, 우연히 외사촌 형을 만나게 된 것이 나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다.

당시 사촌 형은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고 계셨고, 일본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한 후 한국을 방문하였다. 군의관 제대를 앞두고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형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에는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를 하던 동기나 선배들이 많았다.

당시 사촌 형은 한국에 오기 직전 독일에 잠시 머무를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보다는 독일로 가서 공부를 더 해보는 것이 어떠하냐고 제안을 하였다.

학생 시절, 뇌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촌 형의 제안을 받고 마침 독일 Max-Planck 뇌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독일에 가서 1~2년 정도 공부하고 귀국할 생각으로 달러 100달러만 들고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다. 당시에는 100달러까지만 환전이 가능했다. 당시, Max-Planck 연구소장은 Dr. Hassler로 Nigral pathology의 권위자였고, 내가 운동질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7년 Max-Planck 뇌연구소에서 Basal ganglia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후 연구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아 1969년에는 수석연구원, 1974년부터는 신경전달물질실험실장으로 승진하였다.

1979년 네덜란드에서 열린 학회에서 우연히 독일 Ulm 대학의 신경과 주임교수인 Dr. Kornhuber를 만났는데, 내가 그간 연구해 왔던 Basal ganglia circuit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대학병원에서 지금까지 하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교수로 초빙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Max-Planck 뇌연구소에서 기초뇌과학에 대한 연구도 좋았지만, Ulm 대학에서 내가 주도하는 실험실을 갖고 연구를 지속하면서 아울러 임상 환자를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

로 생각되어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Ulm 대학의 신경과와 정신과의 교수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내가 연구를 통해 제안을 했던 정신분열증의 glutamate hypothesis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20회 이상의 인용이 되는 논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당시 이 연구를 위해 Kornhuber 교수와 나도 뇌척수액을 뽑아서 사용했고, 이후 일주일 동안 심한 두통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다.](#)

처음 Ulm 대학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기초 연구는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라 크게 어렵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비록 독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주로 연구실에서만 지냈던 이유로 환자와 독일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10여 년 동안 연구만 하다가 환자를 진료하려고 하니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 이후 기초 연구와 독일임상의사로 거듭나는 수련을 병행하며 5년의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독일에서의 의과대학 교수는 상당히 영예로운 자리였으며, 대학에서는 독일로 국적을 바꾸도록 제안하였으나 난 항상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국적을 바꾸려는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다.

1983년 모교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장으로 계셨던 성주호 교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세브란스병원에 신경과가 개설되는데 교수로 들어오라고 제안을 하셨다. 몇 년 전 성주호 교수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재직하실 때에 미네소타 대학으로 오라고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라고 대답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다. 독일에서 지낸 17년 동안 한시도 귀국한다는 생각을 버린 적이 없었기에 모교에서 받은 이러한 제안은 너무나 매혹적이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84년 봄에 17년의 독일 생활을 청산하고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교수로 귀국하였다.

내가 처음 부임되었을 당시 우리 신경과는 신설된 과로 인력도 많이 부족하였고 많은 부분이 어설프었으나, 모든 구성원들이 과를 키워야겠다는 열정은 가득했던 것 같다.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의 신경과는 병원에서 인정받고 전도유망한 과로 성장해 왔는데 이는 많은 후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주임교수로 재직할 때, 허지회, 최영철, 손영호를 교수로 채용하였으며, 현재 우리 신경과의 중견교수로 또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 신경과학회를 선도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새삼 큰 보람을 느낀다.

병원 내에서 후배와 제자들과 함께 한 시간도 아주 소중하고 행복했지만, 이외에도 아시아-대양주 신경과학회 회장으로 1996년 제9회 아시아-대양주 신경과학회 AOCN를 서울에서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것, 아시아태평양 파킨슨병학회 회장으로 2003년에 아시아-대양

주 파킨슨병학회APPDA를 유치하여 이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한 일, 그 외에 세계신경과학회 부회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신경과학회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을 했던 것 또한 내 인생에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좋은 추억이다.

2005년 퇴임 후 첫 6개월은 학회도 다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개업할 생각도 다른 일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동기인 허갑범 교수의 권유로 같은 건물에서 개인병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김진수'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한 신경과 의원은 대학에서의 생활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사실,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오랜 시간 일하다가 개인병원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예우, 대우라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은 좋은 환자들이지만 드물게 억지 부리는 환자를 만날 수 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 의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대접받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상황을 종종 겪으면서, 내 경력을 알고 일부러 찾아 오는 환자들도 이런데, 젊은 의사로 개업을 하고 있는 신경과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신경과가 개업을 해서 살아 남으려면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세계 신경과학회의 보고가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지만 머지않아 나라의 경제가 이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개업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내가 후배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진료도 중요하지만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1967년에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레보도파가 처음 파킨슨병의 치료약으로 시도되었는데,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약보다 효과가 뛰어난 약은 개발된 적이 없다. 그만큼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 신경과 후배들이 열심히 연구하면 의료계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루는 긴 것 같아도 한 달은, 또 일 년은 빨리 지나간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지난 일은 행복한 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회상에 젖고 싶지만은 않다. 난 아직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다.

그 힘 다할 때까지 앞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 많은 후배들과 제자들과 함께..



명예교수 최일생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이 창립된 지 어느덧 30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다.

나무는 세월의 흔적을 나이테로 남기듯이 역사는 기록에 의해서 흔적을 남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연세의료원의 일원이 되어 연세인으로 50여 년을 살아가면서 직접 겪었던 일, 보고 들었던 일들 중 몇 가지의 소회(所懷)를 피력하고자 한다.

여러 동문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현대의학사는 세브란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신경과학의 시작도 세브란스라는 것을 우선 신경과 동문만이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885년(고종 22년) 2월 29일 서울 재동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廣惠院)으로부터 출발한 세브란스병원은 초기에는 외과와 산부인과, 내과 위주로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1910년부터 진주 배둔병원에서 근무하던 Charles Inglis McLaren(마나연)이 1913년부터 세브란스병원에 진료를 하게 된 계기로 1917년 정식으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내과 교수로 임명되어 진료와 함께 진단학, 신경정신과, 소아과 등 강의를 맡게 되었고 또한 경의전 출신인 심호섭 교수도 내과 교수로 부임하여 내과와 신경과 강의를 맡게 되었다. 1923년 O.R. Avison의 다섯째 아들인 D.B. Avison이 캐나다에서 소아과를 전공하고 내한하자 직제가 변경되면서 소아과가 내과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도 소아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동시에 McLaren 교수도 내과 교수에서 신경정신과 교수로 보직 변경이 되니 그 동안은 태중에만 있던 신경정신과도 1923년에 비로소 탄생된 것이다. 이후 이중철 교수, 장경 교수로 1946년까지 이어졌고 이후 맥이 끊어졌다가, 1955년부터 1960년까지 순천향대학 설립자인 서석조 교수가 명맥을 유지했다가 또 다시 맥이 끊겼다.

필자의 의과대학 시절에는 신경과 진료란 들어 보지도 못 했고 신경과 강의만 있었다. 그러나 강의도 형식적이었고 신경과 담당교수도 없어 서울대 정신과 남명석 교수가 오셔서 Cecil 내과 교과서에 수록된 신경질환 일부를 국역하셔서 강의 내내 불러주면 실 틈 없이 받아 썼던 기억만 있다. 강의 내용도 모르고 적기만 하는 즉 dictation 식의 강의였다.

연세의대 신경과 출신이라면 잊어서는 안 될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신경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첫 번째 분은 이수익 교수이다.

1969년 말 우리나라 신경과에 획기적인 일이 생겼으니 이수익 교수의 금의환향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의료원에서 내과 전문의를 마치고 도미하여 미국에서 정식 신경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시고 미국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버지니아 교수 자격으로 신경과 불모지인 연세의대에 부임하셨던 것이다. 신경과학교실이 없어 처음에는 내과교수로 계시면서 내과 전공의 지원을 받아 임상 진료와 학생강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 한국 내에 커다란 충격과 흥분을 주셨고 그 이후로 의학도들이 신경과에 관심을 갖게 한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 분의 일화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 초 내과의국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요새 후배들이 들으면 웃긴다고 할 줄 모르나 그 당시에는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접하고 듣기만 했던 ‘주기성마비 [periodic paralysis](#)’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이 환자의 병력을 추적해 보니 수차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시 마다 똑 같은 병명 즉 ‘고혈압, 저카리움혈증, 일과성뇌허혈성발작’으로 반복하여 입퇴원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임상경험을 해본 의사가 없어 다람쥐 쳇바퀴 돌린 꼴이 된 것이었다. 그 이후 내과의국에서 신경과에 파견 근무하고 나면 중증근무력증, 윌슨병, ALS, Charcot - Marie - Tooth disease 등 새로운 증례를 경험하고 증례발표를 준비하면서 분주하게 보낸 기억들이 생생하다. 지금 생각하니 그 당시에는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던 것 같다.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신경계 질환 진단은 신경외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느 날 신경외과-신경과 집담회 시간 이현재 교수께서 뇌종양 환자의 수술 소견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 당시에는 CT나 MRI가 없어 뇌종양이 의심되는 환자는 뇌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종양부위를 정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교수는 뇌동맥조영술로 종양의 위치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부위를 절개하고 들어가 보니 종양이 없자 절개부위로부터 여러 방향으로 probing 해봐도 종양을 발견 못하고 두개골만 뚫고 나왔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수익 교수께서 뇌파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뇌파검사로 정확히 종양부위를 localization해 드려 재수술케 하니 종양부위와 뇌파소견이 정확하게 일치하자 이현재 교수께서도 탄복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이수익 교수를 크게 신뢰하시고 신경외과 학회나 집담회에 꼭

대동하시고 다니셨다.

이외 서울대 신경과 교수였던 명호진 교수도 외래 진료를 보다가 의문점이 있으시면 가운을 입은 채 이수익 교수 외래 방으로 찾아오셔서 물어보고 가셨다는 후문도 있다. 그렇게 잘 지내시던 이수익 교수는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끈질긴 교수 초빙에 거절을 못하시고 1974년 가을에 도미하셨다.

두 번째로 잊어서는 안 될 교수님은 김기환 교수이다.

김 교수는 연세의대에 근무하시다가 서석조 교수가 1960년 카톨릭의대로 가실 때 함께 가서 근무하셨는데 이수익 교수의 후임으로 다시 연세의대로 복귀하셨다. 그 당시에는 신경과학 교실이 독립되어 있지 않았기에 내과교수로 오셨던 것이다. 당시 내과는 소화기내과를 제1내과, 혈액내과를 제2내과, 순환기신장내과를 제3내과, 알레르기내분비내과를 제5내과, 신경내과를 제6내과, 흉곽내과를 제7내과로 하는 내과부 체제로 운영되었다. 김 교수님은 연세의대 부임 후 모든 업무를 내과부에서 관장하였기 때문에 학사업무, 전공의 제반업무 등을 하나도 뜻대로 못해서 신경과의 독립만이 살 길이며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학교업무가 끝나는 대로 보건사회부 실무자, 대한의사협회, 내과와 정신과학회 단체장과 관계자를 만나 동분서주하시면서 신경과 독립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시기를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늘날의 신경과가 탄생했으니 잊어서는 안 될 일등공신이신 분이다.

이 두 분의 신경과를 위한 헌신을 후학들은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1976년 신경내과 전임강사로 부임하였을 때 김기환 교수 한 분만 외롭게 고군분투 하시고 계셨다. 그 당시는 신경계 질환의 진료는 거의 신경외과가 주도하였고 신경외과의 위세는 하늘을 치솟을 듯 했다. 부임 2년 후인 1978년 신경과 미국연수 차 이현재 교수를 찾아뵙고 출국인사를 드리니 미국에서 신경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라는 격려와 함께 앞으로도 신경계 질환의 진단은 신경외과에서 잘 할테니 수술은 외과에서 하고 내과적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신경과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도 난다. 그런데 필자가 귀국 후 근무하던 1980년 3월 13일 새벽에 신경외과 대부이신 이현재 교수 내외분이 연탄가스로 갑자기 서거하셨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였던가?

이 교수의 서거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의학지식이 아무리 해박해도 항상 겸손해야 하고 타 과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감은 갖되 자만은 금물이라는 것을 필자에게 가르쳐준 큰 교훈이 되었다.

이외 신경과 초기에 있었던 애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초창기에는 뇌파검사기기도 정신과 김채원 교수 교수실 옆방에 한 대만 설치해 놓고 김 교수 허락 없이는 시행할 수도 없었고 시행하였다 해도 그 결과 보고는 아예 기대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근전도검사기기도 재활의학과에만 소속되어 신경과에서도 필요해 새로운 근전도 기기 구입을 신청해도 재활의학과와 반대로 결제가 나지 않아 여러 해 동안 고생하였던 일들, 이외 과거의 어렵게 지내던 기억들이 현재에도 뚜렷하게 내 머리 속에 맴돌아 다시는 그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

필자가 지면을 통해 피력한 내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탄생한 신경과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후배들과 한자리에서 반추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니 보람을 느껴 기쁘다.

끝으로 뿌리 없는 나무는 없듯이 근원 없는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없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힘을 합쳐 더욱 정진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명예교수 선우일남

신경과 독립과 신경과학교실을 창립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시던 김기환 교수님을 따라다니던 때가 엇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덧 30년이 지났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

돌이켜 보면 남들처럼 뚜렷한 목표도 없이 막연하게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의과대학 졸업 후 생화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생화학 주임교수였던 송정석 교수님의 권유로 내과 전공의가 되었으며, 내과 수련 후 생각하지도 않았던 신경과 교수가 되었다. 또한 허겁지겁 떠난 미국 연수 분야가 근전도검사이다 보니 말초신경계 질환을 전공하게 되었으며 신경과 교수와 의료정보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임을 하였다. 이 길은 대부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로 남이 선택해 준 길이었는데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탄해 보이지만 이 흐름에는 여러 번의 굽이가 있었으며 빠름과 느림, 그리고 폭포도 있었다.

내가 신경과 교수로 또 신경과 의사로 지금까지 활동하도록 만드신 분은 김기환 교수님과 미국 알라바마 대학 신경과의 오신중 교수님이다. 사실 1979년 5월 내과신경내과 전임 강사로 발령을 받을 때까지 나의 신경과 경험이라고는 내과 3년 차 전공의 시절 약 2개월간 김기환 교수님과 회진을 같이 돌고 학생 시험문제를 타이핑한 것 밖에 없었다. 당시 김기환 교수님이 객관식 학생 시험문제 약 50문항을 한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써내려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생 때 박충서 선생님이 신경과 강의를 하셨지만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Mr. Korea 선발 대회에 근육병환자가 출전하였더라는 기억뿐이고 이수익 교수님은 내가 의과대학 3학년 때 오셔서 내과 전공의 초반에 가셨기 때문에 직접 만날 기회조차 없었다. 내과 4년 차 때 혈액내과^{당시 2내과} chief였던 내가 엉뚱하게 신경내과에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전공의 수련 과정 중 특정 분야를 전공하는 시스템이 필자가 군에 입대한 다음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1975년에는 6내과신경내과에 1년 선배인 윤건일 선생님이 군 면제 후 fellow 비슷한 신분^{현재와 같은 fellow} 제도는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도입된 제도^임으로 김기환 교수님을 도와주면서 1년 동안 근무했는데 1976년 최일생 교수님이 신경내과 전임강사로 임명되면서 이

화여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로 이동하였다. 윤건일 선생님은 정우제 1978년 내과 4년 차로 신경내과 chief, 군 복무 후 이화여대 신경과 교수 역임 선생이 부임할 때까지 이화여자 의과대학에서 신경과 강의를 담당하였고 후에 의료원장까지 역임하였다. 필자가 임용된 1979년 5월 최일생 교수님은 미국 연수 중이었고 6내과에는 조효근 선생 1979년 내과 4년 차로 신경내과 chief, 군복무 후 부산 인제대학교 부속병원 신경과 교수 역임이 있었지만 staff로는 김기환 교수님 혼자 고군 분투하고 있었다. 임용 직후 최일생 교수님이 연수하고 있던 미국 알라바마 대학 신경과 주임교수인 Dr. Halsey와 신경외과 교수인 Dr. Morawitch가 김기환 교수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최일생 교수 후임으로 내 미국 연수가 결정되었다. 이때의 인연은 후일 1981년부터 1년 동안 당시 국립의료원 신경정신과 전공의였던 필자의 부인 조필자가 Dr. Halsey의 뇌파 검사실에서 연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내가 미국 알라바마 의과대학 신경과 오신중 교수님의 EMG laboratory로 연수를 떠난 것은 1980년 3월 말인데 큰 딸 문경이가 태어난 지 불과 일주일 후였기 때문에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다. 임용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급하게 떠난데다가 수속 도중 생각하지도 않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경학 공부나 생활 영어를 익히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다. 이 때 김기환 교수님의 격려와 적극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수속 도중 연수를 포기했을 지도 모른다.

영어도 못하고 신경과가 무슨 병을 진료하는 과인지도 모르던 필자를 2년 가까이 지도해서 신경과 의사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오신중 교수님이다. 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의료원에 전공의로 잠시 계시다 미국으로 건너 가서 많은 업적을 쌓으셨는데 미국에서 결혼한 사모님이 세브란스 선배인 소아과 의사였다. 오 교수님은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하는 EMG laboratory와 말초신경과 근육의 생검 및 조직화학검사를 할 수 있는 pathology laboratory를 둘 다 직접 운영하시는데 이 분야에 관련된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심은 물론 후일 근전도 관련 교과서도 여러 권 집필하셨다. 오 교수님과 김기환 교수님의 인연은 1972년 김 교수님이 알라바마 대학 신경과에서 뇌파 연수를 받을 때 맺어졌다고 하며 최일생 교수님과 필자, 후로도 한국의 많은 신경과 교수들에게 장기 혹은 단기 미국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셔서 초창기 신경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인 1980년에는 김현숙필자 후임으로 알라바마 의대 연수 후 개원이, 그리고 1981년에는 김원천원주의대 신경과 교수 역임이 내과 4년 차 신경내과 chief였으며 내가 귀국한 1982년에는 내과 4년 차 김지영과 내과 3년 차인 김승민현재 연세의대 신경과 교수 그리고 허균현재 아주의대 신경

과 교수이 신경내과 chief로 있었다. 이 해에 3년 차와 4년 차 전공의가 같이 있게 된 이유는 내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김지영 때까지는 4년, 그리고 김승민과 허균은 3년이었기 때문이다. 연세대학 신경과학교실이 창립된 지는 30년 밖에 안되지만 그 전부터 6내과는 비록 내과 소속이었으나 진료 특성상 이미 다른 전문 분야로 인정되고 있었고 또한 6내과 출신 내과 전문의 대부분이 후에 전공의 때의 신경과 수련을 인정받아서 신경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여러 대학에서 신경과 교수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이들도 넓게 본다면 교실 동문일 것이다.

1982년 2월 연수 교육을 마치고 귀국한 필자는 김기환 교수님이 대한신경과학회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많은 내과계 신경과 의사의 오랜 노력으로 1981년 말 대한신경과학회를 겨우 창립하고 대한의학회 준회원으로 등록까지 하였는데 1982년 들어서면서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가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와 정신과로 분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신경정신과 학회는 이 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과계 신경계 의사들은 신경과 독립의 주체가 내과가 되어야 한다고 김기환 교수님께 매달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김기환 교수님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보건사회부를 거의 매일 같이 드나들면서 설득하느라 매우 고생하셨는데 나도 여러 차례 김기환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였다. 아직도 김기환 교수님, 김명호 선생님^{한양대학 신경과 교수 및 부총장 역임}을 모시고 신경과가 내과의 한 분야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던 보건사회부 사무실에 갔다가 핀잔만 듣고 온 사실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김기환 교수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2년 7월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와 정신과로 분리한다는 법안이 공포되었고 신경정신과 학회가 주도하는 가칭 '신경과학회 창립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1981년 창립되었던 대한신경과학회는 자진 철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대한신경과학회는 1982년 여름 신경정신과학회 주도로 창립된 학회이다. 김기환 교수님은 이 창립 준비위원회에 내과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기존 내과계 의사가 신경과 의사로 될 수 있는 경과 조치를 마련하는 등 큰 업적을 이루었다. 지금 생각하면 만일 그때 김기환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경과 조치가 만들어졌을지 아직도 의심스럽다. 이 경과 조치에 의해 1983년 당시 제일 막내인 필자를 포함한 여러 내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문의가 2차 구술시험만으로 신경과 전문의가 될 수 있었고 정우제, 조효근, 김원천, 김승민, 서정규^{경북의대 신경과 교수}, 박규현^{부산의대 신경과 교수} 등 여러 내과 전문의가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신경과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1982년 내가 귀국할 당시 세브란스병원에는 방사선과^{현재 영상의학과}에 CT 장비가 있었지만 신경과에서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장비는 뇌파검사기계만이었고 근전도검사 장비는 재활의학

과 소속이었다. 나는 혹시 재활의학과 장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재활의학과 근전도검사실에서 검사기사를 교육하면서 환자 몇 명을 검사하였는데 며칠 후 재활의학과 신경순 교수님에게 불려 가서 검사기사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이니 직접 검사를 하지 말라는 꾸지람만 들었다. 신경과학교실에 근전도검사 장비가 도입된 것은 1983년 말이다. 당시 병원장이던 김춘규 외과교수가 김기환 교수님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근전도기계를 구입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이때 구입한 장비가 내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4 channels DISA 1000으로 당시로서는 최고급 장비여서 단섬유근전도검사(SFEMG)도 시행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나는 중증근무력증에서 SFEMG를 70에 이상 시행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었으나 사용한 지 불과 일 년도 안 되어서 고장이 나고 말았다. 당시 기계를 수입한 한국 회사가 DISA 본사와 A/S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엔지니어가 와서 직접 수리할 때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 장비로 내가 시행한 검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DISA 본사는 한국 대리점을 바꾸고 우리 장비는 본사에서 직접 A/S를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내가 직접 근전도검사 기계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이때부터였고 실제 두 차례 내가 직접 경비를 부담해서 근전도 기관도 만들었다. 첫 번째는 기획조정실 전산 차장(1994~1997)이었던 때로서 당시 보유장비였던 DISA 1000과 Cadwell 5200의 회로도를 참고하며 전자공학 출신 컴퓨터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는 의료원 의료정보실장(2001~2004) 때 의용공학교실의 유선국 교수에게 부탁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두 번 다 같은 이유로 실패했는데 그 원인은 기관에 있는 전기자극장치와 증폭기가 완전히 격리되지 않아서 강한 전기자극을 할 때 baseline이 변해서 운동신경전도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후일 유선국 교수는 이 문제가 capacitance 때문이고 좀 더 고가의 부속을 쓰면 해결될 것 같다고 하였지만 이때는 이미 내가 근전도검사기계를 직접 만들겠다는 꿈을 접은 다음이었다.

말초신경계 질환 증례 예수가 많아지면서 나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말초신경과 근육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당시 나는 서울대학교 병리학 교실의 지제근 교수님에게 근육과 신경의 조직검사를 의뢰하고 직접 서울대학교에 가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곤 하였다. 그 때까지 서울대학에서는 근육생검 조직화학염색(histochemical stain)을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오신중 교수님의 pathology laboratory에서 조직화학염색을 경험한 나에게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1989년 6개월 동안 오신중 교수님의 병리검사실로 두 번째 미국 연수를 떠났는데 떠날 때의 목적은 말초신경과 근육의 병리검사 방법을 배우고 또한 미국 근전도학회(AANEM)에서 시행하는 전문의 시험에 한 번 도전하는 것이었다. 비록 오토바이를 탄 미

국인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교통사고로 고생도 하였지만 그래도 원래의 목적은 완수할 수 있었는데 이때 이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고 치른 경험은 후에 내가 대한신경과학회 고시위원장으로 활동할 때와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에서의 자격 시험을 마련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귀국 후 실제 말초신경과 근육의 병리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부학교실과 병리학교실에서도 일부 장비를 빌려 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당했고 대학에서의 연구비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임상 진료과에서 병리학적 검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장비나 시약은 물론 공간 배정도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당시 신경과 주임교수인 김진수 교수님에게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결국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나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격으로 병리 검사를 위한 Cryotome, 현미경, 각종 시약 및 도구를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당시 근전도검사 판독실에 설치하고 병리조직검사를 시작하였다. 필자가 아는 한 이것이야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임상진단에 근육과 신경의 조직화학염색과 말초신경갈래검사를 이용한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인정한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계속 소모품과 시약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근육생검 조직화학검사로 진단한 첫 예가 후에 Nonoka myopathy로 보고하였던 증례인데 그 후 약 10년 이상 신경과학교실에서 이 검사를 시행하다가 차츰 병리학 교실의 김태승 교수에게 넘겨주었고 또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근육생검 자료는 최영철 교수에게 인계하였다. 신경생검과 말초신경갈래검사는 근육생검보다 조금 늦게 1992년에 시작하였는데 후일 말초신경 병리학을 미국에서 전공한 김승민 교수에게 일임하였다. 따라서 현재 신경과 외래에 있는 병리검사 장비 들은 모두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한 장비이기 때문에 연세의료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의 장비가 아니다. 그런데 연세의료원 장비라는 관재과 label이 붙어 있는 것은 세브란스 새 병원으로 이전할 때 개인 장비는 세브란스 새 병원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나는 임상 의사^{clinician}이지 의학자^{medical researcher}가 아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박사 학위도 임상 의사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대신 미국 AANEM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였다. 한 때 박기덕 선생의 학위 때문에 일시적으로 쥐를 잡기는 하였지만 이것을 끝으로 의학자의 길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교수로서의 전공의 교육 목표도 좋은 신경과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었지 뛰어난 의학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지도한 fellow 출신 중 최병욱 선생과 같은 뛰어난 의학자가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자신이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의사는 병력과 진찰에서 감별 진단이 가능한 병을 나열할 수 있고 검사는 진단을 확인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의사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답

이 전공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몰아 붙이곤 하였는데 빨리빨리 그리고 적당히 진단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젊은 의사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하나의 고문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다. 고가의 검사를 먼저 시행하면 왜 했느냐고 따져 묻고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투약하면 해열제의 적응증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으니 이런 공격을 당하는 전공의나 fellow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괴로운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시달림을 받은 젊은 의사들은 나에게 ‘물오징어’라는 별명을 붙이고 괴물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박영관 선생님이 근전도검사실 fellow로 근무할 당시 집으로 초대받아 방문하였을 때 나를 처음 본 박영관 선생 부인이 “어머, 우리하고 똑 같이 생겼네요.”라고 말해서 한참 웃은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 방법은 진료 형태가 점점 환자 자체보다 검사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공의의 증례 발표 내용도 병력과 진찰 소견을 MRI에 맞추어서 보고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래도 나는 교육 방법에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 목표나 방향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MRI 검사는 현재 신경과 의사의 희망처럼 보이지만 지금처럼 신경과 의사가 MRI 매달리게 되면 불원간 이것이 우리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전공의 시절 지나치게 시달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시 전공의와 fellow는 그 때의 괴로움을 하나의 추억으로 넘기고 좀 더 좋은 교육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 전산차장과 의료정보실장으로서의 경력이다.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마지 못해 끌려 들어갔지만 교수로서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40~50대를 외국 학회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지내야만 했으니 이것이 후회가 된다. 그래도 지금의 연세의료원으로 발전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도 있다. 병원 전산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교수들이 내가 주임 교수 자격이 없다고 매도하게 만든 것도 이것이고 의사보다 넓은 시야를 가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의사가 얼마나 자기만 잘나고 뛰어났다고 착각하는지 알게 된 것도 이 시기의 경험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의 중요성과 인사권을 가진 책임자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체감하였던 경험은 후일 내가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를 운영하면서 기초를 다져야 할 때 크게 도움이 되었다.

사실 나는 컴퓨터를 모른다. 프로그램을 할 줄 모르는 것은 물론 있는 프로그램조차 잘 사용하지 못한다. 오랫동안 근전도검사실에서 사용하였던 판독시스템도 내가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Paradox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자동 프로그램 작성기를 이용해서 만든 것에 불과하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컴퓨터가 깡통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이 깡

통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평소 귀찮았던 작업이 비교적 손쉽게 해결된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런 내가 10년 이상 의료원 전산 책임자로 임명된 것을 보면 이 근전도검사실의 영터리 판독시스템이 1991년 행정 책임자의 눈에는 마치 대단한 물건처럼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진퇴양난의 입장이었다. 의료보험 제도로 인해서 진료업무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기존 원무과 전산시스템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미리 예상한 연세의료원에서는 한국 IBM의 지원으로 1990년 처방전달시스템([order communication system; OCS](#))을 개발하였지만 그것을 현업에 적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원인은 프로그램이 너무 커서 현업에서 활용하려면 세브란스병원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설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병원 행정부에서는 그 수습책으로 1991년 전산소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나도 그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전산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모였는데 처음에는 서로 만나서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3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점차 연세의료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실무 위원회로 성격이 변했다. 2004년 전산소위원회 회의 마지막 결론은 전산 환경을 server - client로 선택하고 프로그램은 외부 용역보다 직접 개발하며, 의료원에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만들고 그 책임자로는 임상 진료 의사가 되어야 할 것 등이었다. 당시 의료원장은 김일순 교수([예방의학](#)), 기획조정실장은 이규창 교수([신경외과](#)), 그리고 병원장은 박인용 교수([이비인후과](#))였는데 전산소위원회의 안를 받아들여 기획조정실에 전산차장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전산차장으로 나를 임명하였다. 처음 나는 근무 시간의 한 30% 정도만 할애하면 될 것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이 직을 수락하였지만 이것이 큰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아침 회진과 외래 진료 시간을 빼고는 하루 종일 이 일에 매달려 있어야만 했다. 오죽했으면 외국에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던 환자 가족이 “매일 회의만 하는데 일은 언제 하나요?”라고 불평을 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 행정책임자들의 완전한 믿음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전산과장으로 열심히 뛰어 다닌 김남현 의용공학교수가 없었다면 처방전달시스템([yocs](#))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5년 전 현실 적용을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업체가 당시 세브란스병원 부원장을 통해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곧 마비가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다녔는데 정말 갑자기 전산이 마비되고 말았다. 이 때 박인용 병원장이 “전산이 실패하면 당신과 나만 사표를 내면 그만이니 소신껏 진행하라.”라는 격려가 없었다면 나는 도끼로 전산 장비를 찍고 사표를 쓰고 말았을 것이다. 또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투자라고 생각되는 통신망을 설치하고자 할 때 “난 이렇게 결정을 한 당신을 완전히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결재를 하신 김일순 의료

원장이 없었다면 연세의료원은 두고두고 전산망 장애로 골탕을 먹었을 것이다. YOCS 개발이 끝나고 세브란스 병원에 설치도 거의 완료될 무렵인 1997년 신경과 전문의 고시에서 교실 여러 전공의가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나는 이 사태를 핑계로 전산차장직을 사임하고 교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나는 연세의대에서 신경과 의사로 30여 년간 생활하면서 크게 아쉬웠던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내가 1999년도에 주임교수직을 맡지 못하였던 것이며, 다른 하나는 내가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할 때 우리 교실의 교원들을 좀 더 많이 대한신경과학회 임원으로 기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나는 주임교수로서 우리 교실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나름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지만 주임교수가 되지 못하여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 무척이나 아쉬움이 크다. 한가지 더 고백하자면 그 시절 주임교수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사실 아직까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교실원들 다수를 학회 임원으로 기용하고 싶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생각대로 되지 않아 총무에 김승민, 재무이사에 허지회 교수만이 학회 임원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대한신경과학회가 그 당시의 학회 임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때 좀 더 많은 수의 교실원들이 학회 임원으로 참여하였다더라면 현재 학회에서 우리 교실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이 지면을 통하여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총무와 재무이사로 활동하며 고생한 김승민과 허지회 교수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동안 우리 신경과학교실은 많은 갈등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속히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화합할 때이다. 왜냐하면 신경과학교실은 특정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발전시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보다는 우리 그리고 우리보다는 교실의 먼 장래를 생각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교실원들을 기대하면서 회고사를 마치고자 한다.

1885	4. 10	• 1884. 9. 20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견된 알렌(H. N. Allen) 박사에 의하여 한성 북부 창덕여고 북쪽 재동(홍영식 구가)에 왕립병원인 광혜원(廣惠院, House of Extended Grace)을 창설
	4. 26	• 광혜원을 제중원(濟衆院, House of Universal Helpfulness)으로 개칭
1886	3. 29	• 제중원의학교 개교(의학생 16명 선발, 최초로 서양의학 강습 시작)
1904	11. 16	• 세브란스씨 기증으로 남대문 밖 복숭아골(현 도동)에 병원 개원, 세브란스 병원으로 명칭 변경
1909	7.	• 제중원의학교를 세브란스병원의학교로 학부에 등록
1911	11.	• 맥라렌 - 호주장로회의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여 진주 배둔기념병원에서 진료 시작
	6. 13	• 세브란스연합의학교 학교교사 봉헌식
1913		• 맥라렌 - 세브란스연합의학교에서 신경과학 강의 시작(4학년 학생 대상으로 주당 2시간)
1917	5. 14	•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재단법인 설립인가 및 명칭 변경
1922	4. 1	•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명칭 변경
1923		• 맥라렌 - 세브란스의전 전임교수 발령
1924	3.	• 이중철 -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입학
1927	3.	• 이중철 -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 졸업
1929	3.	• 이중철 - 세브란스에서 신경정신과학교실 조수
1930	11.	• '조선의보' 창간호에 이중철이 '유행성 뇌척수막염에 Cisterna Magna 세척요법' 논문 게재
1932	4.	• 이중철 - 세브란스의전 신경정신병과 교실 강사
1933	8. 31	• 영문의학잡지 창간(Journal of Severance)
1936		• 이중철 -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에 'Origin of Senile Plaques' 게재
1937		• 이중철 - 세브란스의전 신경정신병과 교실 주임교수
1938		• 이중철 - 세브란스의전 사임
	10.	• 맥라렌 - 세브란스의전 사임. 사임 이후 진주 배둔병원에서 사역
1939		• 장경 - 세브란스의전 신경정신병과 강사(1939년 10월부터 1946년까지 내과에서 신경질환과 신장질환의 강의와 진료 담당)
1940		• 장경 - 세브란스의전 신경정신병과 조교수

1942	6.	• 아사히의학전문학교 및 부속병원으로 강제 개칭(이 때 내과가 재편되면서 신경정신과는 내과로 흡수되어 제3내과가 되고 장경이 담당)
	6. 2	• 맥라렌 - 일제에 의하여 한국에서 추방
1945	4. 14	• 이종철 - 발진티푸스 감염으로 사망
	8. 15	• 해방과 함께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및 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명칭 환원
1946		• 장경 - 세브란스의전 사임
1947		• 세브란스의학대학으로 승격
1948	7.	• 제1회 의예과생 수료 및 제1회 의학부 발족
1951	1. 25	• 전시교육령에 따라 전시연합대학에 편입
1955		• 서석조 - 세브란스의과대학 내과 조교수 부임
	5. 25	•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현 위치에 세브란스병원 건물 착공
1957	1. 5	•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의과대학의 통합
	10.	• 맥라렌 호주에서 사망
1960	3.	• 서석조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직 사임
1962	6. 5	• 의학대학 교사, 간호대학 기숙사 및 병원건물 준공
	8. 1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을 연세의료원으로 명칭 변경
1969	10.	• 이수익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부임
		• 세브란스병원에 Grass 8ch 뇌파검사기기 도입
1970		• 신경내과 소속으로 Grass 8ch 뇌파검사기기 도입, 뇌파검사실은 당시 제중관 지하 1층에 위치
1971		•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근전도검사기기를 구비하여 근전도검사 시작
1972	12. 21	• 대한민국 대학교 최초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신경과학교실 개설, 이수익 -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로 발령
1973	3. 28	• 의과대학 신관 준공
		• 이수익 도미
1974	7.	• 김기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임교원 부임, 제6내과(신경내과) 과장 취임, 신경과학교실은 다시 내과의 분과로 편입
1976		• 최일생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임교원 부임
		• Grass 16ch 뇌파검사기기 도입

1978	1. 13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분교 설립 인가
1979		• 선우일남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전임교원 부임
1982	8. 28	• 대한신경과학회 창립총회 개최
1983	3.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창립, 초대 주임교수로 김기환 취임 •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첫 전공의 수련 시작(최경규, 황연미)
	12.	• 당시 본부건물 2층으로 뇌신경기능검사실 확장 이전, 뇌파검사기, 근전도검사기, 유발전위검사기 도입
	3. 4	• 인천산업병원 개원(80병상)
	4. 14	• 영동병원 개원(284병상)
	4. 15	• 용인 및 광주분원 개원(각 30병상)
1984		• 김진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7.	•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신경과 신설, 초대 과장 최일생
1986		• 김승민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첫 전공의 수련 시작(이성수)
1988		• 이명식, 이병인, 허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1989	3.	• 김진수 - 제2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취임 • 신경근육병리검사실 신설
1989	6.	• 국내 최초로 epilepsy clinic 개설(1992년 3월 16일 뇌전증클리닉 신설)
1990		• 국내 최초로 급성기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맥내혈전용해치료를 신경과학 회지에 보고
1991	3. 1	• 인천세브란스병원에 신경과 개설
1992		• 뇌연구소 개설 • 손영호, 허지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1993		• 경두개 초음파(Transcranial Doppler) 도입, 뇌혈류 검사실 •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생리검사실(근전도검사실) 신설 • 박수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1994		• 허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사임
	5. 14	• 연세의대 간질클리닉 제1회 간질심포지엄 개최(의대 241호)(한스 오토 튀더스 (미국 클리블랜드병원) 초청)
1995	2.	• 최일생 - 제3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취임
		• 최영철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8.	• 김기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정년퇴임
	11. 20	• 이수익 사망
1996	5.	• 임상의학연구센터 개원
	9.	• 제9차 AOCN 및 제1차 AOEO 학술대회 개최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우경, 김원주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 신경생리검사실(근전도검사실)이 뇌신경기능검사실(뇌파검사실)과 분리되어 당시 별관(현 어린이병원) 2층으로 이전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병인 - 제11회 보원학술상 수상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 이병인 - 제4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취임 • 김진수 -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9. • BK21 의과학사업단 선정 9. 2. • 인천세브란스병원 폐업 - 성세의료재단에 임대(1999. 12. 27)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경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전임교원 부임 • 국내 최초의 정맥-동맥 내 병합 혈전용해치료법 시행 2. •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서 본태성 진전환자의 심부 뇌저극술 수술이 국내 최초로 시행 3. 3.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 7. 25. • 세브란스 새 병원 착공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 김우경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사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남세브란스병원 근육병리검사실과 연구실 신설 12. 24. • 국내 최초로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 개소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경열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8. 15. • 제1회 연세간질교육세미나 개최 10. • 아세아 태평양 파킨슨병학회 학술대회 개최, 회장: 김진수, 장소: 서울 코엑스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 별관 87병동에 24시간 비디오-뇌파 모니터링 검사실 신설 • 수면클리닉, 수면다원검사실, 인지검사실 신설 • 신속한 혈전용해치료를 위한 BEST 프로그램 개발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5. 4. • 세브란스 새 병원(본관) 봉헌, 새 병원(본관) 5층 뇌신경센터로 신경과 외래와 뇌 신경기능검사실이 통합 이전, 입원 관련 시설은 11층으로 통합 이전 • 운동검사실 신설 • 인지검사실 - 임상심리사 근무 시작 • 김진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정년퇴임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3. • 김승민 - 제5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취임 5. 2. • 세브란스병원, 美 JCI(국제의료기관인증위원회) 국내최초 인증 획득 • 최일생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정년퇴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효석, 류철형, 이필휴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외래진료 시작(파견 진료) 11. 27. • 세브란스병원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부단장: 허지희)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선도형 연구중심병원사업 선정

2009	2. 1	• 영동세브란스병원을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명칭 변경
	3.	• 김영대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11. 6	• 제1회 세브란스 뇌혈관의 날 건강강좌 및 심포지엄
	11.	•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급성기 뇌졸중 진료평가에서 1등급 획득
	5. 21	•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단 개소
2010	3. 1	• 의예과 소속변경(이과대학 → 의과대학)
	3.	• 홍지만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개설(과장: 홍지만)
	3. 25	• 최영철 - AOMC 2010 조직위원장으로 활동
	4. 24	• 국내 최초로 JCI의 뇌졸중 임상치료 프로그램인증(CCPC: Clinical Care Program Certification) 획득
	11. 20	• 연세파킨슨센터 개소 및 제1회 연세파킨슨센터 심포지엄
2011	3.	• 최영철 - 제6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취임
	3.	• 조양제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8.	• 선우일남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정년퇴임
2012	3.	• 신하영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11. 2	• 김기환 명예교수 신경과학회 향설상 수상
		• 뇌졸중119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3	1. 12	• 제1회 뇌전증연구소 심포지엄
	3.	• 송동범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원 부임
	4. 11	•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뇌과학분야 연구 협력을 위한 제1회 합동워크숍 개최

제1장 교실의 역사

1. 창립 이전기(제중원 시기~창립)
2. 초창기(1983년~1989년)
3. 성장기(1990년~1999년)
4. 발전기(2000년~2013년)



제1장 교실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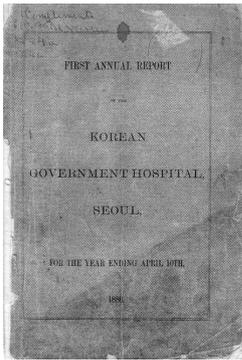
제중원

1. 창립 이전기(제중원 시기~창립)

▣ 제중원 시기의 신경질환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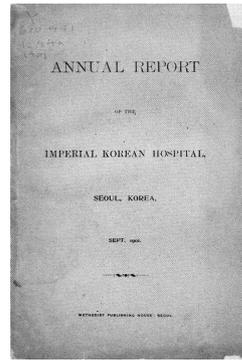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근대의료가 처음으로 시술된 것은 1885년 4월 10일 개원한 제중원에서였다. 제중원이 개원하자 신기한 서양의술의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알렌은 그보다 늦게 입국한 해론과 더불어 몰려드는 환자 치료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러한 와중에도 알렌과 해론은 제중원 개원 후 한 해 동안 진료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통계를 정리해 선교부에 보고했다.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본 환자들의 통계를 계통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신경계통질환’을 앓은 환자들에 대한 통계도 있어 이들을 통해 제중원에서 진료한 신경계통 질환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제중원에서 1년 동안 총 833명의 신경계 환자를 보았다. 결코 적은 수는 아니었다. 여기에 기록된 질병명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떤 환자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신경계통질환에는 히스테리와 광증^{insanity}, 불면증과 같이 현재의 정신과의 진료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당시 신경과와 정신과가 엄밀히 구별되지



제증원 1차년도 보고서(1886년)

FIRST ANNUAL REPORT KOREAN GOVERNMENT HOSPITAL, SEOUL. 11	
Forward	11
Statistical Table	11
General Remarks	11
Admission	11
Discharge	11
Deaths	11
Out-patients	11
Operations	11
Medical	11
Surgical	11
Obstetrics	11
Gynaecology	11
Pharmacy	11
Chemistry	11
Physiology	11
Pathology	11
Microbiology	11
Hygiene	11
Sanitation	11
Public Health	11
Summary	11
Index	11



제증원 보고서 및 보고서에 실린 환자통계표(1901년)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일부 정신과 질환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신경계통의 질환이다. 그 중에서도 뇌전증환자가 307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마비환자이다. 마비환자는 마비의 정도와 부위에 따라 다시 더 세분되어 있다. 전신마비49례, 하지마비19례, 반신마비59례, 안면마비41례 등이다. 그밖에도 좌골신경통22례, 신경통28례, 편두통16례, 그리고 무도병2례도 있었다.¹⁾

이 보고서에서는 일부 질환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통계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징들이나 치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환자통계만을 제시하고 있어, 어떻게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위의 통계는 외래환자들에 대한 통계로 입원환자들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입원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외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였다. 기록된 총 265명의 입원환자 가운데 신경계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는 허반신 마비로 12일간 입원한 6세 남자아이가 유일하다. 그 아이는 입원기간 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들 환자통계를 통해 이미 제증원의 개원 초기부터 많은 수의 신경계통 환자들을 진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신경계 환자들을 제증원 개원 초기부터 진료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이 시기에 신경계 질환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다. 제증원에서 해부학을 가르쳤던 만큼 신경계의 해부학도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신경계 질환에 대한 교육은 신경과가 독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관계로 별도의 과

1) H. N. Allen and J. W. Heron, First Annual Re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spital, 1886, p. 11.

목으로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다른 과목 가운데 포함된 내용으로 가르쳐졌다. 예를 들면 진단학의 경우가 그러했다. 1906년에 제중원에서 발간한 진단학 교과서에는 인체의 각 계통에 대한 진단 방법과 내용이 실려 있다. 제중원의 진단학 교과서는 모두 2권,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있다.²⁾

이 책은 원래 독일어로 된 진단학 교과서의 일본어 번역판을 우리 실정에 맞게 편역한 것이다. 신경계 진단에 대한 내용은 이 책의 맨 마지막인 제10장에 기술되어 있다. 제10장의 제목은 ‘신경계의 진사(診査)’이다.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진단(診斷)’이란 용어와 다른 ‘진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이 장은 다시 5개의 절로 세분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절은 운동계 장애, 2절은 지각계 장애, 3절은 오관계 장애, 4절은 영양신경 장애, 5절은 혈관운동신경 장애이다.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운동계 장애로, 그 내용 가운데 주요 신경과 그 신경이 분포하는 근육들을 열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2절의 지각계 장애는 감각신경의 장애를 말한다. 3장의 오관계 장애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의 장애를 말한다. 그리고 4절의 영양신경장애란 신경손상으로 인한 근위축을 말한다.

▣ 세브란스의전 시기의 신경학

신경과 환자는 제중원 개원 당시부터 있었지만 한두 명의 의사가 모든 환자를 보는 상황이어서 보다 전문화된 진료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다행히 에비슨의 노력으로 세브란스 씨로부터 기부를 받아 보다 큰 새로운 병원을 지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의료진의 부족은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브란스는 북장로교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교파연합기관으로 탈바꿈한다. 그 덕분에 북장로교 이외의 다른 선교부에서 파견된 여러 의사들이 세브란스에 와서 일하게 되면서 세브란스에서의 진료와 교육도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세브란스가 교파연합기관이 된 이후 파견된 의사의 한 사람이 맥라렌(Charles Inglis McLaren, 1882-1957)이었다.



맥라렌(Charles Inglis McLaren, 1882-1957)

2) 홍석후 번역/어비신 교열, 『진단학 권2』, 대한황성제중원, 1907, pp. 142-157.

맥라렌은 호주 장로교에서 파송하여 1911년 조선에 온 의료선교사였다. 그는 1906년 멜버른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멜버른 아동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며 신경과와 정신과를 전공했다. 일본에서 활동한 선교사 아버지의 영향으로 선교의 꿈을 키운 맥라렌은 수련을 마치고 여러 가지로 모색하던 가운데 조선으로 오게 되었다. 조선에 온 맥라렌은 호주장로회의 활동 지역이었던 경남 진주의 배둔병원에서 근무하였다.



호주 장로회의 진주 배둔기념 병원

맥라렌이 배둔병원에서 근무하던 1913년 세브란스병원 연합회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각 선교회 소속의 의사들은 세브란스에 파견 요청을 받게 되었고, 맥라렌은 방문 강사로 1년에 3개월씩 서울에 머물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신경과와 정신과를 주로 가르쳤지만, 그밖에 소아과를 가르치기도 했다. 신경과 강의는 이 시기에 맥라렌이 처음으로 했다. 물론 당시에는 신경과와 정신과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신경과와 정신과 강의가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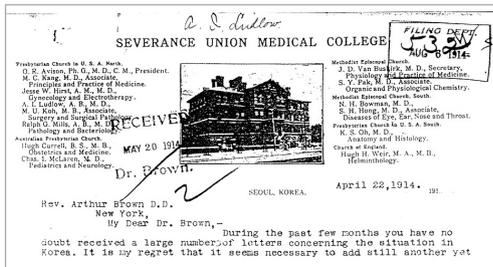
1917년 세브란스 일람에 따르면 신경학^{Neurology}은 4학년에 매주 2시간씩 강의가 있었다.³⁾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신경학^{Neurology}’은 오늘날의 신경학보다는 범위가 넓어 정신의학까지도 포함된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천된 교재는 일본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쿠레 슈조



세브란스 신축교사(1913년)

3) Catalogu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1917, pp. 31-32.



1914년 사용된 세브란스의 공식 편지지.
 각 교파가 후원한 교수진들의 명단이 들어 있으며
 맥라렌은 소아과 및 신경과 교수로 표기 되어있다.

吳秀三의 신경정신의학 교과서였다. 맥라렌이 실제로 이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를 했지는 알 수 없다. 맥라렌은 진주와 서울을 오가며 강의를 하다가 1923년에 세브란스의 전임교수로 자리를 옮긴다. 맥라렌은 신경과와 정신과 환자를 모두 진료하고, 강의도 했다. 그는 자신이 조선에서 본 신경과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서양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퇴행성 신경질환을 조선에서 보았다. 진행성 근위축^{progressive muscular atrophy}, 가성 비후성 근육이완증^{pseudo hypertrophy muscular dystrophy}, 척수공동증^{syringomyelia}, 프리드리히 실조증^{Friedreich's ataxia}, 동반경화증^{combined sclerosis} 등. 나는 란드리 디제린 타입의 이양증^{Landry Dejerine type of dystrophy; fa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까지 보게 되었다.”⁴⁾

그는 조선에서 무도증을 본 적이 없으며, 매독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독균이 뇌를 침범하여 생기는 신경계 질환이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뇌전증환자를 루미날과 브로마이드로 치료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자평하였다. 아울러 폐흡충이 뇌를 침범한 경우가 세 증례 있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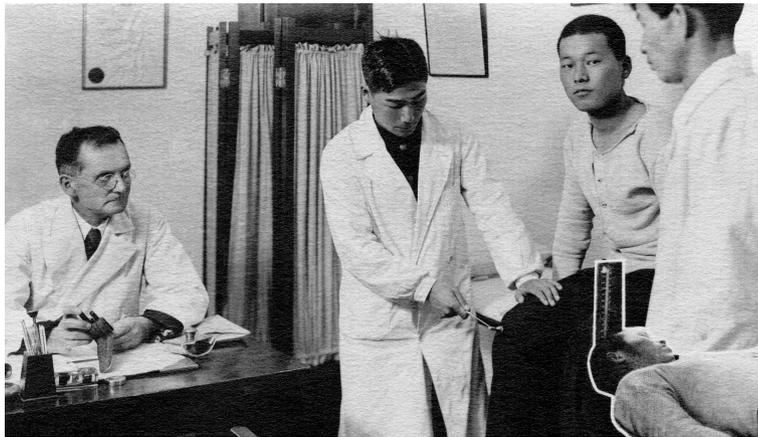
진찰실의 맥라렌(1933년)

4) Chas I. McLaren, Report of the Department of Neurology and Psychiatry of th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Seoul, Korea. The China Medical Journal 45: 1058-66, 1931.

아울러 그는 학생 강의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맥라렌이 신경과뿐 아니라 신경질환의 이해에 기초가 되는 신경계의 해부학까지 가르쳐왔음을 다음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올해 신경해부학 강의에서 나는 처음 랜턴 슬라이드로 강의를 했다. 슬라이드는 멜버른 대학의 해부학교실에서 기증받은 것이었다. 슬라이드는 무척 귀중하며 베리 교수와 코우츠 박사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과 호의로 이 슬라이드들이 내게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자율신경계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나는 처음으로 자율신경계와 그 질병에 대한 특별 강의를 4학년 학생들에게 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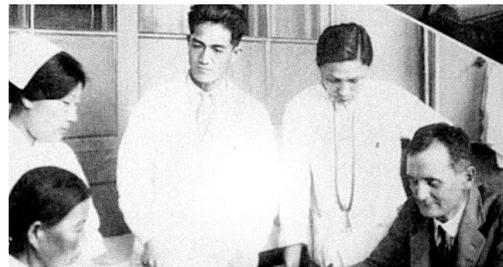
맥라렌의 영향 때문이었는지 졸업생들 중에서 전공지원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처음 남



신경학 검사를 지켜보는 맥라렌



맥라렌의 증례 강의



진료하는 맥라렌

5) 앞의 글

은 사람은 1919년 졸업생인 이수원이었다. 그는 10년 가까이 학교에서 신경과와 정신과를 공부하고 가르치다가 학교를 떠났다. 이수원 이후에는 1927년 졸업생인 이중철이 신경정신의학을 전공했다.



이중철 교수(1904~1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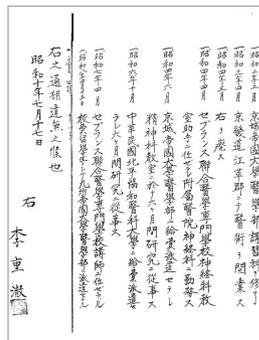
이중철의 첫 논문 ‘유행성뇌척수막염에 Cisterna Magna 세척요법’은 1930년 11월 당시 조선인 의학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조선의보> 창간호에 실렸다.⁶⁾

이것은 유행성 뇌척수막염시 요추천자와 cisterna magna의 천자를 동시에 시행하고, 뇌척수를 생리식염수로 반복하여 세척하는 치료법에 대한 논문이었다. 이중철은 뛰어난 머리와 더불어 임상술기도 아주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자인 이중철에 대해 스승 맥라렌은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이전에는 새로운 좌골신경통 환자가 오면 깊은 무력감으로 받아들였다.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닥터 리(이중철)가 40례 이상에서 사용한 ‘경막외 주사법(epidural injection)’은 아주 우수한 결과를 보여서, 이제 나는 그러한 경우에 호전되고 아마도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환자를 그에게 보낸다. 삼차신경통의 경우 갓세르 신경절(Gasserian ganglion)에 성공적으로 주사한 것을 보더라도 닥터 리의 뛰어난 기술을 잘 알 수 있다.⁷⁾

신경통환자들이 오면 당시 조수였던 이중철에게 스승 맥라렌이 환자를 보낼 정도였던 것을 보면 맥라렌이 얼마나 이중철을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후 이중철은 1931년 10월 중국 북경의 협화외과대학에 파견되어 6개월간 연수를 했다. 북경협화외과대학은 세브란스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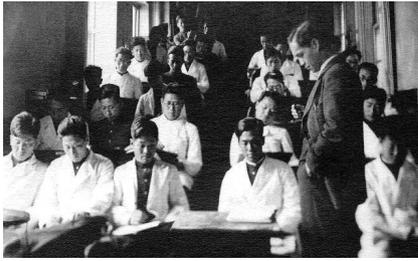
이중철 교수의 이력서



이중철 교수의 논문이 실린 <조선의보> 창간호 속표지

6) 李重澈, 流行性腦脊髓膜炎에 Cisterna Magna 洗滌療法, 朝鮮醫報 제1호: 45-47, 1930.

7) E. M. Anderson, Report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and Hospital, Seoul, Korea. April 1, 1930 - March 31, 1931.



강의실의 이증철 교수

동하던 선교회들이 연합하여 만든 기관이었다. 그런데 록펠러 재단이 이 학교를 중국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키우겠다는 계획 아래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다. 교수진으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학자를 초청하여 학문의 전반적인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북경협화의과대학은 세브란스와 유사한 기독교의료기관이면서도 학문적 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라는 점에서 세브란스 출신들이 적지 않게 유학을 했던 기관이었다. 이증철은 북경협화의과대학 신경과의 드 브리스Ernst De Vries에게 가서 배웠다. 이증철이 거기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신경학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북경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마친 이증철은 1932년 4월 강사로 모교에 복귀하였다. 그리고 1년 후인 1933년 4월 15일 교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큐슈제국대학 의학부 정신병학 교실로 유학을 갔다. 그곳에서 이증철은 뇌의 기질적 병변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1935년 12월 19일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논문의 제목은 ‘마비성치매에 있어서 소녀의 병리조직학적 연구’^{일본어}였다. 주논문 외에 4편의 부논문이 함께 제출되었는데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Origin of Senile Plaque 2) 만성 하기뇌염에 있어서 oligodendroglia의 변화 3) 다핵 퍼킨지 세포의 병리학적 의의^{일본어} 4) Estimation of Calcium and Kalium in cases of Parkinsonism. 이처럼 뇌병변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증철은 oligodendroglial cell을 염색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Lee’s method’로 명명되어 국제적 잡지에 실리기도 했다.⁸⁾

이렇게 우수한 학문적 성취를 내며 학위를 받은 이증철은 모교에 조교수로 발령받아 복귀하였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의와 진료, 그리고 연구에 몰두했다. 당시 신경과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으나 이증철이 제출한 신경과 문제가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

4학년 신경과 문제(1936년 3월 3일 오후 1-4시)

1. 척수로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무도병에 대해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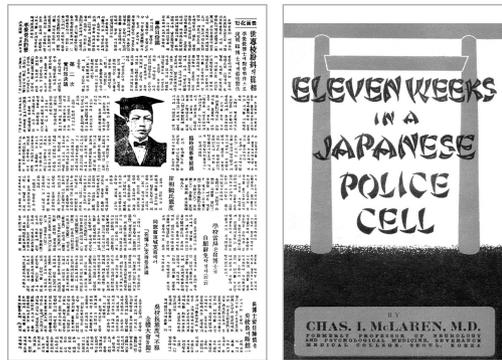
8) S. Hirosi and C. C. Lee, Origin of Senile Plaques. 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 1936.

이중철은 1937년부터 신경정신과의 과장으로 임명되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으나, 뜻하지 않게 당시 발생한 입학부정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태도를 비판하던 끝에 결국 1938년 학교를 사직했다. 그리고 맥라렌도 1938년 10월경 개인적인 지병을 이유로 학교를 사직했다. 이처럼 세브란스 신경정신과를 이끌어오던 두 인물이 갑자기 학교를 떠남으로써 큰 공백이 발생했다.

이들이 세브란스를 떠난 후 내과의사 장경이 1939년부터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고⁹⁾, 다음해에 조교수로 승진했다. 1940년에는 세브란스를 졸업한 유창현이 조수로 들어왔다.¹⁰⁾

일제 말기인 1942년 6월부터 세브란스는 아사히^旭 의학전문학교로 이름이 강제 개명 당하며 일본인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¹¹⁾

교명이 바뀔 때 내과가 재편되면서 신경정신과는 내과로 흡수되어 신경과를 담당하는 제3 내과가 되었고, 장경이 이를 담당하였다.¹²⁾



이중철이 세브란스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된 최명학 교수 관련 기사(좌) 맥라렌이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감옥에 갇혔던 경험을 담은 책(우)

■ 해방 이후 세브란스의 신경학

해방 이후에도 신경학은 독립된 분야로 교육되거나 연구되지 못하고 정신과와 내과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그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신경과를 전공한 서석조 교수가 1955년 세브란스 내과에 부임함으로써 세브란스의 신경학 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된다. 서석조 교수는 1946년 일본의 경도부립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49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주 세인트 발나바스 병원에서 인턴을, 뉴저지 메디컬센터에서 내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뉴욕에 있는 코넬대학 부속병원인 벨뷰병원에서 신경내과 레지던트 수련을 받았다. 이후 코넬대학 의과대학 강사로 있다가 195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의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이후 1960년 가톨릭의대로 떠날 때

9)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39. p.106.

10) 『세브란스聯合醫學專門學校一覽』, 1940. p.111.

11) 연세의료원 120년사 편찬위원회, 『인술, 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 연세의료원, 2005. p. 319.

12)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백년 편찬위원회, 『의학백년』, 1986. p. 432.



서석조 교수(1921~1999)

까지 내과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내과과장을 역임했다.

서석조 교수가 세브란스에 재임시절 신경과와 관련된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로 없다. 다만 이 시기 서석조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나 글들을 통해 활동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서석조 교수는 세브란스에 재직시절 모두 9편의 원저논문을 발표했다. 이 중 두 편은 소속이 가톨릭 의대로 되어 있으나 세브란스병원의 환자 통계를 이용한 것으로 투고와 게재 사이의 시간차로 발생한 현상이므로 세브란스 재직 시절의 논문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 가운데 신경과 논문에 해당되는 것은 두 편으로 모두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의 통계를 이용한 임상적 연구이다. 그 중 하나는 안면마비에 대한 것이고¹³⁾ 다른 하나는 뇌졸중 환자에 대한 임상적 연구이다.¹⁴⁾

앞의 논문은 1946년 5월 1일부터 1959년 8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한 'Bell's palsy' 환자 200명에 대해 그 임상적 소견을 고찰한 논문이다. 그리고 뒤의 논문은 1957년 1월부터 1960년 8월까지 세브란스병원 내과에 입원한 뇌졸중 환자들에 대한 임상적 관찰이다. 그밖에도 당시에 국내에서 발간되던 여러 종합의학잡지와 일반 잡지에 신경과 질환에 대한 여러 편의 종설을 써서 신경과 질환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힘썼다. 서석조 교수는 세브란스를 떠난 이후에도 신경과 질환에 대한 종설을 꾸준히 발표하지만 세브란스에 재직하는 기간에 발표된 관련 종설만의 제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뇌출혈과 뇌혈전의 감별진단'¹⁵⁾, '신경계 질환(특히 뇌전색증)에 대하여'¹⁶⁾, '신경성호흡증이란'¹⁷⁾, '간질병'¹⁸⁾ 등.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석조 교수가 세브란스를 떠난 이후에는 신경학 전공자가 없어 서울의대 정신과의 남명석 교수가 외래강사로 신경과 강의를 하는 등 1960년대에는 관련 내용을 정신과, 내과, 신경외과 등에서 나눠 학생강의를 하는 정도로만 유지되는 형편이었다.

13)李大淵·金日勳·徐錫助, Bell's Palsy: 200例의 臨床的考察, 대한내과학회잡지 3(2): 81-83, 1960.

14)曲椒緒·金基煥·李祥鐘·徐錫助, 卒中(CVA) 환자 100례에 대한 임상적관찰, 대한내과학회잡지 4(4): 325-327, 1960.

15)徐錫助, 腦出血과 腦血栓의 鑑別診斷, 한국의학 6(1): 39-41, 1959.

16)徐錫助, 神經系 疾患(특히 腦栓塞症)에 대하여, 최신의학 2(1): 35-39, 1959.

17)徐錫助, 神經性呼吸症이란, 보건세계 7(9): 79-88, 1960.

18)徐錫助, 癲疾病, 사상계 8: 213-219, 1960.

신경과학교실의 창설

그러는 가운데 다행히 세브란스를 1958년에 졸업하고 미국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이수익 교수가 1969년 부임하면서 신경과의 전문적인 교육과 진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수익 교수는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65년부터 1968년까지 버지니아 의과대학의 신경과 [Department of Neurology](#)에서 신경과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 이후 1968년부터 1969년까지 메이요 클리닉 [Mayo clinic](#)에서 신경과와 EEG fellow 과정을 마친 후 1969년 미국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해 귀국하였다. 당시에는 신경과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귀국 후에는 내과 조교수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1972년에 내과 부교수로 승진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1일 신경과학교실의 창설과 함께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이수익 교수의 부임으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진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수익 교수(1932~1995)

먼저 신경과학의 교육을 살펴보면 1971~1972학년도에 경우 이수익 교수는 본과 2학년에서 신경진단학¹학점, 17시간, 본과 3학년에서 임상신경학 강의¹학점, 32시간, 그리고 본과 4학년에서 2주간의 임상실습²학점을 맡았다. 그리고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각각 선택실습이 있었는데 신경학을 선택할 수 있었다.¹⁹⁾

1973~1974학년도에 경우 이수익 교수는 기존의 임상신경학 강의 이외에 본과 1학년에 신경과학 I⁴학점, 64시간과 본과 2학년에 신경과학 II⁶학점, 102시간을 맡아 가르쳤다. 이전에는 본과 1학년에 신경해부학이 있었지만, 신경학을 전공한 이수익 교수의 부임으로 신경해부학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신경과학으로 강의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 신경과학이란 과목은 이때 처음으로 생겨났다. 강의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신경학 교수들이 모두 참여하여 진행되었으니 최초의 블록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신경과학 I의 경우는 실습 없이 강의로만 이루어졌으나, 신경과학 II의 경우는 강의⁵학점, 85시간과 실습¹학점, 17시간에 별도의 학점이 부과되어 운영되었다. 본과 3학년과 4학년의 임상신경학 강의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졌다.²⁰⁾

이수익 교수가 떠난 후에도 신경과학 I, II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졌으나, 본과 3학년에 있던

19)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Severance Hospital Bulletin 1971-1972, p. 45.

20)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nd Severance Hospital Bulletin 1973-1974, p. 51.



1973년 졸업앨범 속의 이수익 교수

신경학 강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도 내과의 일부로 신경학 강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은 2주간으로 이전과 동일했다.²¹⁾

한편 환자들에 대한 진료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시 환자 통계를 보면 1971년 3월 1일에서 1972년 2월 29일 사이에 신경과로 입원한 환자는 모두 3명으로 극히 적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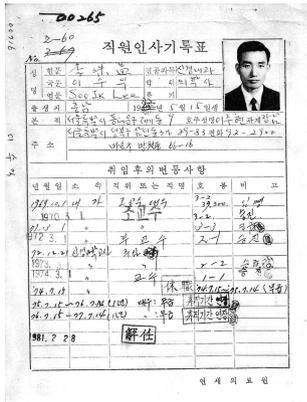
만 외래환자는 5,263명으로 상당히 많았다.²²⁾ 물론 전체 환자비율로 보면 1.6 퍼센트로 적지만 신경과 환자를 이수익 교수 혼자 담당할 것을 고려한다면 아주 많은 환자를 본 것이었다. 이듬해인 1972년 3월 1일부터 1973년 2월 28일까지의 환자통계를 보면 입원환자는 173명으로 전해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외래환자는 4,099명으로 전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²³⁾

이처럼 신경과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 놓쳤던 신경계 질환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신경계 질환의 치료는 물론 진단 까지도 신경외과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가운데 이수익 교수의 정확한 진단으로 신경외과의 수술에 결정적 도움을 준 경우도 있었다. 한번은 신경외과 - 신경과 집담회 시간에 이현재 교수가 뇌종양 환자의 수술 소견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 당시에는 CT나 MRI가 없어 뇌종양이 의심되는 환자는 뇌동맥조영술을 시행해 종양부위를 정해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현재 교수는 뇌동맥조영술로 종양의 위치를 확인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지만 막상 그 부위를 절개하고 들어가 보니 종양이 없었다. 그래서 절개부위로부터 여러 방향으로 종양을 찾아보았지만 결국 종양을 발견하지 못해 두개골을 닫고 나왔다는 사례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수익 교수는 뇌파검사를 제안했다. 뇌파검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종양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수술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종양부위와 뇌파소견이 정확하게 일치하자 이현재 교수도 탄복을 하고 그 이후 이수익 교수의 진단을 크게 신뢰하게 되었

21) 『연세대학교 요람 1976-78』, pp. 352-358.

22) 『연세대학교 연보 1971-72』, pp. 121-123.

23) 『연세대학교 연보 1972-73』, pp. 187-191.



이수익 교수의 직원 인사 기록표. 이 기록을 보면 1972년 12월 21일에 신경과학교실이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고 한다.²⁴⁾ 이처럼 국내의 신경과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활약을 하던 이수익 교수는 버지니아 의과대학으로부터 거듭된 교수 초빙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1974년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게 된다. 이수익 교수가 떠남에 따라 그때까지 이수익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고 있던 신경과학교실은 내과학교실에 흡수된다. 신경과학교실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독립된 교실로 존재했던 것이다. 이수익 교수가 주임교수이자 유일한 전임교수이기는 했지만 신경과학교실이 독립된 교실로 존재했던 것은 당시의 여러 자료로 확인이 된다. 우선 1972년 12월 21일자 교내 인사발령자 명단에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수익’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71~1972년도와 1973~1974년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불리틴의 각 교실 소개 부분에 신경과학교실이 독립된 교실로 기술되어 있고 주임교수 **chairman**에 이수익 교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때는 신경과가 법적으로 수련과목과 진료과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던 시기였으므로 이수익 교수가 떠난 이후 교실이 지속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수익 교수가 떠난 후 그 자리를 맡아 지킨 분은 김기환 교수이다. 김기환 교수는 서석조 교수가 세브란스에서 재직하던 시기에 세브란스 내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다. 전공의 수련 후 의사들에 대한 동원으로 순천과 천안의 도립병원에서 복무를 하다가 가톨릭 의대 내과에 부임하여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쳤다. 가톨릭 의대에 재직 중 알라바마 의과대학에서 1년간 신경과학을 연수하고 돌아왔다. 연수에서 복귀한 이듬해인 1974년에 이수익 교수가 미국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그 해 7월 김기환 교수는 모교 내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다. 김기환 교수의 부임으로 오늘의 신경과학교실의 기틀이 다져지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신경과 전문의 제도화도 요원하고 교실원도 전무하였던 당시 김기환 교수는 교육과 진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수익 교수 재직 시절에 개설되었던 신경과학교실을 다시 내과의 한 분과 신경내과로 편입시키기로 하였다. 당시 내과는 소화기내과를 제1내과, 혈액내과를 제2내과, 순환기신장내과를 제3내과, 알레르기내분비내과를 제5내과, 신경내과를 제6내과, 흉곽내과를 제7내과로 하는 내과부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당시

24) 최일생 명예교수의 회고.



사정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김기환 교수는 이렇게 법적으로 전문의 양성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하여 매년 한 명씩 신경과학 연수자를 배출시키고 이들의 도미유학을 주선하는 한편 신경과학 전문의 과정 신설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76년에 최일생, 1979년에 선우일남이 신경내과 교원으로 합류하였고 최일생은 1979년에 선우일남은 1982년에 미국 알라바마대학 신경학 연수 후 귀임하였다. 이 둘 이외에도 윤건일, 정우제, 조효근, 김현숙, 김지영, 김원천, 김승민, 허균 등이 신경내과 소속으로 신경과학을 수련받았다.



김기환 교수(1930~)

신경내과 초창기 시절의 진료, 교육 및 연구의 애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신경내과는 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인접 학과에 비하여 시작이 늦었다. 당시에 중요한 신경생리검사기기인 뇌파기기는 정신과에서 주로 사용하였고 근전도기기는 재활의학과에만 소속되어 있어 신경내과에서는 위 검사들을 시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처럼 신경과가 독립된 학과가 아닌 내과의 일부로 존재하는 한 교육이나 진료, 그리고 연구에서 신경과의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김기환 교수는 신경과를 독립된 수련과목과 진료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기환 교수는 학교업무가 끝나는 대로 보건사회부 실무자, 대한의사협회, 내과와 정신과학회 단체장과 관계자를 만나 동분서주하면서 신경과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였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대한신경과학회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신경과학회가 태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2년 7월 23일 대통령령에 의해 신경과가 신경정신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본교에도 독립된 신경과 전문의 과정이 설치되고, 1983년 3월 1일 신경과학교실이 내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교실로서 정식 출범하게 되었다. 신경과학교실 창설에 결정적 공헌을 한 김기환 교수는 초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로 취임하는 한편, 대한신경과학회의 회장과 이사를 역임하며 우리나라 신경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2. 초창기(1983년~1989년)

신경과학 발전의 초석을 다진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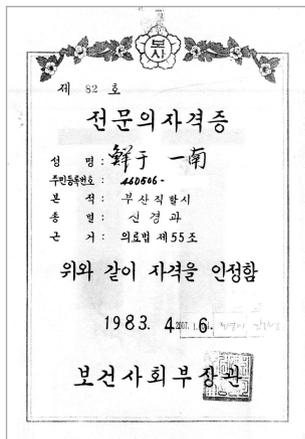
1982년 7월 23일 대통령령에 의해 신경정신과로부터 신경과가 분리되었고 1983년 1월 20일 개최된 연세의대 상임교수회의에서 의과대학 안에 신경과학교실, 재활의학과교실, 성형외과학교실을 신설하는 안이 통과되었으며 당해 2월에 개최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1983년 3월에 연세의대에 신경과학교실이 창립되었다.



1983년 2월 2일자 의료원 소식지

이와 더불어 신경과 단독의 전문의 과정이 신설되었다. 교실이 창립된 1983년부터 1989년까지는 김기환이 초대 주임교수직을 맡은 기간으로 모든 교원들이 새로 태어난 교실의 내실을 다지기 위하여 주력하였고 앞으로의 신경과학교실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노력을 기울인 기간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첫 신경과 전문의를 배출하였는데, 연세의대에서도 1983년 3월 1일 신경과학교실을 내과로부터 분리시켜 하나의 교실로 정식 출범시켰으며, 초대 주임교수로 김기환이 취임하였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창립 당시의 교원은 김기환 주임교수를 비롯하여 최일생과 선우일남 교수로 구성되었다.



선우일남 교수의 전문의 자격증 사본 (1983년)

1983년 3월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첫 정식 전공의로 연세의대를 졸업한 최경규와 황연미가 입국하였다. 1983년 12월에는 당시 본부건물 2층 중환자실 옆에 결핵병동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새로 고쳐 뇌파검사, 근전도검사 및 유발전위검사기기가 고루 갖추어진 신경과학교실 소속의 신경생리검사실이 마련되었다. 당시 뇌파 검사기기는 1976년부터 당시 본부건물 5층 병동 끝에 위치하였던 뇌파검사실에 있던 16채널 뇌파기계Grass와 함께 17채널 Nihon-Kohden 장비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근전도검사기기는 새로 DISA 1500 digital EMG system을 도입하였다. 신경과 소속의 신경생리검사실이 개설

신입교원 - 인터뷰



막스·프랑크연구소에서 연구
金鎭洙 (신경과학) 부교수

김진수 부교수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를 역임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김진수 부교수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를 역임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김진수 부교수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를 역임한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의료원소식지의 김진수 부임 인터뷰(1984년)

되면서 신경과학교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시행할 수 있었고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교육의 효율성도 크게 높게 되었다. 신경과학교실 창립 전후의 초기에는 교원 수도 적고 요즘과 같이 세부전공분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3명의 모든 교원들이 전반적인 신경계 질환을 모두 다루었다. 하지만 점차 당시 여건에 따라 최일생은 중추신경계 질환을 선우일남은 말초신경계 질환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1984년 3월에는 의국원으로 연세의대 출신인 박기덕과 가톨릭의대 출신인 이광수가 입국하였다.

1984년 5월에는 독일에서 신경약리학을 전공한

김진수가 교수진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진수는 1967년부터 1978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막스-프랑크 Max-Planck 연구소에서 연구하였고, 1978년부터는 울름 Ulm 대학에서 신경과 및 정신과 전문의 과정을 시작해 마쳤다. 1984년에 동대학에서 교수로 임명되었으나, 귀국하여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와 연구를 시작하였다. 1984년 7월에 당시 영동병원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신경과가 신설되었고 최일생이 초대 신경과 과장으로 임명되어 그해 8월부터 진료업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2년 반 동안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이 파견나가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였다.

1985년 3월에는 이명식, 이상암, 허지희 세 명의 전공의들이 입국을 하였다. 1986년 2월에는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수련을 받고 첫 전문의가 배출되었다. 첫 전문의들은 최경규와 황연미였다. 최경규는 1986년 3월부터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6개월간 연구강사 fellow로서 근무를 하였다가 9월부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연미는 1986년 3월부터 1988년 2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연구강사로서 신경근육질환을 세부전공한 이후 당시 중앙병원인 아산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즉 황연미는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최초의 연구강사가 되었다. 1986년 3월에는 김장성, 안재훈, 이병철이 신입 전공의로 입국을 하였다. 또 이해부터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여 이성수가 영동세브란스 신경과의 첫 전공의로 입국하였다. 이 시기에 다른 대학과 의료기관의 신경과 전공의들이 파견 근무를 하면서 교육을 받았지만 자세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1986년 5월에는 김승민이 군의관을 마치고 전임강사로 발령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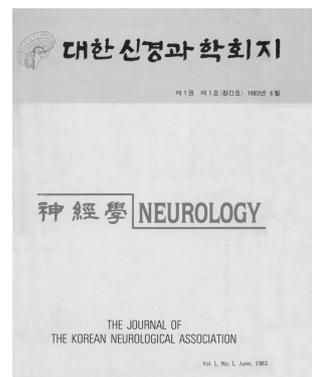
■ **신생교실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1988년에는 이병인과 허균이 교원으로 합류하였다. 이병인은 1974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7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1983년에 미네소타대학에서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 후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H.O. Luders의 지도 하에 뇌전증 분야 펠로우십을 마치고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인디애나대학 신경과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1988년에 귀국하였다. 허균은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 수련을 마치고 도미하여 1983년부터 1986년까지 미국 미네소타 대학병원에서 신경과를 수련받고 신경과 전문의가 되었으며, 조지아 의대에서 뇌전증 연수를 받았다. 허균은 1993년까지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 소속되었다가 1994년에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로 자리를 옮겼다. 1988년 3월에는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이명식이 전임강사로 교원에 합류하여 당시 최일생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최일생을 도와 근무를 시작하였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수련받은 전공의로서는 처음으로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교원이 탄생한 것이다.

이렇듯 1988년도 이전에는 연세의대 신경내과 출신인 김기환, 최일생, 선우일남에 의하여 교실이 운영되었고 김기환의 주도로 신생교실을 빠르게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기에 김진수가 합류하여 최일생과 함께 훗날 신경퇴행성질환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고 1986년도에는 연세의대 신경내과 출신인 김승민이 합세하여 선우일남과 함께 신경근육질환을 전공하며 발전을 모색하였다. 1988년도에는 미국에서 신경과 전문의를 획득한 이병인과 허균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 부임하면서 연세의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뇌전증 분야에 미국의 선진학문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명식이 교실출신으로는 최초로 교원이 되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첫 세대의 성장에 선봉이 되었다.

1988년도부터는 신경과학교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한 시기라고 하겠다.

이 시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든 교원들이 신경과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주로 임상연구를 시행하였다. 교실 창립 이전에는 주로 대한의학협회지, 대한내과학회잡지 등의 국내잡지에 연구 논문이나 증례보고를 발표하였고 간간히〈Neurology〉 등의 국제학술지에도 발표를 하였다. 교실 창립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에서 대한신경과학회지에 처음으로 발표한 연구결과는 대한신경과학회지



대한신경과학회지 창간호(1983년)

창간호 1권 1호의 첫 번째 논문인 최일생, 허균, 김기환의 ‘전산화탄소중독영상 국소성 저음영을 동반한 경련성 질환’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이었다.

같은 책자에 허균, 최일생, 김기환이 ‘가족력을 동반한 고칼륨혈증 주기성마비 1예’ 증례보고도 발표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논문들을 대한신경과학회지에 발표하였다. 이 당시는 대한민국 신경과학의 초창기여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질환에 대한 증례보고를 주로 발표하였고 핵간마비, 중추신경계 감염, 염증성 근육질환, 의식장애, 경련성 질환, 율슨병, 뇌경색, 파킨슨병 등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에 대한 임상 관찰연구와 뇌파나 신경전도검사를 이용한 임상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 특히 주목할만한 연구는 최일생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임상연구이다. 최일생은 1970~9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많은 임상 증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많은 수의 논문을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고 이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보였다. 특히 일산화탄소 중독 이후의 만성 후유증에 대해서 국제적인 신경과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²⁵⁾ 이와 같은 최일생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관한 연구 성과를 기리기 위하여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는 2000년도에 ‘一酸化炭素 中毒에 關한 論文集’을 발행하였다.

■ 진료실적의 향상 및 활발한 학회활동

연세의대에 신경과학교실이 개설된 이후 세브란스병원의 신경과가 정착 안정되면서 진료실적이 조금씩 향상되어갔다. 1982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연간 초진 외래환자수는 4,269명, 총 외래환자수는 18,766명이었고 연간 970명의 환자가 입원하였고 연인원으로는 12,422명이었는데 1989년에는 연간 초진 외래환자수는 4,330명, 총 외래환자수는 26,168명이었고 연간 822명의 환자가 입원하였고 연인원 16,812명이었다. 검사실적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1983년도에 뇌파 3,580건, 근전도 63건이었던 검사 건수가 1989년도에는 뇌파 5,364건, 근전도 3,744건이었다. 유발전위검사도 1984년 12건으로 시작하여 1989년도에는 972건이 시행되었다. 이외에 창립 당시에는 시행되지 못하였던 뇌전증-모니터링이 1988년부터 시작되었고 수면다원검사는 1989년 처음 2건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새로 시작하는 교실뿐만 아니라 대한신경과학회를 정

25) Choi IS. Delayed neurologic sequelae in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Arch Neurol 1983; 40: 433-435.

신 경 과 (3347)	김 기 환 3268	○																		뇌졸중, 경련성질환, 뇌파 운동장애, 노인성신경학 척수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신경 전기진단		
	김 진 수 3266		○	○																		
	선 우 일 남 3947			○	○				○	○												
	이 병 인 3947	○																		뇌혈관성질환, 경련성질환		
	김 승 민 3349		○				○	○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뇌염증성 질환	
	허 균 3349					○															간질, 경련성질환, 인지장애	
	이병철(※) 3348	○																			일반진료	
	일 반 진 료 3348		○	○	○	○			○													●=경련성질환 특수클리닉

신경과 외래진료시간표(1989년)

착, 안정, 발전 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김기환이 1986년 대한신경과학회 제4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1987년에는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이후 1989년까지 이사장으로서 학회에 봉사하였다. 김기환은 이외에 동 학회에서 부회장1982년~1983년, 감사1984년~1985년로도 활동하였다. 김진수는 총무이사1987년~1989년로 활동하였다. 최일생이 대한신경과학회 학술이사1985년~1986년, 편집이사1987년~1989년로 활동하였으며 선우일남은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1985년~1986년, 재무이사1987년~1989년로 활동하였다. 이들의 봉사와 희생은 대한신경과학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

교실 창립 초창기에는 매년 1월 1일 모든 교실원들과 신경과 직원들이 모여 신년모임을 가졌다. 신경학검사실에 다과를 준비하고 다같이 모여 김기환 교수 등 교실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지난 해를 돌이켜보고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이 모임 이후 교실원들이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 모임은 계속 이어져 지금의 신년회가 되었다. 또 매년 신경과 구성원들과 그 가족들이 다같이 교외로 나가 야유회를 갖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놀이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초창기의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분위기는 매우 가족적이었다.



1987년 신년 모임(왼쪽부터 김승민, 김진수, 정우제, 최일생, 김기환)



1988년 신년모임(중심부터 김승민, 김기환, 최일생)

3. 성장기(1990~1999)

■ 교실의 안정화에 기반한 성장의 시기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이 1983년 3월 창립되고 수년간 모든 교실원들이 교실의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교실은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이러한 교실의 안정을 바탕으로 1990년부터는 교실이 꾸준히 성장하게 되어 이후 10년간을 교실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는 김진수^{1989년 3월~1995년 2월}와 최일생^{1995년 3월~1999년 2월}이 주임교수직을 맡았던 기간이었다.

최일생이 1984년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김진수가 신경퇴행성질환을 담당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현재와 같은 세부전공의 분명하지 않아 김기환, 선우일남 등의 교실원들도 다양한 신경퇴행성질환을 진료하였다. 더구나 김진수는 1989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교실의 주임교수직을 맡았고 대한신경과학회에서는 1990년에 부이사장을, 1992년에는 회장을 역임하여 교실과 학회를 돌보느라 신경퇴행성질환의 진료와 연구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또한 1992년 5월부터는 1996년도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AOCN의 조직위원장으로의 활동도 하였다.

최일생은 1984년 7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장을, 1994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의 영동세브란스병원 제3대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최일생은 1988년 2월까지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홀로 진료, 교육, 연구를 담당하였다. 1988년 3월에 이명식이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최일생과 이명식은 후에 신경퇴행성질환을

주로 담당하여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 이 당시의 진료는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인력과 장비 등 제반 환경의 한계로 한 사람의 전문가가 신경퇴행성질환에 대해서 집중하여 진료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최일생과 이명식은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의 정착과 안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특히 최일생은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과 세브란스병



제9차 AOCN총회(1996년)

원 및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의 초창기 10여 년간 교실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였고 크게 공헌하였다. 최일생의 이러한 봉사가 있었기에 신촌과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신경과는 발전할 수 있었다. 신경퇴행성질환 분야 역시 최일생의 공헌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명식은 1992년~1994년간 당시 이상운동질환 및 신경퇴행성질환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가 있던 영국 퀸스퀘어 국립병원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고, 이후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이상운동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 근긴장이상증, 보행 장애, 무도병 등 이상운동질환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명식은 여러 영향력있는 연구논문들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상운동질환 교과서들에도 저자로 참여하였다.²⁶⁾

손영호는 1990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3월부터 1991년 2월까지 뇌전증 분야의 연구강사로 교육을 받은 이후 1993년 2월까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1993년 3월에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교원으로 발령을 받고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손영호는 이상운동질환에 관심을 두었지만 당시의 여건으로 교원 초기에 전반적인 신경계 질환을 다루었다가 점차 신경퇴행성질환들을 주로 다루게 되었다. 1995년 3월 최일생이 교실의 주임교수에 임명되면서 세브란스병원으로 복귀하였고 이때부터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는 최일생, 김진수, 손영호의 세 교원이 신경퇴행성질환 분야를 진료하고 연구하면서 세부전공 분야로 기틀을 잡고 발전시켜 나갔다.

선우일남은 1989년도에 6개월간 신경근육병리를 배우기 위하여 미국 알라바마대학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선우일남은 미국에서 신경근육병리를 익히고 돌아왔지만 병리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장비 및 비용 등에 대하여 병원과 대학에서 지원받지 못하였고 개인적으로 병리검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비하여 당시 신경학검사실 내 근전도검사 판독실에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열악한 조건 환경이었지만 근육 조직화학염색(histochemical stain)을 시행하는 등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신경근육병리조직검사를 제공하였다. 선우일남은 전기진단검사와 신경과 근육의 병리조직검사를 기반으로 이전까지는 진단이 어려웠던 신경근육질환들을 정확하게 진단하였다. 근육조직검사로 진단한 첫 증례는 Nonaka myopathy로 이 질환은 이때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김승민은 1990년 3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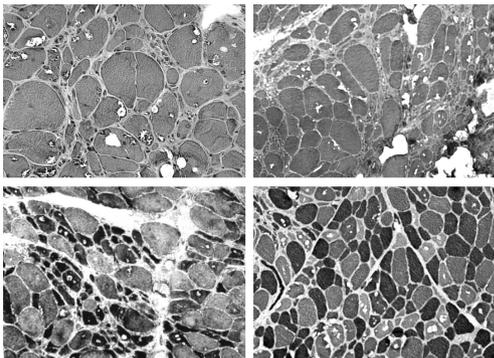
26) 1. Lee MS, Marsden CD. Drop attacks. *Clinical Disorders of Balance, Posture and Gait*. Eds. Bronstein A M, Brandt T, Wollacott M. 1996; pp 177-187. Arnold, London;

2. Rinne JO, Lee MS, Neuroacanthocytosis. *Parkinson's Disease and Movement Disorders*. eds Jankovic J and Tolosa E, 4th ed. 2002; pp 576-583.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 Philadelphia

주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이 기간 중 1992년 3월부터 1994년 2월까지 미국 Mayo clinic, Peripheral Nerve Center에서 Peter J Dyck에게 말초신경질환 및 말초신경병리에 대하여 연수를 하고 돌아왔다. 1997년에는 김승민이 원주 연세의대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복귀하였다. 이 때부터 김승민은 선우일남을 도와 신경근육질환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진하였다. 1997년에는 근전도검사실이 당시 별관 2층으로 이전하였다. 새롭게 확장 이전된 근전도실은 4개의 방으로 구분되었고 세 방에는 방마다 한대의 근전도 기계를 두어 검사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방 하나를 신경근육병리조직검사실로 꾸몄다. 근전도실에서는 이 시기에 Cadwell 5200A(1991년), Cadwell Excel (1991년), Toennies Neuroscreen(1997년)를 도입하였다. 근전도실이 이전하기 전에는 근전도검사 수가 한 해에 3,000건 정도였으나 이전 이후에는 4,000건 이상으로 시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신경근육조직병리검사는 1997년 이전에는 선우일남에 의하여 모두 수행되었으나 김승민이 세브란스병원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근육조직병리검사는 이전과 같이 선우일남이 신경조직병리검사는 김승민이 담당하였다. 이후 신경근육조직병리검사는 더욱 전문화되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996년에는 최영철이 교원으로 임용되었고 당시 영동세

브란스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최영철은 1998년 3월부터 2000년 2월까지 미국 NIH, NINDS의 Medical Neurology Branch에서 Marinos C Dalakas에게 Neuro-immunology와 Pathology 및 근육질환에 대하여 연수하였다.

1989년 이후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신경근육질환 분야는 진료, 교육 및 연구에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는데 특히 진료와 교육 부분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선우일남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근육조직병리검사. Nonaka myopathy

1988년도에 미국에서 뇌전증을 전공한 이병인과 허균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모든 교원에 의하여 시행되던 뇌전증에 대한 진료가 차츰 중추신경계 질환에서 따로 독립하여, 이 두 교실원들에 의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뇌전증 질환 중심의 진료가 시작되었다. 이병인과 허균은 1989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연세의대에 뇌전증집중검사실 24시간 비디오 뇌파 검사실을 당시 별관 8층 87병동에 개소하였고 약물과 수술적 치료를 모두 제공하는 포괄적인 뇌전증 진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당시 국내 뇌전증 환자의 치료는 장미희



경향신문에 게재된 허균 교수 기사 (1993년)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뇌전증의 임상자료들이 축적되면서 많은 수의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뇌전증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학술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은 뛰어난 학술성과가 인정되어 이병인은 1998년 제11회 보원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초창기 세브란스병원의 뇌졸중 진료는 모든 신경과 교수가 분담하였지만 1988년 이병인이 신경과 교실에 임용되고 뇌전증과 함께 뇌졸중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진료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병인은 1990년 국내에서 최초로 급성기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동맥내혈전용해치료를 신경과 학회지에

보고하였다. 1993년 경두개초음파([transcranial doppler; TCD](#))가 도입되어 당시 본부건물 2층에 위치한 신경학검사실의 한 편에서 검사를 시작하였고 손영호가 담당을 하였다. 1994년 3월에 허지희가 인천세브란스병원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뇌졸중에 관심을 갖고 진료와 연구를 하였다. 허지희는 1997년부터 1999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스크립스 연구소([The Scripps Research Institute](#))의 Gregory del Zoppo 박사 밑에서 뇌졸중에 관한 실험연구를 마치고 세브란스에 복귀하여 뇌졸중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함께 기초 실험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1회 연세의료원 간질 심포지움(1994년)



제11회 보원학술상 수상 이병인(1998년)

▣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영동세브란스병원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신경과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최일생의 노력으로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1988년 이명식이 합세한 이후 발전을 모색하였다. 점차 과가 발전하면서 교실원의 수도 늘어났다. 1992년에는 최영철이 연구강사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진료와 연구에 보탬이 되었다. 1995년에 최일생이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가 되면서 신촌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이명식이 과장이 되어 과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였다. 이해에 최영철이 교원으로 발령을 받았고 김원주가 연구강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1997년에는 김원주가 교원이 되었다. 1994년 8월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신관이 증축된 후 신경과 외래가 본관 1층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신경전기생리검사실이 외래와 함께 자리잡았다. 신경전기생리검사실은 개설초기부터 뇌파검사만 시행하였다가 1994년 말에 근전도 및 유발전위 기기를 구비하여 1995년부터는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유발전위 검사를 시행하였다.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검사는 최영철이 주로 맡았으며, 이를 계기로 최영철은 신경근육질환을 전공하였다. 김원주가 근무를 시작한 이후 뇌전증 및 뇌파검사를 담당하였다.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신경과는 1984년도에 개설되어 초창기 열악한 환경을 모든 교실원들이 단합으로 극복하며 유지 및 발전시켰으며 1990년대에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점차 규모가 늘어나고 조직의 짜임새가 갖춰졌다.

1991년 3월에는 당시 인천세브란스병원에 신경과가 개설되었고 허지희가 연구강사 신분으로 1991년 3월부터 1993년 2월까지 근무하였다가 1993년 3월 교원으로 임용된 이후 일년간 더 근무하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4년 3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김우경이 근무를 하였는데 1995년 3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신경근육질환의 연구강사로 세브란스병원에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손영호 등 당시 젊은 교원들이 2개월씩 번갈아가며 인천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보았다. 김우경은 1997년 3월에 교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인천세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의국원들(1989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의국원들(1993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의국원들(1998년)

브란스병원은 경영란을 이유로 1999년 7월 문을 닫았고 인천세브란스병원의 신경과도 이때가 마지막이 되었다. 인천세브란스병원 신경과는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인천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신경과 진료를 제공하였으며 1991년 개원 첫 해부터 556명의 외래초진 환자를 포함하여 총 2,049명의 외래환자들을 진료하였고 실인원 164명

연인원 2,771명의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등 양적으로도 인천지역 주민들의 보건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김우경은 인천세브란스병원 폐업 이후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 잠시 적을 두었다가 2000년 3월에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신경근육질환을 담당하던 최영철이 건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2년간 근무하게 되면서 최영철을 대신하여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근무를 하였다. 김우경은 2001년 9월까지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였다가 10월 분당 제생병원을 거쳐 후에 강동성심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 국제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1996년도에 두 개의 국제학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9차 AOCN(Asian Oceanian Congress of Neurology)과 제1차 Inaugural Congress of Asian and Oceanian Epilepsy Organization(AOEO) 국제학술대회를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원들이 주축이 되어 준비하였고 이 두 학술대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한신경과학회 이사회는 1989년도부터 1996년도에 개최되는 제9차 AOCN(Asian Oceanian Congress of Neurology)를 서울에 유치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 1992년 5월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김진수가 AOCN 조직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병인이 조직위원회 총무로 활동하면서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원들을 주축으로 AOCN 개최를 준비하였다. 1996년 9월 제9차 AOCN이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해외에서 약 450명, 국내에서 약 350명의 신경과 의사들이 참석하였고 119편의 구연, 295편의 포스터들이 접수되었으며, 10개의 morning lecture, 4개의 special lecture, 4개의 satellite symposium으로 구성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폐막하였다. 제9차 AOCN의 성공적인 개최는 대한신경과학회의 위상을 세계신경학자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



1996년 9th AOCN 기념만찬(1996년)



Inaugural congress of AOEO(1996년)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위상도 세계적으로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김진수 조직위원장은 AOCN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남은 기금 1억 원을 대한신경과학회에 기증하여 학회의 재정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 제9차 AOCN 이후 김진수는 World Federation of Neurology의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제9차 AOCN에 연이어서 개최된 제1차 Inaugural Congress of Asian and Oceanian Epilepsy Organization(AOEO)에서는 이병인이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AOEO 역시 성공적으로 마감하여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저력을 널리 알렸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원들은 1996년 한 해에 굵직한 두 개의 국제학술대회를 교실원들이 주축이 되어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사실에 교실에 대한 자긍심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1995년 8월에는 김기환이 정년퇴임하였다. 김기환은 195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

고 1961년 내과전문의가 되었고 1963년부터 1974년 6월까지 가톨릭의대 내과에서 교원으로 재직하고 1974년 7월 모교로 돌아왔다. 이후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경내과를 맡아 발

전시쳤고 1983년에 연세의대에 신경과학 교실을 개설하였으며 1995년까지 22년간 연세의대의 신경과학교실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김기환은 대한 신경과학회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기환의 제자들은 김기환의 정년을 맞이하여 김기환의 논문들을 정리하여 600여 쪽의 논문집을 제작하여 헌정하였다.



김기환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및 의원소식지(1995년)



김기환 교수 정년퇴임 기념(1995년)

■ 진료실적의 꾸준한 증가 및 연관 학회 설립에 기여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이 성장하면서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의 진료실적도 나날이 성장하였다. 1989년도 외래 초진환자 수는 4,330명이었고 외래 총 진료환자 수는 26,168명이었는데 외래 진료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 1999년도에는 외래 초진환자 수는 8476명, 외래 총 진료환자 수는 67,881명이었다. 입원환자 수는 1989년도에는 실인원 822명, 연인원 16,812명이었고

1999년도에는 961명, 연인원, 17,010명으로 외래 진료환자 수가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반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신경과학교실이 성장하여 교원이 증가하면서 외래 진료시간이 늘어나 외래 진료환자 수가 늘어난 것에 비해 입원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경과에 배정한 병상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경과 검사실적도 해가 갈수록 향상되었다. 1989년과 1999년의 실적을 살펴보면, 뇌파는 5,364건에서 6,805건으로, 뇌파-비디오 모니터링은 74건에서 428건으로, 근전도검사는 3,744건에서 4,258건으로 증가되었다. 경두개초음파검사는 1994년 첫 해에 792건을 시행하였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역시 개설 이후 진료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1984년도는 외래 초진환자 수가 471명, 외래 총 진료환자 수가 2,262명이었는데 1996년도에는 각각 2,360명과 13,88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4년도의 입원환자 수는 실인원 137명, 연인원 1,571명이었는데 1996년도에는 각각 587명과 6,684명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김진수는 부이사장^{1990년}과 회장^{1992년}을 역임하였다. 최일생은 이사장^{1988년~1999년}과 회장^{1995년}을 지냈다. 선우일남은 부이사장^{1994년~1997년}을 맡았다. 이외에도 이 기간 동안 이병인, 김승민, 김원주 등 여러 교실원들이 학회 임원으로 봉사하였다.

1996년 이전까지는 대한신경과학회가 신경과 분야의 유일한 학회였으나 1996년부터는 대한신경과학회 외에 신경과학과 연관된 학회들이 새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때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대한뇌전증학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가 신설되었다.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는 선우일남 등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신경근육질환 진료부분 출신들이 재활의학과 의사들과 함께 창립회원으로 이 학회를 설립하였다. 대한뇌전증학회의 창립 초기에 김기환이 고문으로 이병인은 부회장으로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다.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의 경우 김승민과 이병인이 창립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성장기는 교원의 수가 증가하고 전공분야가 세분화되면서 세부진료분야가 체계화된 시기이며,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신경과가 걸음마를 떼어 과의 기틀을 잡아 발전을 준비하던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인천세브란스병원의 신경과는 8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역할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또한 성장기^{1989년~1999년}에 교실원들이 주축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교실의 저력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김기환이 1995년 정년퇴임을 하여 연세의대 신경과의 큰 별이 교실을 떠나게 되었다.

4. 발전기(2000년~2013년)

□ 교실 규모의 확장과 제1세대 교수들의 퇴임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1990년대에 이뤄낸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반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부터는 신경과 독자적인 실험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교실의 인력은 더욱 늘어났으며, 2005년도에 새 병원이 개원하면서 시설도 더욱 현대화되고 확충되었다. 진료 및 연구 실적도 이전에 비하여 확연히 향상되었다. 하지만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뿐 아니라 타 의과대학의 신경과학교실들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 반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이 이전 시기에 국내 신경과학을 선도하였던 독보적인 지위는 조금씩 약해졌다. 또한 1995년도 김기환의 은퇴에 이어, 2005년도에 김진수, 2007년도에 최일생, 2011년도에는 선우일남이 정년퇴임을 하였다. 교실 창립기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고 교실의 구심점이었던 제1세대 교수들이 점차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을 떠나게 되었다. 교실 규모의 확장과 제1세대 교수들의 정년퇴임으로 2000년부터 신입 교원들이 임용되었다. 허경2000년, 이경열2003년, 김경환2006년, 이필휴2008년, 남효석2008년, 류철형2008년, 김영대2009년, 홍지만2010년, 조양제2011년, 신하영2012년, 송동범2013년이 교원으로 합류하였다. 2008년부터는 용인세브란스병원에도 신경과 진료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신촌과 강남의 강사들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요일제로 진료를 시행하였다가 2010년 3월부터는 신경과과장: 홍지만이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이 시기에 이병인1999년 3월~2007년 2월과 김승민2007년 3월~2011년 2월이 주임교수를 맡았으며,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주임교수는 최영철이다.



최일생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의료계는 뜻밖의 커다란 사태를 맞았다. 바로 의약분업사태이다. 이 사건으로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도 수개월간이나 비상 체제로 운영되었다. 1999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강행하려고 하자 전국의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잘못된 의약분업의 저지를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2000년 4월에는 전국 병의원들이 휴진을 하는 1차 파업이 있었고 6월에 의료계가 2차 파업: 폐업투쟁을 시행하였다. 세브란스병원에서도 2000년 6월 20일 전공의들이 사표

를 제출하였고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중단하였으며 2000년 6월 22일에는 연세의대 전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 하였다. 전공의들이 의약분업 반대 운동을 위하여 병원을 떠난 이후 병원진료는 교원들에 의하여 비상체제로 운영되었다. 신경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로여서 교원들에 의하여 당시 입원 및 외래 환자들의 진료가 시행되었으며 이미 예약되어 있던 환자들의 검사들도 교원들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당시 전공의들에 의하여 대부분 시행되어 오던 기관삽관, 요추천자, 도뇨관 삽입과 같은 시술들을 교원들이 시행하는 등 교원들의 고충도 상당하였다. 2000년 11월 20일이 되어서야 세브란스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되었다.

■ 선도적 신경과학교실을 위한 발전계획세미나 개최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주변 의료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신경과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일환으로 교실의 현재를 재점검하고 교실 구성원으로부터 개선안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자 2000년도에 첫 발전계획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후 매년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00년 1회 신경과학 발전계획세미나는 7월 22일, 23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에 있는 동아제약 연수원에서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교원 9명, 연구강사 5명, 전공의 15명이 참석하였다. 2001년 2회 발전계획세미나는 6월 23일 24일 양일간 경기도 덕평 인화원에서 진행되었고 연세의대 신경과교실원 이외에 최경규 동문이 참석하여 교실과 동문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이후 교실 출신 동문들의 참석이 이루어졌다. 2006년 7차 발전계획세미나에서는 세브란스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병원장실 관계자를 초청하여 신경과의 경영성과를 살펴보고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발전계획세미나는 교실의 현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세미나에서 제안된 개선안들이 실행되었다. 하지만 발전계획세미나에서 결정된 내용들의 실제 적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경과학교실 발전계획세미나를 마치고(2004년)

■ 국내 최초 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

2002년 12월 24일에 국내 최초로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구병원 제2관 52병동에 8병상 규모였으며 병상마다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 맥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고 전담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였다. 이후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 뇌졸중 집중치료실의 효용성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어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세브란스병원의 뇌졸중 집중치료실을 벤치마킹하였다. 2005년 새 병원이 개원하면서 본관 11층 지금의 자리로 확장 이전하였다.



개소 전날의 뇌졸중 집중치료실(2002년)



새 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2013년 현재)

■ 동문 심포지엄 개최

2003년 2월에 제1회 동문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전까지 동문회에서는 매년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수련을 마친 동문회 신입회원들과 새로 전공의 1년 차로서 수련을 시작하는 예비회원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이 2003년 2월부터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동문들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더해 모임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동문심포지엄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심포지엄 이후 동문회 모임에서는 신입회원 환영,



제11회 동문심포지엄(2013년)

동문회 활동 보고 등을 진행하고 저녁 식사를 하며 회포를 푸는 자리를 갖는다. 2013년 2월 현재까지 제11회 동문심포지엄이 이어지고 있다.

■ 교실의 위상을 더한층 높인 국제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

2003년 10월에는 연대의대 신경과학교실원들을 주축으로 제4회 아세아 태평양 파킨슨병 국제 심포지엄APPDA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APPDA의 준비를 위하여 김진수가 조직위원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이명식과 손영호가 함께하였다. 2010년 3월에는 제9회 Asian and Oceanian Myology Center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최영철이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교실원들의 참여로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되었다. 이들은 1996년에 이어 다시 국제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교실의 위상을 더한층 높였다.

의학분야에서 점차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공의들의 연구 의욕 고취와 연구능력 함양을 위하여 2004년에 Research day전공의 연구의 날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한 명의 전공의가 한 명의 교원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004년 2월 13일에는 연구계획 발표가 있었고 7월 10일에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첫 회 research day의 최우수상은 신하영 전공의 **허경 교수 지도**, 우수상은 최혜연 전공의**손영호 교수 지도**가 수상하였다. 이후 매년 research day가 이어지고 있다. Research day가 시작된 이후 전공의들의 연구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지만 연구결과물이 논문발표로 잘 이어지지 않는았다. 이에 따라 2013년도 research day부터는 발표된 논문을 기준으로 시상을 하기로 정하였다.



제4회 아세아 태평양 파킨슨병 국제 심포지엄(2003년)



제9회 AOMC 학술대회 기념(2010년)



AOMC 학회에서 인사말 중인 최영철 조직위원장(2010년)

■ 세브란스 새 병원 준공

2005년 5월에는 새 병원이 개원하였다. 2000년 착공한 세브란스 새 병원은 지능형빌딩시스템^{IBS}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지상 21층 지하 3층 1004병상, 연면적 52,000여 평 규모로 지어졌다. 새 병원 개원 이전에는 신경과 소속 시설들이 병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신경과 외래는 당시 외래건물 2층에, 병동은 제중관 5층^{52병동}과 당시 별관 8층^{87병동}에, 뇌파검사실과 뇌혈류검사실은 당시 본부건물 2층^{제1중환자실 옆}에, 근전도검사실은 당시 별관 2층^{신경계중환자실 옆}에, 24시간 - 비디오 - 뇌파 감시실은 당시 87병동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당시 52병동에, 신경과 의국은 암센터건물 5층에, 분국^{주로 전공의 일년 차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당시 87병동에 분산되어 있었다. 새 병원이 개원하면서 신경과 외래 관련 시설은 모두 본관 외래 5층으로, 입원 관련 시설들은 본관 11층으로 집중되었으며 공간도 확충되었다. 또한 새 병원이 개원하면서 뇌혈류검사실, 운동검사실과 인지검사실은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신경과 외래, 그리고 뇌전증집중검사실과 수면다원검사실을 제외한 모든 검사실들은 본관 외래 5층 뇌신경센터 안에 모여 있어 외래진료와 주로 외래에서 시행되는 검사들의 진행에 효율성이 높아졌다. 또한 입원 관련 시설인 입원병상은 본관 11층의 111병동과 112병동을 신경외과와 함께 사용하

고 있으며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뇌전증집중검사실 및 수면다원검사실은 112병동에 자리잡았다. 전공의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의국은 본관 11층의 111병동과 112병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입원환자 진료시 이동거리가 이전에 비하여 매우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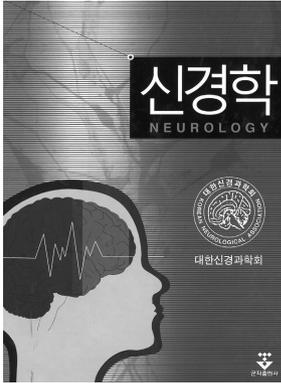
새 병원으로 이전한 이후 전공의 수련 과정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교원을 기준으로 전공의가 배정되어 일정기간씩 순환근무를 하였지만 2005년 후반기부터 진료섹션제가 도입되어 뇌전증 및 수면, 신경근육질환, 뇌졸중, 운동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의 4개의 분야를 2개월간 순환하면서 수련을 받게 되었다. 이 결정에는 교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전공의 수는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7년 7월 세브란스병원은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의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국제적인 표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공인을 받게 되었다. JCI평가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의 뇌졸중환자의 집중치료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는 신경과 소속 교원을 비롯하여 연구강사,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일반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여 얻은 성과였다. 하지만 JCI 평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기존의 진료 업무에 더하여 평가 준비로 인한 구성원들의 고충도 상당하였다.

2007년 7월 10일부터 세브란스병원 노조의 전면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 파업은 연세의료원 역사상 가장 길게 이어져 28일 동안 지속되었다. 장기파업으로 인하여 병상 가동률이 최저 30%까지 내려가는 등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반직 업무의 상당 부분을 전문의와 전공의들이 나서서 대신하였다. 접수, 수납, 안내, 채혈, 생체징후측정 등 병원일들의 상당 수를 직접 시행하였다. 신경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었다. 진료에 필요한 검사들은 의사들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신경과 전공의 중 일부는 영상의학과의 지원 요청으로 MRI촬영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학생들도 환자를 이송하거나 물품을 나르는 일 등을 도왔다. 2007년 8월 6일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를 하였고 파업은 종료되었다.

2000년대 중, 후반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신경과학의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교과서가 없어서 신경과학에 입문하는 학생이나 전공의들은 외국교과서를 이용하여 공부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과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과서 편찬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들 교과서 집필 및 편찬에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교원들이 참여하였고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7년 10월 '신경학'을 시작으로 여러 교과서들이 편찬되었다.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실원
신경학 (2007년 10월 발행)	선우일남, 이병인, 김승민, 이명식, 허지희, 손영호, 허경, 김경환, 최영철, 김원주
임상간질학 (2009년 3월 발행)	이병인, 허경, 박수철, 김원주
뇌졸중 (2009년 11월 발행)	허지희
신경학 2판 (2012년 11월 발행)	이병인, 김승민, 이명식, 허지희, 손영호, 최영철, 김원주
안신경학 (2013년 6월 발행)	신하영

■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이 시기에는 신경과학교실이 질적,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시기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0년도에는 국내 최초의 정맥-동맥 내 병합 혈전용해치료법 시행하였다.
- 2000년 2월과 3월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 의해 본태성 진전 환자의 심부뇌자극술 수술과 파킨슨병 환자의 심부뇌자극술 수술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
- 2001년 9월부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도 뇌혈류검사가 시작되었다.
-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 2년 마다 Yonsei Epilepsy Preceptorship을 개최하였다. 2010년부터는 국내 뇌전증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전증연구소 심포지엄과 국외 뇌전증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Yonsei Epilepsy Preceptorship을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 2004년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 수면클리닉과 수면다원검사실이 개설되었다.
- 2004년부터는 뇌졸중 환자에게 빠른 혈전용해치료를 위한 critical pathway인 BEST(Brain salvage through Emergent Stroke Therapy)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 2004년 7월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처음으로 경동맥협착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 2008년에는 글로벌 의료산업 시장을 목표로 선도적 의료클러스터를 형성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5년간 225억 원을 지원하는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뇌심혈관융합연구단의 연구팀으로 선정되었고 허지희가 부단장을 맡았다.
- 2010년 3월에 용인세브란스병원에 신경과가 정식으로 개설되었다. 홍지만이 초대과장으로 현재 과를 운영 중이다.
- 2010년 4월에 세브란스병원 뇌졸중센터는 국내 최초로 JCI의 뇌졸중 임상치료 프로그램 인증(CCPC : Clinical Care Program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
- 2010년 11월 파킨슨센터를 개소하고 제1회 연세 파킨슨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2011년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 비디오뇌파검사와 수면다원검사로 2개 병실이 54병동에 개설되었다.

또한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교실과 교실원들의 수상이 이어졌다. 구체적인 수상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은 진료부분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여 병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우수 임상부서상을 수상하였다.

- 2007년 4월 우수임상부서상(2006년도 CP개발부문)
- 2007년 9월 우수임상부서상(2007년도 외래환자수부문)
- 2007년 9월 우수임상부서상(2007년도 CP개발부문)
- 2008년 9월 우수임상부서상(2008년도 CP개발부문)
- 2007년 9월 우수임상부서상(2007년도 상반기 환자치료계획부문)
- 2010년 1월 우수임상부서상(2009년도 종합평가부문)
- 2010년 5월 우수상 - 우수부서 (질환별JCI인증: 뇌졸중 프로그램)
- 2011년 3월 우수임상부서상(2010년도 의료이익률부문)
- 2012년 3월 우수임상부서상(2011년도 하반기 의료이익률부문)
- 2013년 3월 순위생 우수활동 부서(2012년 순위생부문)

매년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원들에게 연구업적부문 우수업적 교수상을 시상하는데 이명식 2002년, 손영호 2005년, 허지희 2008년, 이필휴 2013년 가 이 상을 수상하였다.

이 밖에 연세의대 대학원에서는 대학원생의 연구의욕을 높이고자 재학기간 동안 발표한 논문의 impact factor 합계 및 발표논문의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연구실적이 뛰어난 대학원생들에게 우수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는데, 2010년 3월에는 남효석 박사과정 우수상, 2011년 3월에는 이지은 석사과정 최우수상, 2012년 9월에는 김영대 박사과정 최우수상, 2013년 3월에는 선우문경 석사과정 최우수상이 우수학술상을 받았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원들은 최근 들어 매년 이 상을 수상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012년 가을에 학회 창립 30주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기환이 대한신경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향설상’을 최일생과 선우일남이 대한신경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공로상 수상을 수상하였다.



김기환 향설상 수상(2012년 대한신경과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학술대회)

이병인은 2013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국제뇌전증학회 개최식에서 뇌전증 분야의 학술적 발전 및 사회적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환자들을 위한 헌신적 봉사활동을 수행한 것을 인정받아 ‘뇌전증 대사상 Ambassador for Epilepsy Award 2013’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여러 교실원들이 정부, 병원, 학회 등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는 진료실적에 있어서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도에 외래에서는 초진환자 수는 7,049명, 총 외래진료환자 수는 62,659명이었고 입원에서는 실 인원 수가 981명, 연인원 수는 13,946명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외래에서는 초진환자 수가 16,479명, 총 외래진료환자 수는 89,387명이었고 입원에서는 실 인원 수가 1,863명 연인원 수

는 15,948명으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는 2000년 이후에도 진료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0년도에 외래 초진환자 수는 2,637명, 총 외래진료환자 수는 18,585명이었고 입원에서는 실 인원 수 681명, 연인원 수 9,547명이었다. 2012년도 외래에서는 초진환자 수 4,275명, 총 외래진료환자 수는 25,214명이었고 입원에서는 실 인원 수가 1,002명 연인원 수는 9,547명이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신경과는 요일제 진료 개설 첫 해인 2008년도에는 외래초진환자 수가 264명, 총 외래진료환자 수는 932명이었고 입원환자는 없었는데 비하여 정식 개설된 2010년도에는 외래초진환자 수가 1,122명 총 외래진료환자 수는 5,601명이었고 입원환자는 실 인원 235명 연인원 1,024명으로 이전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외래초진환자 수가 2,450명 총 외래진료환자 수는 8,558명이었고 입원환자는 실 인원 254명 연인원 1,023명으로 꾸준히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

■ 활발한 학회활동

학회활동 역시 이 시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한신경과학회에서 선우일남은 이사장^{2000년~2001년}과 회장^{2005년}을 역임하였다. 이병인은 부이사장^{2004년~2005년}을 거쳐 이사장^{2006년~2007년}으로 활동하였고 2010년에는 회장직을 맡았다. 김승민은 부이사장^{2010년~2011년}으로 활동하다가 2012년부터는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으로 학회에 봉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승민, 허지희, 손영호, 허경, 김원주, 김영대가 학회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2000년 이후 신경 전문분야에 대한 학문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모임을 주축으로 연구회와 학회가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대한신경근육질환학회^{연구회 2004년, 학회 2008년},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Korean Movement Disorders Society; KMDS: 2006년},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연구회 2006년, 학회 2008년}, 대한통증·자율신경학회^{연구회 2007년, 학회 2011년}, 대한신경초음파학회^{2008년}의 결성에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에 국제학회에서도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원들은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김진수는 2001~2003년에 아세아태평양파킨슨병학회 회장으로 활약하였고, 이병인은 2011년에 Asian Oceanian Epilepsy Organization^{AOEO}의 회장직을 맡았으며 2013년에 연임하여 아시아 뇌전증학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교실원들이 국제학회의 이사진 및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2장 교실의 주요활동 및 성과

1. 교육
2. 연구
3. 진료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제2장 교실의 주요활동 및 성과

1.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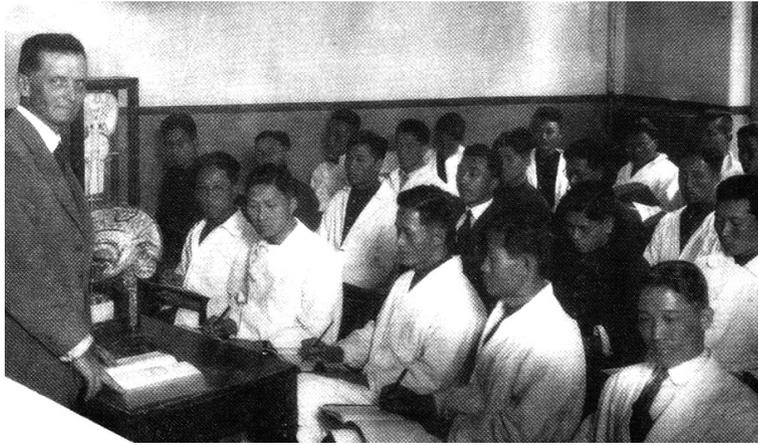
▣ 학생 교육

세브란스에서 신경학의 학생교육은 1913년부터 맥라렌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1913년에 세브란스병원의학교가 세브란스연합의학교로 변경되면서 당시 진주에서 활동 중인 호주 장로회 소속 선교사였던 맥라렌이 일년에 3개월씩 서울에 머물며 신경과와 소아과를 가르쳤다. 1917년 세브란스 일람에 의하면 신경학은 4학년 과정에 매주 2시간을 배정받았고 강의와 퀴즈로 이루어졌다.

1932년에 이증철이 세브란스에 복귀를 하였는데 이 이후 이증철이 신경학 강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학생 교육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이증철이 1936학년도에 제출한 신경과 문제가 남아있다.

4학년 신경과 문제 1936년 3월 3일 오후 1-4시

1. 척수로에 대해 서술하시오
2. 무도병에 대해 서술하시오



신경과 강의 중인 맥라렌 교수

1938년에 맥라렌과 이증철이 세브란스를 떠난 후 1939년부터 1946년까지는 장경에 의하여 내과질환과 아울러 신경질환에 대한 강의를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장경이 세브란스를 떠나고 신경과를 담당하는 교수가 없어 정신과와 내과에서 일부 학생 강의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한 서석조가 1955년에 세브란스 내과에 부임하면서 세브란스에 신경학 발전의 큰 전기가 마련된다. 서석조에 의한 신경과학 교육은 연세의대의 신경과교실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이는 서석조가 세브란스에 근무하였던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 김기환과 이수익이 연세의대 학생과정과 내과수련과정을 거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석조의 세브란스 재임시절 신경과와 관련된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 서석조의 퇴임 이후 1960년대 말까지는 신경학 전공자가 없어 정신과, 내과, 신경외과 교수진에 의한 학생 강의를 이루어지는 정도로만 유지되었다.

1969년 이수익이 미국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연세의대에 부임하면서 신경과의 전문적인 교육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1~1972학년도에는 본과 2학년에서 신경진단학¹학점, 17시간, 본과 3학년에서 임상신경학 강의¹학점, 32시간, 그리고 본과 4학년에서 2주간의 임상실습²학점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각각 선택실습이 있었는데 신경학을 선택할 수 있었다. 1973~1974학년도에는 기존의 임상신경학 강의 이외에 본과 1학년에 신경과학 I⁴학점, 64시간과 본과 2학년에 신경과학 II⁶학점, 102시간로 블록 강의 형식으로 학생 강의를 진행되었다. 신경과학 I은 기초의학교실들에서 담당하여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신경과학 II는 기초와

임상의학교실이 같이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신경과학 I의 경우는 실습 없이 강의로만 이루어졌으나, 신경과학 II의 경우는 강의와 실습에 별도의 학점이 부과되어 운영되었다. 본과 3학년과 4학년의 임상신경학 강의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졌다. 이수익이 사임한 이후 신경과학교실은 다시 내과의 한 분과신경내과에 소속되었지만 신경과학 I, II는 이전과 같이 이루어졌다. 다만 본과 3학년에 있던 신경학 강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신경과 강의가 내과의 일부로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상실습은 2주간으로 이전과 동일했다.

이 후 신경과학교실의 학생 교육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988학년도까지는 4학년 학생들에게 필수과목이었던 신경과학실습이 1999학년도부터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어 신경과학실습을 선택한 4학년 학생들에게 2주간 교육을 시행하였다. 당시 신경과학, 진단방사선과학, 마취통증학, 정형외과학, 이비인후과학, 안과학, 피부과학, 비뇨기과학, 응급의학, 신경외과학, 성형외과학, 재활의학, 암센터, 흉부외과학, 임상병리학, 가정의학, 방사선종양학, 기초학 등 총 18개의 선택과목 중 9개를 선택하여 실습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연세의대에 광혜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는 신경과학실습이 필수실습과목으로 운영되었다. 2007학년부터 2008학년도까지는 4학년에 2주간 필수실습과목으로 배정되었다가 2009학년도 이후로는 3학년으로 이동되어 2주간 실

학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2	1	2	1	2	1	2
윤리학	1	2	3	1	2	3	1	2
일본어	1	1	1	1	1	1	1	1
수학	5	5	5	2	2	2	2	2
영어	2	2						
물리학	4	4	4					
화학	6	6	6					
해부학 강의	4	4	4					
해부학 실습	2	2	2	3				
조직학				6	6			
위생				2	2	2	1	1
세균학				6	6	3	1	1
생리학		2	6	6	6			
병리학			6	6	6			
임상병리학						3	2	2
Materia Medica	2	2	2					
약리학			2	2				
치료학					5			
진단학				3	2	2	2	2
내과학							2	2
임상장외						(1) (1) (1)	(2) (2) (2)	
외과학		1	3	3	3	3		
수술, & c.					(3) (3) (3)	(6) (6) (6)		
소아과학					2	2	1	1
피부과학과 비뇨기과학					1	1	1	1
이비인후과					1	1	2	2
안과학					2	2	2	2
산과학					1	1	1	1
부인과학					1	1	1	1
수술, & c.					(2) (2) (2)	(4) (4) (4)		
신경과학							2	2
치위생							1	1
외래 실습					(9) (9) (9)	(9) (9) (9)		
법의학							2	2
교편	3	3	3	2	2	2	1	1
합계	39	39	39	38	38	24	24	18
						(15)(15)(15)	(21)(21)(21)	
						39	39	39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의 교육과정(1917년도)

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실습은 첫 주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둘째 주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8학년도부터 신경과학 I은 기초신경과학으로, 신경과학 II는 임상신경과학으로 교과명이 변경되었다.

2013학년도 현재는 임상신경과학과 신경과학실습 이외에 2학년 4분기에 운영 중인 임상의학입문1.5학점 과목에 신경학적 진찰을 2시간 배정받아 기본적인 이론 강의와 소그룹별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 4학년 임상종합추론 시간에는 신경과학이 4시간 배정되어있다. 그리고 1~2학

년 일반 선택과목으로 1~2학년 2분기에 '질환 중심 기능적 신경해부'가 개설되어 신경과학교실원들에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2학년도 임상신경과학 강의 계획서 및 시간표

MED4117 임상 신경과학(Clinical Neuroscience)							
담당교수	허경	소속교실		신경과학	연락처	2228-1607 kheo@yuhs.ac	
교육시간	총 74시간	강의	74	실습	-	시험	-
학습목표	성인 및 소아의 신경계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한다. 이를 위해, 각 질환을 병리학적 토대 위에서, 임상소견, 진찰과 영상학적 소견을 통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내과적 외과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를 이해, 습득하며 신경계의 질환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재활치료법을 이해한다.						
평가방법	분기말 평가		100%		시험 및 출석		
강 의 실	2학년 강의실(B 101호)				학점	4.5	
참고문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리학, 대한병리학회, 제7판, 2010, 고문사 · Robbins pathologic basis of diseases, 8th ed · 신경학, 대한신경과학회, 초판, 2007, 군자출판사 · Principle's of Neurology, 9th ed., Mc Grawhill · 신경외과학, 대한신경외과학회, 제3판, 중앙문화사 · Diagnostic Imaging: Brain, 1st edition, Amrysis · Swaiman's Pediatric Neurology: Principles & Practice, 5th ed., Elsevier 						

주	날짜	교시	시간	강의주제	강의교수	소속교실
11	11/1(목)	1	08:30~09:20	임상 신경과학 소개와 입문	최영철	신경과학
		2	09:30~10:20	신경계의 병리학적 변화	김세훈	병리학
		3	10:40~11:30	신경학영상적 신경해부	이승구	영상의학
		4	11:40~12:30	혼수와 뇌압	이재환	신경외과학
	11/2(금)	1	08:30~09:20	소아의 신경학적검사/신생아	강훈철	소아과학
		2	09:30~10:20	신경계의 발달성 및 선천성 질환	김세훈	병리학
		3	10:40~11:30	신경계의 발달성 및 선천성 질환	이준수	소아과학
		4	11:40~12:30	신경계의 발달성 및 선천성 질환	이준수	소아과학
12	11/5(월)	1	08:30~09:20	신경학적 검사와 국소화	김승민	신경과학
		2	09:30~10:20	신경학적 검사와 국소화	김승민	신경과학
		3	10:40~11:30	뇌혈관, 독성, 대사성, 결핍성, 퇴행성 질환	이준수	소아과학
		4	11:40~12:30	뇌혈관, 독성, 대사성, 결핍성, 퇴행성 질환	이준수	소아과학

주	날짜	교시	시간	강의주제	강의교수	소속교실	
12		5	13:30~14:20	신경계의 발달성 및 선천성 질환	손가현	산부인과학	
		6	14:30~15:20	신경계의 발달성 및 선천성 질환	김동석	신경외과학	
	11/6(화)	1	08:30~09:20	신경학적 검사와 국소화	김승민	신경과학	
		2	09:30~10:20	신경학적 검사와 국소화	김승민	신경과학	
		3	10:40~11:30	독성, 대사성, 결핍성 질환	남효석	신경과학	
		4	11:40~12:30	독성, 대사성, 결핍성 질환	남효석	신경과학	
	11/7(수)	1	08:30~09:20	신경계의 발달성 및 선천성 질환/독성, 대사성, 결핍성 질환	이승구	영상의학	
		2	09:30~10:20	뇌혈관 질환	이경열	신경과학	
		3	10:40~11:30	뇌혈관 질환	이경열	신경과학	
		4	11:40~12:30	뇌혈관 질환	이경열	신경과학	
	11/8(목)	1	08:30~09:20	뇌혈관 질환	주진양	신경외과학	
		2	09:30~10:20	뇌혈관 질환	김선호	신경외과학	
		3	10:40~11:30	뇌혈관 질환	이재환	신경외과학	
		4	11:40~12:30	뇌질환의 재활	김덕용	재활의학	
	11/9(금)	1	08:30~09:20	뇌혈관 질환의 인터벤션	김동익	영상의학	
		2	09:30~10:20	뇌혈관 질환	김세훈	병리학	
		3	10:40~11:30	뇌전증/감염성질환	김세훈	병리학	
		4	11:40~12:30	수면의학	허경	신경과학	
	13	11/12(월)	1	08:30~09:20	두통 및 어지러움	김원주	신경과학
			2	09:30~10:20	두통 및 어지러움	김원주	신경과학
3			10:40~11:30	뇌전증, 의식장애성 질환	김흥동	소아과학	
4			11:40~12:30	뇌전증, 의식장애성 질환	김흥동	소아과학	
5			13:30~14:20	척수 질환 및 탈수초성 질환	최영철	신경과학	
6			14:30~15:20	척수 질환 및 탈수초성 질환	최영철	신경과학	
11/13(화)		1	08:30~09:20	뇌전증, 의식장애성 질환	이병인	신경과학	
		2	09:30~10:20	뇌전증, 의식장애성 질환	이병인	신경과학	
		3	10:40~11:30	뇌전증, 의식장애성 질환/치매	이병인/ 이필휴	신경과학	
		4	11:40~12:30	치매	이필휴	신경과학	
11/14(수)		1	08:30~09:20	뇌신경계 외상성 질환	정현호	신경외과학	
		2	09:30~10:20	뇌신경계 외상성 질환	정현호	신경외과학	
	3	10:40~11:30	감염성 질환	박수철	신경과학		
	4	11:40~12:30	감염성 질환	박수철	신경과학		

주	날짜	교시	시간	강의주제	강의교수	소속교실
13	11/15(목)	1	08:30~09:20	감염성 질환/간질	장진우	신경외과학
		2	09:30~10:20	감염성 질환/간질	김진아	영상의학
		3	10:40~11:30	이상운동질환	손영호	신경과학
		4	11:40~12:30	이상운동질환	손영호	신경과학
	11/16(금)	1	08:30~09:20	이상운동질환	손영호	신경과학
		2	09:30~10:20	이상운동질환	손영호	신경과학
		3	10:40~11:30	퇴행성, 탈수초성 질환	이승구	영상의학
		4	11:40~12:30	통증, 이상운동질환	장진우	신경외과학
14	11/19(월)	1	08:30~09:20	감염성질환/이상운동질환	강훈철	소아과학
		2	09:30~10:20	퇴행성 척추질환	김공년	신경외과학
		3	10:40~11:30	척추종양, 척추염증성질환, 척추혈관질환	김공년	신경외과학
		4	11:40~12:30	척추 및 척수 손상	김공년	신경외과학
		5	13:30~14:20	척수 질환의 재활	신지철	재활의학
		6	14:30~15:20	척수 질환	정태섭	영상의학
	11/20(화)	1	08:30~09:20	말초 및 신경근 질환	최영철	신경과학
		2	09:30~10:20	말초 및 신경근 질환	최영철	신경과학
		3	10:40~11:30	말초 및 신경근 질환	최영철	신경과학
		4	11:40~12:30	말초 및 신경근 질환	최영철	신경과학
	11/21(수)	1	08:30~09:20	말초 및 신경근 질환의 재활	강성웅	재활의학
		2	09:30~10:20	퇴행성, 탈수초성 질환	김세훈	병리학
		3	10:40~11:30	퇴행성, 탈수초성 질환	김세훈	병리학
		4	11:40~12:30	말초 및 신경근 질환	김세훈	병리학
	11/22(목)	1	08:30~09:20	말초 및 신경근 질환	강훈철	소아과학
		2	09:30~10:20	뇌종양	김세훈	병리학
		3	10:40~11:30	뇌종양	김세훈	병리학
		4	11:40~12:30	뇌종양	유철주	소아과학
	11/23(금)	1	08:30~09:20	뇌종양	장종희	신경외과학
		2	09:30~10:20	뇌종양	장종희	신경외과학
3		10:40~11:30	뇌종양	박용구	신경외과학	
4		11:40~12:30	뇌종양	서창욱	방사선종양학	

2013학년도 신경과학 임상실습 계획서

담당교수	김영대(신촌) 이경열(강남)	소속교실	신경과학	연락처	김영대: 74136 이경열: 2019-9925		
실습담당 전공의	1주차 신촌 수석전공의: 이형석 2주차 강남 수석전공의: 김지화	소속교실	신경과학	연락처	이형석: (010-5158-07**) 김지화: (010-2934-11**)		
교육 시간	총 2주	강의	18시간	임상술기 실습	9시간	외래 실습	9.5시간
실습 기간	세브란스병원(1주)			강남 세브란스병원(1주)			
신촌 실습항목 및 실습장소	회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무기록 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술방 <input type="checkbox"/>	외부병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 신경과 병동	해당 신경과 병동	해당 신경과 병동		일산병원 (희망 학생)		
	OSCE/CP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그룹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미나 및 conference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생발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임상실기교육센터	뇌신경센터 의사실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뇌신경센터			
강남 실습항목 및 실습장소	회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무기록 작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술방 <input type="checkbox"/>	외부병원 <input type="checkbox"/>		
	신경과 병동	신경과 외래	신경과 병동				
	OSCE/CPX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그룹강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미나 및 conference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생발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13 회의실	13 회의실	13, 17 회의실	신경과 외래 회의실			
실습목표	<p>1. 전체 실습목표</p> <p>A. 신경과학 임상실습은 수업 시간에 강의 받은 신경과 질환에 대하여, 임상실습을 통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B. 각각의 전문 분야별로 시행되는 실습 강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임상에서 이런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신경과 질환에 대한 접근법에 익숙해지도록 한다.</p> <p>C. 병동, 외래 및 응급실 실습을 통해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를 발견하고,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서 병소를 국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조적인 검사 기법과 최신 치료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p> <p>2. 구체적 실습목표</p> <p>A. 신경학적 검사 능력을 습득한다.</p> <p>(1) Mental status를 환자 별로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p> <p>(2) 뇌신경 검사를 할 수 있다.</p> <p>(3) 운동신경, 감각신경의 주행경로와 기능을 이해하고 실시한다.</p> <p>(4) 소뇌기능 검사 및 뇌막지극증상 검사 방법을 이해하고 실시한다.</p> <p>(5) 심부건 반사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실시한다. 병적반사를 감별할 수 있다.</p> <p>B. 신경과에서 흔한 질환에서 병력 청취와 진단을 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습득한다.</p>						

2013학년도 신경과 임상실습 시간표 1주차(신촌)

	월	화	수	목	금
오전	07:30-08:30 NM-NR Conference (5층 회의실) 파트별 회진 10:00-11:30 신경학적 검사 및 실습소개 (수석 전공의) 11:30-12:30 운동 및 인지 기 능검사 (이필휴 교수)	07:30-08:30 파트별 회진 10:00-11:00 말초신경계 총론 강의 (김승민 교수) 11:00-12:00 ER 실습 1조	07:30-08:30 Vascular Conference (5층 회의실) Epilepsy Conference (6층 4세미나실) 파트별 회진 10:00-12:00 수면, EEG 강의 (조양제 교수)	07:30-08:30 파트별 회진 10:00-12:00 Epilepsy 강의 (박수철 교수) 파트별 회진 10:00-12:00 Case 점검 (학생교육담당 전공의)	07:40-08:30 신환 Conference (5층 회의실) 파트별 회진 10:00-12:00 Case 점검 (학생교육담당 전공의)
12:00 ~ 13:30	12:30-14:00 점심 시간				12:30-14:00 전공의 Case Conference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오후	14:00-15:00 Stroke 강의 (김영대교수) 15:30-16:30 뇌척수액 검사 실습 (학생교육담당전 공의) 18:00-19:00 Movement Conference (종합관 209호)	14:00-17:00 이병인 교수 외래 참관 (파트학생) 손영호 교수 외래 참관 (파트학생) ER 실습 2조	14:00-15:00 신경퇴행성질환 강의 (이필휴 교수) 15:30-17:20 의료와 사회	14:00-16:00 김승민 교수 신환 외래 (파트학생) 16:00-17:00 EMG 실습 (박형준) 17:30-18:30 Neurology Grand Round (6층 세미나실)	14:00-15:00 학생 Case & Topic Review (신하영 교수) 15:30-18:00 CPX & OSCE 강의 및 (학생교육담당 전공의)

2013학년도 신경과 임상실습 시간표 2주차(강남)

	월	화	수	목	금
오전	07:40-09:00 Morning Conference	07:40-09:00 Morning Conference	07:40-09:00 Morning Conference	07:40-09:00 Morning Conference	07:40-08:30 신환 Conference (5층 회의실)
	파트별 회진	파트별 회진	파트별 회진	파트별 회진	파트별 회진
	09:00-10:00 Stroke 강의 (이명식 교수)	09:00-12:00 외래참관 (이명식 교수)	9:00-10:00 Epilepsy 강의 (김원주 교수)	10:00-12:00 학생 Case & Topic Review (학생교육담당 전 공의)	07:40-12:00 일산병원 실습 (원하는 학생)
	11:00-12:00 뇌혈류초음파 실습 (학생교육담당 전 공의)		10:00-12:00 신경인지검사 참관		
	※ ER 실습 1조	※ ER 실습 2조		※ ER 실습 3조	
12:00 ~ 13:30	12:30-14:00 점심 시간				12:30-14:00 전공의 Case Conference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오후	14:00-15:00 말초신경계 질환 각론 강의 (최영철 교수)	14:00-15:30 CPX 교육 (학생담당 전공의)	신촌세브란스 이동 (12:20 셔틀버스 이용)	13:30-16:00 외래참관 (이명식 교수)	14:30-15:30 CPX 실기시험 척추전자시험 (학생교육담당 전공의)
	16:00-17:00 파트별 회진	16:00-17:00 파트별 회진	15:30-17:20 의료와 사회	16:00-17:00 파트별 회진	15:30 - 16:30 학생 feed back

▣ 전공의 교육

전공의 교육은 전문의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시행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한 분야의 전문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이루어져왔다. 세브란스에서는 교실에 들어온 수련의를 교실원, 조수, 조교 등의 명칭으로 불렀으며 확립된 제도 없이 수련의 자신과 교실의 사정에 따라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맥라렌 교수로부터 수련을 받은 이수원, 이종철, 김린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현재의 신경학만을 수련받은 것은 아니었고 정신과와 함께 수련을 받았다. 세브란스에서는 1955년부터 ‘조수’라는 명칭을 ‘인턴, 레지던트’로 변경하였으며 이 때부터 수련방식의 변화를 꾀하였고 우리나라에 전공의 수련제도는 1958년부터 보사부훈령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경학에 대한 전공의 수련은 내과에서 이루어져왔다. 서석조 교수가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 근무하였던 1955년부터 1960년 사이에 김기환과 이수익이 내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았다. 서석조가 가톨릭의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당시 4년 차였던 김기환은 서석조를 따라 가톨릭의과대학으로 옮겼다. 이수익 교수가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기간에는 최일생이 내과 전공의로서 수련을 받았다. 김기환 교수가 1974년 세브란스병원에 부임한 이후 윤건일, 선우일남, 정우제, 조효근, 김현숙, 김지영, 김원천, 김승민, 허균 등이 신경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내과 전공의의 수련을 받았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경과학교실의 창립 이전에 신경내과 수련을 받은 의사들은 1983년 1월과 2월의 신경과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당시 신경정신과 전문의 회원들이 신경과 전문의 자격을 자동 취득했던 것에 비하면 불평등한 조치이었다. 다만, 신경과를 일정 기간 전공하였음이 인정되는 내과계 신경과 의사들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받아 연세의대에서는 김기환, 최일생, 선우일남만이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을 치렀다.

1972년 4월부터 전공의 무의촌파견근무제도가 시행되어 전공의 3, 4년 차들이 6개월 정도 무의촌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였는데 1982년도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공의의 수련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1983년에는 1979년 입국한 4년 차와 1980년에 입국한 3년 차 전공의가 동시에 수련을 마치면서 전문의자격을 취득하였다. 연세의대에서는 1983년도에 신경과학교실이 창립되어 신경과 전공의의 수련은 1983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수련기간은 3년이었다. 1983년도에 입국한 최경규와 황연미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의 첫 전공의가 되었다. 1984년도에는 박기덕과 이광수가 입국을 하였다. 1985년부터는 매년 3명의 전공의를 교육하기 시작하였고 이명식, 이상암, 허지희가 입국을 하였다. 1986년부터는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도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어 이성수가 입국하여 첫 신경과 전공의가 되었다. 1988년부터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는 매년 4명의 전공의들이 수련받게 되었다. 1990년, 배워야 할 의학지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 입국한 전공의들이 4년 차가 된 1993년도에는 신경과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았다. 1998년부터는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신경과 전공의 수련도 담당하고 있다^{연차당 한 명}. 2001년도에 한하여 총 6명의 전공의가 입국하였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총 5명의 전공의가 입국하였다. 2005년부터 대한신경과학회 방침에 따라 매년 4명의 전공의가 입국하여 수련을 받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1997년부터 연차당 2명의 전공의들이 배정되었다.

전공의 수련은 오랜기간 동안 한 명의 교원당 전공의 한 명 이상을 배정하여 일정 기간씩 순환근무를 하면서 각 교원들로부터 지식과 술기를 교육받는 형식을 취해왔다. 하지만 점차 신경과의 영역이 넓어지고 전문화되며 교원 수는 늘어나는데 비하여 전공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을 맞게 되어 교실과 의국의 논의를 통하여 2005년부터 진료색선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전공의들은 뇌전증 및 수면, 신경근육질환, 뇌졸중, 운동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의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2개월간 순환하면서 수련을 받게 되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전공의과정 수료자

입국연도	전공의과정 수료자 명단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1983	최경규, 황연미	
1984	박기덕, 이광수	
1985	이명식, 이상암, 허지희	
1986	김장성, 안재훈, 이병철	이성수
1987	박영관, 손영호, 허경	이영진
1988	김경환, 박수철, 정재우, 황성희	정원영
1989	김원주, 문준식, 박재현, 최영철	김진호
1990	김우경, 김윤중, 김지현, 석승한	권순희
1991	곽용태, 김옥준, 조태영	김순관
1992	김돈수, 김정연, 이준홍	이승현
1993	방오영, 이상무, 조수진, 최병옥	이상복
1994	민양기, 박선아, 백종삼, 천화영	김용덕
1995	이필휴, 조정훈, 최선아, 최철희	김원찬
1996	박동철, 이경열, 주민경, 한상원	
1997	김규식, 남효석, 서범천, 정연경	김선근, 류철형
1998	김서현, 서상원, 오원석, 정용	양진우, 이현정
1999	김지현, 조정희	김현숙, 오승현
2000	김미애, 김영대, 이종윤, 주종규	이진구
2001	도원영, 신혜원, 양재훈, 이미희, 조양제	나상준, 박지형
2002	박찬희, 백종민, 신하영, 최혜원, 한상돈	채경민, 홍지만
2003	김진권, 원요섭, 이동현	이기욱
2004	고혜선, 김지윤, 박형준, 송숙근, 정요한	송태진, 이승엽
2005	송동범, 예병석, 이지은, 김경섭	김도현, 서권덕
2006	서주현, 이동우, 이문규, 박보석	김선정, 서경임
2007	유준상, 이재정, 조규호, 이정환	이준범, 조한나
2008	김희진, 선우문경, 홍진용, 홍현정	심재은, 이명준
2009	김은혜, 신수정, 이기정, 임수환	최윤호, 조유나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전공의 명단(2013년 현재)

입국연도	전공의 명단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2010	김승우, 유한수, 이형석, 정석중	고원, 김자화
2011	김경민, 이동현, 이윤주, 이한	김혜인
2012	김영광, 정수진	오여진, 이승하
2013	김기훈, 백민렬, 이원우, 정승호	김한걸, 한철수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세브란스병원 학술집담회(2013년 현재)

집담회	시간	내용
NM-NR conference	월 07:30 - 08:30	신경과와 신경계 영상의학과의 함께 모여 영상검사를 시행한 증례에 대하여 토의를 한다.
Video-EEG conference	월 16:30 - 17:30	비디오-뇌파 검사를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과 향후 치료계획, 수술 계획 등에 대해 모두 모여 회의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다.
Movement conference	월 18:00 - 19:00	전공의를 대상으로 동영상과 함께 운동질환 증례 분석과 review를 진행하며, 운동질환의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최신지견까지 논의하는 시간이다.
Neuromuscular conference (화요모임)	화 18:30 - 19:30	신경근육질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증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연세의대 신경과뿐 아니라 신경근육질환에 관심이 있는 여러 의사들이 함께 참여하며 증례에 대하여 토의한다.
Neurovascular conference	수 07:30 - 08:30	Endovascular 혹은 Surgical intervention이 필요한 증례에 대해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에서 함께 토의한다. 각각의 증례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Epilepsy conference	수 07:30 - 08:30	뇌전증과 연관된 정해진 주제에 대해 토포 발표를 하면서 기본 소양을 쌓고 최신지견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이다.
Stroke conference	수 12:30 - 14:00	매주 시행한 급성기재관류치료 환자들의 in-hospital delay 여부를 확인하며, 증상 발생 7일 이내에 내원했던 모든 뇌경색 증례의 검사결과를 정리하여 뇌경색 병인을 분류한다. 급성재관류치료의 monitoring과 뇌경색 병인에 대한 전공의 교육을 목표로 한다.
Neurology Grand Round	목 17:30 - 18:30	모든 교실원들과 의국원들이 모이는 집담회이며 교원, 전임의, 전공의, 외부연자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하여 발표를 한다.
신환발표	금 07:30 - 08:30	1년 차 전공의들이 자신이 직접 진료를 시행하였던 환자들을 발표하며 간단한 review를 진행한다. 1년 차들에게 기본적인 신경과학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Case conference	금 12:30 - 13:30	흥미롭거나 교육에 도움이 되는 증례들을 발표하고 review한다. 주로 고년 차 전공의가 발표를 하며 해당 증례에 대한 분석 및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Topic lecture (대학원강의)	토 08:00 - 09:00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원이나 외부강사가 강의를 한다. 전공의들과 대학원학생들에게 신경과학의 여러 분야와 최신지견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강남세브란스병원 학술집담회(2013년 현재)

집담회	시간	
Neurovascular conference	월 08:00 - 09:00	Endovascular 혹은 Surgical intervention이 필요한 증례에 대해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에서 함께 토의한다. 각각의 증례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목표이다.
Epilepsy conference	월 17:30 - 18:30	뇌전증과 연관된 정해진 주제에 대해 토픽 발표를 하면서 기본 소양을 쌓고 최신지견에 대해 의논하는 시간이다.
Stroke conference	화 17:30 - 18:30	매주 입원한 증상 발생 7일 이내에 내원했던 모든 뇌경색 증례의 검사결과를 정리하여 뇌경색 병인을 분류한다. 급성재관류치료의 monitoring과 뇌경색 병인에 대한 전공의 교육을 목표로 한다.
Neuroradiology conference	수 07:40 - 08:10	신경계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흥미롭거나 판단이 어려운 증례에 대하여 영상의학과와 토의하여 치료 계획을 논의한다.
Journal Club	수 12:00 - 13:00	최근 신경과 저널에 실렸던 흥미로운 논문이나 전공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논문을 리뷰하여 소개하는 시간이다.
Neuromuscular conference	수 17:30 - 18:30	신경근육질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증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근생검 조직 소견을 직접 보면서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Neurology Grand Round	목 17:30 - 18:30	모든 교실원들과 의국원들이 모이는 집담회이며 교원, 전임의, 전공의, 외부연자가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하여 발표를 한다.
Topic lecture (대학원강의)	토 08:00 - 09:00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교원이나 외부강사가 강의를 한다. 전공의들과 대학원학생들에게 신경과학의 여러 분야와 최신지견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 연구강사(fellow) 교육

연구강사제도는 연세의료원 차원에서 1986년도에 신설되었다. 두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 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80년대 이후 신설되는 의과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여 이들 병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어 기초와 임상 의 중계연구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이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도 1986년부터 처음으로 연구강사 교육이 시작되었다. 당시 1983년도에 처음으로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최경규와 황연미가 1986년 2월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신경과 전문의가 되어 최경규는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6개월간 연구강사로 근무하였고 황연미는 신경근육질환 및 근전도검사를 세부전공으로 하여 1988년 2월까지 2년간 연구강사로서 연구, 진료, 교육을 보조하였다. 최경규는 연구강사 후에 이화의대에 부임하였다. 황연미는 연구강사를 수료한 이후 당시 중앙병원 현 아산병원 신경과 교원으로 발령받아 자리를 옮

졌다. 황연미 이후에 이병철이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뇌파를 전공하는 연구강사를 시작하였고 1년간 근무한 이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뇌졸중 진료부서에서는 2000년 3월부터 이경열을 시작으로 연구강사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신경퇴행성질환 진료부서는 2003년 5월부터 강석운을 시작으로 연구강사들을 교육하고 있다.

신경근육질환 진료부서는 1986년부터 연구강사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3년 현재 총 23명의 연구강사가 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재 3명의 연구강사가 교육을 받고 있다. 총 23명의 연구강사 출신 중 13명^{57%}이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신경근육질환 환자진료와 연구 그리고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8명은 종합병원 및 개인의원에서 신경근육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일부는 오클라호마 대학 신경과학교실의 교원^{문준식}, 선교사^{이승현} 등으로 활동 중이다.

뇌전증/수면질환 진료부서는 1989년부터 연구강사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이후 2013년 현재 총 20명의 연구강사를 배출하였다. 20명의 연구강사 중 19명^{95%}이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뇌전증/수면 질환 환자진료와 연구, 그리고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1명 작고: 임성룡}.

뇌졸중 진료부서는 2000년부터 연구강사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 현재 총 17명의 연구원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재 2명의 연구강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총 17명의 연구강사 출신 중 15명^{88%}이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뇌혈관질환 환자진료와 연구 그리고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2명은 종합병원 및 개인의원에서 뇌혈관질환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신경퇴행성질환 진료부서는 2003년부터 연구강사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13년 현재 4명의 연구원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현재 3명의 연구강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4명의 연구강사 출신들은 모두 대학병원에서 신경퇴행성질환을 전공하며 진료, 연구,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는 1986년 연구강사 교육을 시작한 이후 총 64명의 연구강사들이 세부전공을 수련하고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들 중 51명이 국내 대학병원 및 수련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신경과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역대 연구강사 명단

신경근육질환		뇌전증 및 수면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	
이름	근무기간	이름	근무기간	이름	근무기간	이름	근무기간
황연미	1986.3~1988.2	이병철	1989.3~1990.2	이경열	2000.3~2002.2	강석윤	2003.5~2005.2
박영관	1990.3~1991.2	손영호	1990.3~1991.2	김서현	2002.3~2004.2	신혜원	2005.3~2008.3
정근호	1990.5~1990.11	박수철	1991.3~1994.2	한상원	2003.5~2005.2	송숙근	2008.3~2010.4
박기덕	1990.5~1990.7	박형국	1994.5~1994.10	남효석	2004.5~2006.2	이지은	2009.3~현재
권기한	1991.5~1993.2	이세진	1995.3~1996.2	이종윤	2004.3~2005.10	홍진용	2012.3~2013.2
이상암	1991.5~1992.2	김원주	1995.5~1997.2	안성환	2005.5~2006.2	선우문경	2012.3~현재
문준식	1992.3~1994.2	김정연	1996.3~1998.2	최혜연	2006.3~2008.2	함지현	2013.3~현재
조광호	1994.3~1995.2	이준홍	1996.3~1998.2	조현지	2006.3~2008.3		
김우경	1995.3~1996.2	김옥준	1998.5~2000.2	김영대	2007.3~2009.2		
이승현	1996.3~1997.2	임성룡	1999.5~2001.2	정요한	2008.3~2009.2		
최병옥	1997.3~2000.2	박선아	2000.3~2002.9	조한진	2008.5~2009.2		
천화영	1998.3~1999.10	김규식	2001.3~2001.6	양재훈	2008.5~2009.3		
오윤민	2000.3~2001.2	양광익	2001.5~2002.2	차명진	2009.3~2011.2		
강사윤	2001.3~2001.9	주민경	2002.3~2003.6	이동현	2010.5~2011.2		
정연경	2001.3~2003.2	김미애	2004.3~2006.2	김진권	2010.5~2012.2		
조정희	2003.3~2005.2	조양제	2006.3~2011.2	송태진	2011.5~2013.2		
김지현	2003.3~2004.2	한상돈	2006.3~2007.2	송동범	2012.5~2013.2		
서범천	2004.5~2007.2	장상현	2007.3~2009.2	김은혜	2013.3~현재		
도유림	2005.3~2006.2	이문규	2010.3~2012.7	이기정	2013.3~현재		
심동석	2006.3~2008.2	김도의	2012.3~2013.2				
고혜선	2008.3~2010.2						
박찬익	2008.5~2009.2						
신하영	2009.5~2012.2						
박형준	2012.3~현재						
이효은	2013.3~현재						
박보석	2013.5~현재						

▣ 대학원 교육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는 학문연구 중심으로 연구업적을 학위논문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교육 및 운영되었다. 세브란스 의과대학에서는 1955년도에 대학원이 개설되었고 의학과 첫 석사학위자는 1957년에, 박사학위자는 1959년도에 처음으로 배출되었다. 신경과 학교실에서는 1985년 8월에 처음으로 최경규와 황연미가 석사학위를 받았다. 최경규는 최일생의 지도 아래 ‘성인에서 발생한 경련성 질환에 대한 임상적 연구’, 황연미는 김기환의 지도 아래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의식장애 환자의 임상적 고찰’이라는 학위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대부분의 신경과 의국원들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 기간 동안 혹은 그 이후에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고 의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부분의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은 임상연구를 진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다. 연구분야는 경련성 질환, 일산화탄소 중독증, 뇌경색, 신경근육질환, 파킨슨병 등에 관한 것들이었다. 드물게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2012년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에서 총 86명이 신경과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는 1989년 8월 최경규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26명의 의학박사를 배출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세브란스병원 혹은 현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전공의과정을 마친 신경과 전문의들이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초창기에는 박사학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할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전공의 수련을 마친 의국원들 중 연세의대의 다른 교실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약리학교실](#), [생화학교실](#) 등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신경과학교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경우도 타 교실의 도움을 받아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신경과학교실에서 처음 박사학위를 받은 최경규의 경우 김진수의 지도 아래 ‘일산화탄소 중독된 흰쥐의 뇌조직 및 뇌척수액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의 변동’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당시 신경과학교실에서 실험실은 물론 실험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약리학교실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신경과학교실 소속의 실험연구실이 마련된 2000년 이후에는 온전히 신경과학교실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박사학위를 받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총 7명의 의학박사를 배출하였던 반면 2000년 이후 2012년까지는 총 19명의 의학박사가 배출된 사실로 잘 드러난다. 2000년 이후에는 박사학위 연구분야도 다양해져 기존의 기초 및 중계 실험연구 위주에서 영상의학분야 및 전기생리학분야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박사학위논문

성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최경규	1989-08-25	일산화탄소 중독된 흰쥐의 뇌조직 및 뇌척수액에서의 신경전달 물질의 변동	Changes in the neurotransmitter levels of brain and cerebrospinal fluid in carbon monoxide intoxicated rats	김진수
이병철	1991-02-25	흰쥐에서 만성 납중독이 뇌의 BIOGENIC AMINE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chronic lead intoxication on biogenic amine contents in the rat brain	김진수
박기덕	1993-02-22	흰쥐에서 빈크리스틴에 의한 말초신경의 전기생리와 형태 변화	Electrophysiologic and morphologic changes of rat peripheral nerves induced by vinoristine suefate	김기환
허지희	1994-08-29	1-METHYL-4-PHENYL-1,2,3,6-TETRAHYDROPYRIDINE이 마우스 뇌조직 생체내 아민 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FREE RADICAL과의 연관성	Changes of biogenic amines by 1-methyl-4-phenyl-1,2,3,6-tetrahyaropyridine in the brain and its relationship with free radical	김진수
손영호	1995-08-28	전형 및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 이 백서의 중뇌 D2 도파민수용체 messenger RNA 표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ypical and atypical antipsychotic drugs on the mrna expression of rat mesencephalic d2 receptor	김진수
김경환	1998-08-28	3-Nitropropionic Acid에 의한 마우스 선조체의 손상기전	The mechanism of striatal damage induced by 3-nitropropionic acid in mouse	김진수
곽용태	1999-02-22	정신분열병 환자의 말초 임파구에서 도파민 수용체 mRNA의 변화	Change of dopamine receptor mrna expression in lymphocyte from schizophrenic patients	선우일남
김옥준	2000-08-25	뇌종양에 의한 신경세포의 세포고사	Apoptosis of surrounding neurons by brain tumor	최일생
이경열	2003-02-24	국소 뇌허혈에서 뇌저온 요법의 허혈 손상 및 Matrix Metalloproteinase에 대한 영향	Effect of brain hypothermia on ischemic injury and matrix matalloproteinase in focal cerebral ischemia	허지희
최선아	2004-02-23	자발성 고혈압 쥐에서 만성 뇌 혈류저하가 중대뇌동맥 폐색 유발성 세포 손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on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induced cellular damage in spontaneous hypertensive rats	허지희
김윤중	2004-08-27	헌팅틴 단백질의 단백질분해	Proteolysis of huntingtin	김진수

성 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이필휴	2004-08-27	허혈성 뇌손상이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ischemic brain insult on amyloid precursor protein processing	최일생
김서현	2005-08-26	만성 뇌혈류 저하가 뇌졸중 중증도와 신생동맥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ronic cerebral hypoperfusion on stroke severity and arteriogenesis	허지회
주민경	2005-08-26	실험적 간질에서 Matrix Metalloproteinases의 발현과 역할	Expression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and their roles in experimental seizures	이병인
조정희	2006-08-25	대두식이이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oy bean on diabetic neuropathy	김승민
류철형	2007-02-26	다계통위축증 환자에서 레보도파 반응도와 FDG PET에 나타난 선조체 및 소뇌 포도당 대사량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striatal and cerebellar glucose metabolism on fdg pet study and the responsiveness to levodopa treatment in patients with multiple system atrophy	이명식
서범천	2007-02-26	한국인 Charcot-Marie-Tooth 환자들에서 MFN2 유전자 돌연변이의 임상적 의미 및 하지 MRI와 임상 소견의 연관성	Clinical implications of mfn2 mutations and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and mri features in lower limbs of korean patients with charcot-marie-tooth diseases	김승민
서상원	2008-08-29	피질하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와 피질하 혈관성 치매에서의 공간적 피질의 감소	Topography of cortical thinning in subcortical vascular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허지회
신혜원	2009-08-28	말초신경-피질연계자극을 이용한 운동 학습 순간전달의 생리학적 증거 및 기전	Neurophysiological evidence and mechanism of intermanual transfer using paired associative stimulation	손영호
강석윤	2010-02-22	반복운동 훈련에 의한 운동신경계 내의 주위억제체계의 변화	The effect of simultaneous repetition of unrelated finger movements on surround inhibition in the motor system	손영호
남효석	2010-02-22	뇌경색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와 Matrix metalloproteinase의 역할	Roles of matrix metalloproteinase and mesenchymal stem cell therapy in ischemic stroke	허지회
김현숙	2010-08-27	나이와 유병기간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뇌 포도당 대사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ge and disease duration on cerebral glucose metabolism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이명식

성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이중윤	2010-08-27	국소적 뇌허혈에서 뇌저온 요법 후 aquaporin의 시간적 변화와 발현	The expression and temporal course of aquaporin after brain hypothermia in focal cerebral ischemia	허지회
나상준	2012-02-27	한국인 자가면역성 중증근무력증환자에서 전유전체 분석	Whole-genome analysis in korean patients with autoimmune myasthenia gravis	최영철
최혜연	2012-02-27	만성 뇌혈류저하에 의해 유도되는 미세혈관 및 동맥 재형성	Microvascular and arterial remodeling induced by chronic hypoperfusion	허지회
김영대	2012-08-31	혈전용해치료 모델을 통한 적절한 혈전용해치료 효능 비교	Optimal strategy for effective dissolution of the thrombus in thrombolysis models	허지회

석사학위논문

성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최경규	1985-08-28	성인에서 발생한 경련성 질환에 대한 임상적 연구	A clinical study of adult onset seizure disorder	최일생
황연미	1985-08-28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의식장애 환자의 임상적 고찰	A clinical study on patients with impaired consciousness entering the emergency room of severance hospital	김기환
박기덕	1986-02-24	뇌전산화 단층촬영으로 확인된 자발성 뇌출혈 환자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720 cases of cerebral hemorrhage confirmed by ct brain scan	김진수
이병철	1987-08-28	한국인 당뇨병환자 1017예의 구획별 신경전도검사에서 나타난 말초신경 손상의 양상	Patterns of peripheral nerve damage on segmental nerve conduction study in 1017 cases of korean adult diabetes	김기환
이상암	1987-08-28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증에서 혈청 ENZYME의 변화에 대한 연구	A serum enzyme study in acute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최일생
허지회	1987-08-28	결핵성 뇌막염에 있어서 뇌척수액 ADENOSINE DEAMINASE치의 진단적 가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agnostic value of cerebrospinal fluid adenosine deaminase activity in tuberculous meningitis	김기환
안재훈	1988-08-26	한국인 정상성인의 뇌척수액내 신경전달물질 및 그 대사물질에 대한 연구	Neurotransmitter and their metabolites in cerebrospinal fluid of normal adults	김진수

성 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이명식	1988-08-26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Cardiac changes from acute carbon monoxide poisoning	최일생
김장성	1989-02-27	당뇨병 환자에서의 허혈성 뇌졸중 발생 요인에 대한 후향적 연구	A retrospective study on risk factors of ischemic stroke in korean diabetic patients	김진수
손영호	1989-02-27	소공뇌경색증의 임상적 연구	A clinical study of lacunar infarction	김기환
박영관	1990-02-26	말초성 현훈과 중추성 현훈의 감별진단에 있어서 뇌각청각 유발전 위의 유용성	Brainstem auditory evoked potentials in differential diagnosis of vertigo	선우 일남
허경	1990-02-26	중근근무력증 환자에서 반복신경자극 검사의 진단적 가치	Diagnostic value of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test in patients with myasthenia gravis	선우 일남
황성희	1990-02-26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증의 임상 및 검사소견에 대한 고찰	Clinical and laboratory analysis in acute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최일생
김경환	1990-08-24	항경련제 치료가 간질의 임상경과에 미치는 영향	Attributions of antiepileptic drug treatment in clinical course of epilepsy	김기환
박수철	1990-08-24	심방 세동을 동반한 허혈성 뇌졸중의 임상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ischemic stroke with atrial fibrillation	김기환
김원주	1991-02-25	파킨슨병에서 자율신경계 증상에 대한 연구	Autonomic dysfunction in parkinson's disease	김진수
문준식	1991-02-25	항혈소판제제의 혈소판응집 억제효과	The anti-aggregatory effect of anti-platelet agents	이병인
이광수	1991-02-25	성 연령 및 신장에 따른 후경골 신경자극 감각유발전위의 변화	Alteration of posterior tibial nerve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by gender, age and height	선우 일남
이성수	1992-02-24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증에서의 혈액학적 변화	Hematologic changes in acute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최일생
박재현	1992-08-21	결핵성 수막염의 임상증상과 후유증	Clinical manifestations and sequelae of tuberculous meningitis	최일생
최영철	1992-08-21	척수질환에서 감각장애와 후경골신경자극 감각유발 전위검사의 비교 연구	The relationship between posterior tibial nerve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and sensory changes in patients with myelopathy	선우 일남
김윤중	1993-02-22	성인에서 노화에 따른 기억변화	Changes of memory function of adult in aging	김진수

성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조태영	1993-02-22	결핵성 뇌막염에서 뇌척수액내 면역 글로불린 형성과 항결핵 체액성 면역 반응	Intrathecal synthesis of immunoglobulins and hnd-tbc humoral immune response in the tuberculous wemingifis	이병인
곽용태	1993-08-20	당뇨병 환자에서 자기자극에 의한 운동 유발전위	Magnetic motor evoked potential in diabetic patients	선우 일남
김우경	1993-08-20	뇌경색 환자에서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의 유용성	The usefulness of spect analysis in acute cerebral infarction	이병인
석승한	1993-08-20	간질환자의 기억과 관련된 인지상태 평가-연령, 성별 및 학력을 조정한 대조군 연구-	Cognitive status related to memory in epilepsy	김진수
김옥준	1994-08-29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에서의 혈중 갑상선 호르몬 및 혈당의 변화	Blood level of thyroid hormones and sugar in acute carbon monoxide poisoning	최일생
권순희	1995-08-28	결핵성 수막염치료에 있어서 부신피질 호르몬 병용의 부가효과	The adjunctive effects of corticosteroids combined therapy in tuberculous meningitis	최일생
이준홍	1995-08-28	파킨슨 증후군에서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임상요소들	The clinical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parkinsonian syndrome	김진수
방오영	1996-02-26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증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예측 인자	Predicting factors in prognosis of acute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최일생
유경호	1996-02-26	대뇌 국소 허혈성 병변이 후속되는 전 뇌 허혈 손상에 미치는 보호 효과	The protective effect of cortical infarction to the neuronal damage following subsequent global ischemic insult in the gerbil	이병인
최병욱	1996-02-26	파킨슨병에서 교감신경 피부반응 검사와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의 비교	Comparison between the sympathetic skin response and the cardiovascular autonomic function tests in parkinson's disease	선우 일남
김정연	1996-08-30	청장년층의 뇌경색증	Cerebral infarction in young adults	최일생
백종삼	1997-02-24	전이 뇌암의 임상양상과 예후	Metastatic brain tumors : clinical aspects and prognosis	최일생
조수진	1997-02-24	중증 근무력증 환자에서 흉선절제술의 치료효과	Thera peutic effects of thymectomy in patients with myasthen ia gravis	선우 일남
최철희	1997-02-24	파킨슨 증후군에서 L-Dopa 치료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ong-tevm levodopa tveatment to depression in parkison's disease	김진수
박선아	1997-08-29	성인 뇌수막염의 원인분석과 임상양상	The etiologic analysi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meningitis in adults	최일생

성 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이경열	1998-02-23	탈수초성 말초신경병증의 진단 및 추적 관찰에 있어서 신경전도검 사 표준화의 유용성	The availability of standardization of the nerve conduction study in diagnosis and follow up of the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선우 일남
이상무	1998-02-23	측두엽 간질환자에서 측두엽 절제술 전후의 신경심리검사의 변화	Neuropsychological changes before and after temporal lobectomy in temporal lobe Epilepsy	이병인
최선아	1998-02-23	일산화탄소 중독의 임상양상과 전신성 합병증	Clinical manifestation and systemic complication in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최일생
조정훈	1998-08-28	관 동맥 질환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The onset of ischemic stroke in the coronary heart disease	최일생
김돈수	1999-02-22	해마위축을 보인 측두엽 간질환자의 우울증 -편측성 병변과의 연관성-	Depression in temporal lobe epilepsy with hippocampal atrophy -relation to lesion laterality-	이병인
이필후	1999-02-22	수막암증에서 임상양상, 뇌척수액 세포진 검사, 신경영상 및 뇌척수액 생화학 표식인자의 비교	Comparison of clinical feature, csf cytology, neuroimaging and csf biochemical marker in leptomeningeal metastasis	최일생
천화영	1999-02-22	일산화탄소중독 후의 지연성운동장애	Delayed-onset movement disorders after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최일생
서범천	1999-08-27	중증 근무력증 및 근무력증후군에서 반복신경 자극검사 단계의 재평가	Strategy of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test in myasthenia gravis and myasthenic syndrome	선우 일남
한상원	1999-08-27	재발성 척수염과 다발성 경화증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Comparison of multiple sclerosis and recurrent myelitis	김승민
류철형	2000-02-28	한국인 파킨슨 증후군 환자에 있어 COMT 유전자형 변이와 경구 투여한 Sinemet에 대한 반응과의 상관관계	Relationships between genotypes of catechol-o-methyltransferase and response sinemet treatment in korean patients with parkinsonian syndrome	이명식
박동철	2000-02-28	성인과 소아의 급성 세균성 수막염의 원인균, 임상양상과 예후 분석	Acute bacterial meningitis in children and adults: causative organism,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최일생
김규식	2001-02-26	크립토코크스 수막염의 치료에 있어서 fluconazole 단독 요법과 amphotericin B 단독 또는 flucytosine 병용 요법의 효과 비교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fluconazole alone, and amphotericin b alone or plus flucytosine in the treatment of cryptococcal meningitis	최일생

성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남효석	2001-02-26	대동맥 죽상경화를 동반한 급성 뇌경색의 임상적 특징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aortic atheroma in acute ischemic stroke	이병인
서상원	2001-02-26	신경계를 침범하는 혈관염 증후군	Vasculitic syndrome with neurologic involvement	김승민
정연경	2001-08-31	청장년기 뇌졸중의 위험인자 및 임상적 특성	Risk factors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in young adult stroke	최일생
김원찬	2001-08-31	특발성 파킨슨씨 병 환자에서 시상하핵에 대한 심부 뇌 자극의 증상 개선 효과	Subthalamic nucleus deep brain stimulation in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이명식
김서현	2002-02-25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신경전도검사의 검사자내 변이	Intraexaminer variability of nerve conduction study in healthy person	김승민
민양기	2002-02-25	임상적으로 의심된 결핵성 뇌수막염에서 각 검사의 유용성	Usefulness of laboratory tests in patients with clinically suspected tuberculous meningitis	김진수
오원석	2002-08-30	급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 내경동맥 협착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internal carotid artery stenosis in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허지희
조정희	2002-08-30	내측두엽 간질 환자에서 발작 간 뇌파에 따른 발작 양상 및 발작 중 두피 뇌파의 비교	Ictal semiology and scalp eeg in temporal lobe epilepsy patients with unitemporal versus bitemporal interictal discharges	허경
김영대	2003-02-24	난치성 간질 환자에서 성공적 간질수술 후의 발작 재발	Late seizure recurrence after successful epileptic surgery in intractable epilepsy patients	허경
김지현	2003-02-24	혈관 조영 사진을 이용한 표준화된 두개내 뇌동맥 협착 측정법의 개발	A method for measurements of intracranial artery stenosis	허지희
김현숙	2003-02-24	다계통 위축증 환자와 정상인에서 제7형 알코올 탈 수소효소 유전자 다형성의 빈도	The frequencies of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in alcohol dehydrogenase-7 gene in patients with multiple system atrophy and healthy controls	이명식
오승헌	2003-02-24	진행된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시상하핵 심부뇌자극과 레보도파 투여가 운동개시시간과 운동수행시간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subthalamic nucleus-deep brain stimulation and levodopa treatment on movement initiation time and movement execution time in advanced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이명식
김미애	2003-08-29	내측두엽 간질환자에서 양측 측두엽 대사감소와 뇌파 소견과의 연관성	Relationship between bilateral temporal hypometabolism and eeg findings in mesial temporal lobe epilepsy	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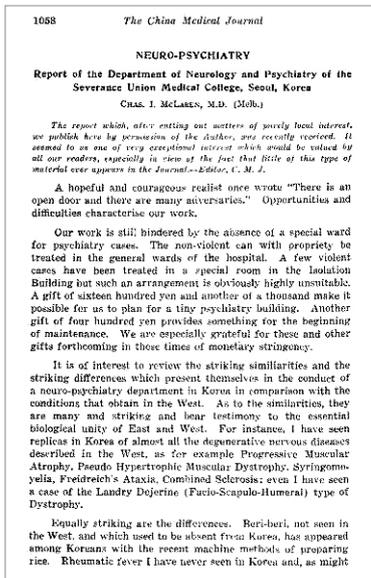
성 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이중윤	2003-08-29	Hereditary neuropathy with liability to pressure palsy와 Charcot-Marie-Tooth1A에서의 신경전도 검사의 비교	Comparison of nerve conduction studies between hereditary neuropathy with liability to pressure palsy and charcot-marie-tooth1a	김승민
조양제	2004-02-23	임상적, 방사선학적 분석을 통한 후백질 뇌병증의 특성	Clinical and radiological analysis of posterior leukoencephalopathy syndrome	이병인
도원영	2004-08-27	순수 운동성 뇌졸중에서 감각 기능의 변화	Sensory change in pure motor stroke	손영호
신혜원	2004-08-27	파킨슨병에서의 감각기능 이상	Sensory dysfunction in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손영호
박지형	2005-02-28	중증 근무력증과 인터루킨-1 β , 인터루킨-1 수용체 길항제 유전자 다형성의 연관성	Il-1 β and il-1 receptor antagonist genes polymorphisms in myasthenia gravis	최영철
이미희	2005-02-28	유전학적으로 진단된 Charcot-Marie-Tooth 1A 환자의 전기생리학적 특성	Electr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genetically confirmed cmt1a	김승민
최혜연	2005-02-28	파킨슨씨병의 전두엽 기능장애	Frontal lobe dysfunction in de novo idiopathic parkinson's disease	손영호
신하영	2006-02-27	Kainic acid 유발 간질모델에서 Minocycline의 Caspase-dependent와 Caspase-independent 세포사멸 억제	Minocycline inhibits caspase-dependent and independent cell death pathways and is neuroprotective against hippocampal damage after kainic-acid-induced seizure in mice	허경
한상돈	2006-02-27	복합부분발작에 대한 간질환자의 자각	Patient awareness of complex partial seizures	허경
이승엽	2007-08-24	실신과 발작 환자에서 혈청 Neuron Specific Enolase의 변화	Serum neuron specific enolase level in patients with seizure and syncope	김원주
나상준	2008-02-25	Dystrophinopathy환자에서 임상적, 면역조직화학적 및 웨스턴 블롯 분석	Clinical, immunohistochemical and western blot analysis in dystrophinopathy	최영철
박형준	2008-02-25	원내 뇌경색의 유병률과 특성	Incidence and characteristics of in-hospital ischemic strokes	허지회
홍지만	2008-02-25	안면견갑상완형 근이영양증의 임상적 특징과 유전학적 분석	Clinical features and genetic analysis of fascioscapulohumeral muscular dystrophy	최영철
송동범	2008-08-29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에서 혈소판과 백혈구의 상호작용	Platelet-leukocyte interaction in acute ischemic stroke	김경환
정요한	2009-02-23	척추동맥 협착의 임상적 중요성	Clinical significance of vertebral artery stenosis	허지회

성 명	졸업 연월일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지도교수
고혜선	2009-08-28	간질 예후의 시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The analysis of factors on the change of prognosis in epilepsy	허경
서권덕	2010-02-22	의식이 저하된 환자의 뇌파 분석	The assessment of lectroencephalography in patients with altered mental status	김원주
박보석	2011-02-28	파킨슨 치매와 루이소체 치매에서의 대 뇌 위축: 복셀기준형태계측을 이용한 비교 분석	Cerebral atrophy in parkinson's disease with dementia and dementia with lewy bodies: a comparative analysis using voxel-based morphometry	이필휴
예병석	2011-02-28	소뇌경색에서 침범된 소엽에 따른 임상 증상의 발현	Clinical manifestations of cerebellar infarction according to specific lobular involvement	허지희
이지은	2011-02-28	기억상실성 경도 인지장애 환자에서 파킨슨 병 동반유무에 따른 신경구조학적 차이	Neuroanatomic basis of amnesic mci differs in patients with and without parkinson disease	이필휴
이기욱	2011-08-26	급성 뇌경색에서 혈청 resistin이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erum resistin on acute cerebral infarction	허지희
이동현	2011-08-26	뇌경색 환자에서 발목 상완지수(ankle-brachial index : ABI)와 초기 신경학적 중증도의 연관성	Low ankle-brachial index is a predictive factor for initial severity of acute ischemic stroke	허지희
김경섭	2012-02-27	숨뇌경색에서 침범된 혈관의 분포영역에 따른 기전의 차이	Mechanism of medullary infarction based on arterial territory involvement	허지희
김희진	2012-02-27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파킨슨병- 연관 인지장애에서의 무명질 부피 비교	Analysis of the substantia innominata volume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nd parkinson's disease-related cognitive dysfunction	이필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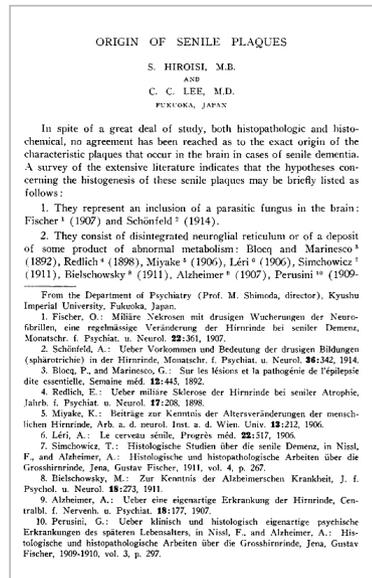
2. 연구

맥라렌은 1913년부터 세브란스연합의 학교에서 신경과학에 대한 교육과 진료를 시행하였다. 그는 조선에서의 신경과 환자들에 대한 경험을 정리하여 1931년 'The China Medical Journal'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아마도 이것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경과학에 대한 첫 임상연구논문일 것이다. 그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자신의 경험 및 의견을 정리하여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맥라렌의 제자인 이중철이 세브란스에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연구 또한 이전에 비하여 활성화되었다. 이중철은 당시 유행하였던 뇌척수막염 환자들에게 lumbar puncture와 cisterna magna puncture를 동시에 시행하여 normal saline으로 반복하여 세척하는 치료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1930년에 발표하였다. 이 연구논문의 제목은 '유행성뇌척수막염에 Cisterna Magna 세척요법'으로 이 논문은 당시 조선인 의학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조선의보>창간호에 실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중철은 1931년 10월 중국 북경의 협화외과대학에서 Ernst De Vries



China medical journal(1931)에 실린 맥라렌 교수의 세브란스에서의 진료 경험 보고



1936년<Archives of Neurology and Psychiatry>에 발표한 'Origin of Senile Plaques'

서석조는 cerebrovascular accident을 ‘졸중’이라는 의학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하지만 서석조 역시 학내문제로 1960년 세브란스를 떠나게 되어 신경과학분야 연구 역시 다시 중단되었다. 1969년 이수익이 미국에서 신경과를 전공하고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으로 돌아와 신경과를 맡으면서 연구분야도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주기마비, 중증근무력증, 윌슨병, ALS, CMT 등의 여러 질환들을 밝혀내어 증례발표를 하였고, 이 환자들의 임상양상을 분석하여 임상연구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수익도 1974년 다시 도미하여 신경과학분야 연구도 이어져나가지 못하였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신경과학분야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이수익 이후 김기환이 모교인 세브란스로 복귀하고부터이다. 그는 1972년 6월부터 1973년 7월까지 미국 University of Alabama에서 신경과학을 연수하였고 1974년 7월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부임하여 신경과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여러 질환들에 대한 증례보고와 임상연구를 수행하여 주로 의학협회지, 내과학회지 등에 발표하였다. 김기환은 신경과학의 후학양성에 주력하여 1976년에는 최일생이, 1979년에는 선우일남이 교원으로 합류하였다. 최일생은 1978년 9월부터 일년간 University of Alabama에서 신경학을 연수하였고 선우일남도 같은 대학에서 1980년 3월부터 2년간 근전도를 연수하고 돌아왔다. 이 두 신경과의사의 합세로 연구분야 역시 활성화되었다. 당시에는 신경과가 내과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신경과학분야 이외의 내과학에 대한 증례보고 및 임상연구논문도 발표하였다.

이 시기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최일생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연구이다. 최일생은 1970~199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많이 발생하였던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많은 임상 증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그는 일산화탄소 중독 이후의 만성 후유증에 대한 임상연구¹⁾를 수행하여 ‘Archives of Neurology’등의 국제학술지 및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였고 이 연구결과들은 국제적으로도 권위있는 신경과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영향력을 보였다.

선우일남이 University of Alabama에서 근전도를 연수하고 복귀한 이후 곧 이어 1983년에 신경과가 독립되면서 근전도 기계가 도입되었다. 선우일남이 근전도와 말초신경질환을 맡으면서 신경계 질환의 진단에 근전도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체계화되었다. 이 분야의 연구 역

1) Choi IS. Delayed neurologic sequelae in carbon monoxide intoxication. Arch Neurol 1983; 40: 433-435.

시 활성화되었다. 선우일남의 주 연구분야는 신경근육질환이었지만 그는 전산차장 및 의료정보실장을 역임한 경력 때문으로 다수의 의료정보학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였다.

김진수는 1970년대 독일 막스-프랑크(Max-Planck)연구소에서 nigrostriatal pathway, corticostriatal pathway의 neurotransmitter를 규명하는 여러 연구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에 부임한 이후에는 국내 여건상 이전과 같은 기초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전까지 국내에 보고되어 있지 않던 운동질환 증례보고와 이전에 수행하였던 연구 내용에 대한 종설로 국내 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에서의 연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였다. 1999년부터는 BK21 의과학 사업단에 참여하여 신경과학 실험실이 운영되었다. 이 이후 기존의 임상연구뿐만 아니라 신경계 질환에 대한 중계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매년 수십 편의 연구논문들이 국제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에서는 1983년 교실 창립 이후 연구분야의 오랜 역사와 탁월한 성과를 바탕으로 26명의 의학박사와 86명의 의학석사를 배출하였다.

주요 연구성과들을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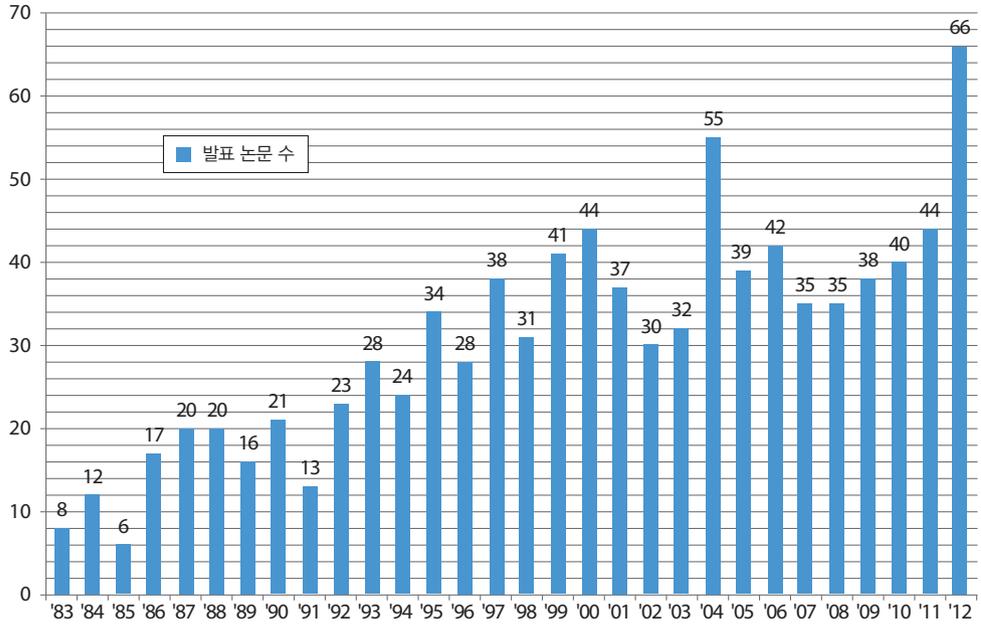
연도별 발표 논문 수

연도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총 발표 논문수	8	12	6	17	20	20	16	21	13	23
SCI & SCIE	2	0	1	1	2	4	3	3	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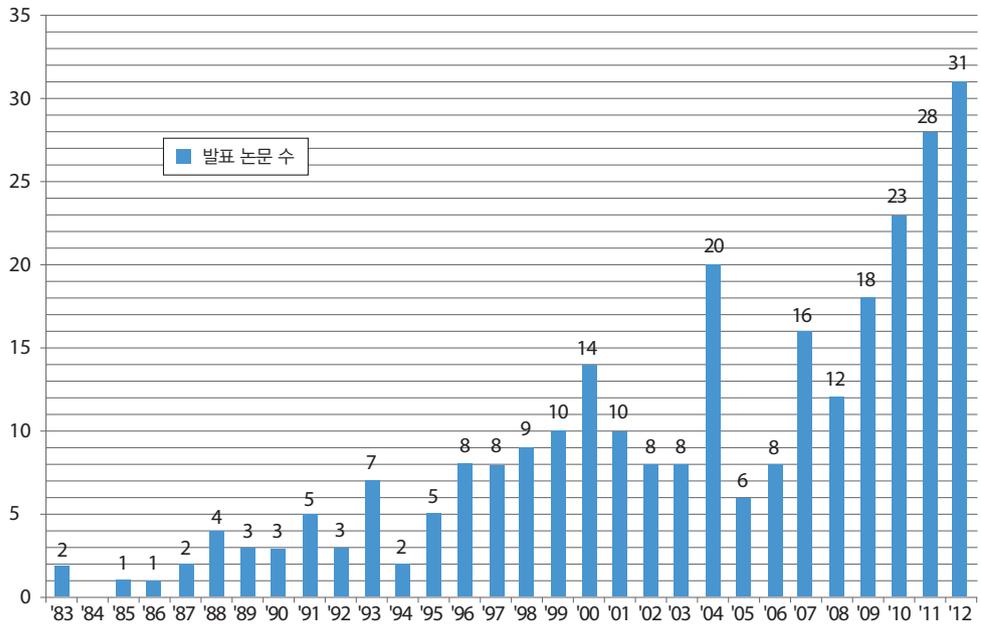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총 발표 논문수	28	24	34	28	38	31	42	44	37	30
SCI & SCIE	7	2	5	8	8	9	10	14	10	8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 발표 논문수	32	55	45	45	35	35	38	40	44	66
SCI & SCIE	8	20	12	11	16	12	18	23	27	31

연도별 전체 발표 논문 수



연도별 SCI/SCIE 발표 논문 수



주요논문

Author	Title	Journal	Year
Sunwoo IN, Cho HK, Oh SJ	Height, an important factor in the latency of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s	Electromyogr Clin Neurophysiol	1990 Apr- May;30(3):169-74
Sohn YH, Lee BI, Sunwoo IN, Kim KW, Suh JH	Effect of capsular infarct size on clinical presentation of stroke	Stroke	1990 Sep;21(9):1258-61
Lee BI, Lee BC, Hwang YM, Sohn YH, Jung JW, Park SC, et al	Prolonged ictal amnesia with transient focal abnormalities on magnetic resonance imaging	Epilepsia	1992 Nov- Dec;33(6):1042-6
Lee MS, Lee SA, Heo JH, Choi IS	A patient with a resting tremor and a lacunar infarction at the border between the thalamus and the internal capsule	Mov Disord	1993 Apr;8(2):244- 6
Lee MS, Marsden CD	Neurological sequelae following carbon monoxide poisoning clinical course and outcome according to the clinical types and brain computed tomography scan findings	Mov Disord	1994 Sep;9(5):550- 8
Lee MS, Choi YC, Lee SH, Lee SB	Sleep-related periodic leg movements associated with spinal cord lesions	Mov Disord	1996 Nov;11(6):719-22
Lee MS, Lee SB, Kim WC	Spasmodic dysphonia associated with a left ventrolateral putaminal lesion	Neurology	1996 Sep;47(3):827-8
Bang OY, Heo JH, Choi SA, Kim DI	Large cerebral infarction during praziquantel therapy in neurocysticercosis	Stroke	1997 Jan;28(1):211-3
Lee BI, Lee JD, Kim JY, Ryu YH, Kim WJ, Lee JH, et al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EEG relations in temporal lobe epilepsy	Neurology	1997 Oct;49(4):981-91
Lee MS, Lyoo CH, Kim WC, Kang HJ	Periodic bursts of rhythmic dyskinesia associated with spinal anesthesia	Mov Disord	1997 Sep;12(5):816-7
Lee MS, Kim WC	Intracranial hemorrhage associated with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report of seven patients and a meta-analysis	Neurology	1998 Apr;50(4):1160-3
Lee MS, Kim YD, Kim JT, Lyoo CH	Abrupt onset of transient pseudochooreoathetosis associated with proprioceptive sensory loss as a result of a thalamic infarction	Mov Disord	1998 Jan;13(1):184-6
Lee PH, Han SW, Heo JH	Isolated weakness of the fingers in cortical infarction	Neurology	1998 Mar;50(3):823-4
Lee MS, Kim YD, Im JH, Kim HJ, Rinne JO, Bhatia KP	123I-IPT brain SPECT study in essential tremor and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1999 Apr 22;52(7):1422-6
Park DC, Sohn YH, Lee PH	Neurologic deficits with isolated cortical venous congestion	Neurology	1999 Feb;52(3):671-2

Author	Title	Journal	Year
Lee PH, Nam HS, Lee KY, Lee BI, Lee JD	Serial brain SPECT images in a case of Sydenham chorea	Arch Neurol	1999 Feb;56(2):237-40
Lee MS, Kim YD, Lyoo CH	Oculogyric crisis as an initial manifestation of Wilson's disease	Neurology	1999 May 12;52(8):1714-5
Kim WJ, Park SC, Lee SJ, et al	The prognosis for control of seizures with medications in patients with MRI evidence for mesial temporal sclerosis.	Epilepsia	1999 Mar;40(3):290-3
Lee MS, Kim YD, Kim WC, Lyoo CH	Slow rhythmic dyskinesia of the shoulder: one idiopathic and two symptomatic cases	Mov Disord	1999 Nov;14(6):1049-51
Sohn YH, Jeong Y, Kim HS, Im JH, Kim JS	The brain lesion responsible for parkinsonism after carbon monoxide poisoning	Arch Neurol	2000 Aug;57(8):1214-8
Lee MS, Lyoo CH, Lee HJ, Kim YD	Hemichoreoathetosis following posterior parietal watershed infarction: was striatal hypoperfusion really to blame?	Mov Disord	2000 Jan;15(1):178-9
Lee KY, Sohn YH, Kim SH, Sunwoo IN	Basilar artery vasospasm in postpartum cerebral angiopathy	Neurology	2000 May 23;54(10):2003-5
Lee KY, Sohn YH, Baik JS, Kim GW, Kim JS	Arterial pulsatility as an index of cerebral microangiopathy in diabetes	Stroke	2000 May;31(5):1111-5
Lyoo CH, Oh SH, Joo JY, Chung TS, Lee MS	Hemidystonia and hemichoreoathetosis as an initial manifestation of moyamoya disease	Arch Neurol	2000 Oct;57(10):1510-2
Choi Y, Park G, Kim T, Sunwoo I, Steinert P, Kim S	Sporadic inclusion body myositis correlates with increased expression and cross-linking by transglutaminases 1 and 2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000;275(12):8703-10
Park SA, Heo K, Koh R, Chang JW, Lee BI	Ictal automatisms with preserved responsiveness in a patient with left mesial temporal lobe epilepsy	Epilepsia	2001 Aug;42(8):1078-81
Seo SW, Heo JH, Lee KY, et al	Localization of Claude's syndrome	Neurology	2001 Dec 26;57(12):2304-7
Lee KY, Heo JH, Lee SI, Yoon PH	Rescue treatment with abciximab in acute ischemic stroke	Neurology	2001 Jun 12;56(11):1585-7
Lee MS, Kim HS, Cho EK, Lim JH, Rinne JO	COMT genotype and effectiveness of entacapone in patients with fluctuating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2002 Feb 26;58(4):564-7
Lee BI, Heo K, Kim JS, et al	Syndromic diagnosis at the epilepsy clinic: role of MRI in lobar epilepsies	Epilepsia	2002 May;43(5):496-504
Park SA, Kim GS, Lee SK, Lim SR, Heo K, Park SC, et al	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s relate to 1H-MRS-detected metabolic abnormalities in mesial temporal lobe epilepsy	Epilepsia	2002 Nov;43(11):1385-9

Author	Title	Journal	Year
Lee MS, Oh SH, Lee KR	Transient repetitive movements of the limbs in patients with acute basilar artery infarction	Neurology	2002 Oct 8;59(7):1116-7
Seo SW, Lee BI, Lee JD, Park SA, Kim KS, Kim SH, et al	Thyrotoxic autoimmune encephalopathy: a repea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tudy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03 Apr;74(4):504-6
Kim JS, Sohn YH	Current status of Parkinson's disease treatment in Korea	Parkinsonism Relat Disord	2003 Aug;9 Suppl 2:S99-104
Oh SH, Lee JG, Na SJ, Park JH, Choi YC, Kim WJ	Prediction of early clinical severity and extent of neuronal damage in anterior-circulation infarction using the initial serum neuron-specific enolase level	Arch Neurol	2003 Jan;60(1):37-41
Heo JH, Kim SH, Lee KY, Kim EH, Chu CK, Nam JM	Increase in plasma matrix metalloproteinase-9 in acute stroke patients with thrombolysis failure	Stroke	2003 Jun;34(6):e48-50
Heo JH, Lee KY, Kim SH, Kim DI	Immediate reocclusion following a successful thrombolysis in acute stroke: a pilot study	Neurology	2003 May 27;60(10):1684-7
Kim HS, Lee MS	Frequencies of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in alcohol dehydrogenase7 gene in patients with multiple system atrophy and controls	Mov Disord	2003 Sep;18(9):1065-7
Han SW, Kim SH, Kim JK, Park CH, Yun MJ, Heo JH	Hemodynamic changes in limb shaking TIA associated with anterior cerebral artery stenosis	Neurology	2004 Oct 26;63(8):1519-21
Kang SY, Lee MH, Lee SK, Sohn YH	Levodopa-responsive parkinsonism in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with thin corpus callosum	Parkinsonism Relat Disord	2004 Oct;10(7):425-7
Kang SY, Sohn YH, Lee IK, Kim JS	Unilateral periodic limb movement in sleep after supratentorial cerebral infarction	Parkinsonism Relat Disord	2004 Oct;10(7):429-31
Seo SW, Shin HY, Kim SH, Han SW, Lee KY, Kim SM, et al	Vestibular imbalance associated with a lesion in the nucleus prepositus hypoglossi area	Arch Neurol	2004 Sep;61(9):1440-3
Lee JY, Kim KS, Song SK, Ahn SH, Nam HS, Heo JH	Atypical territorial infarction in moyamoya disease	Neurology	2005 Dec 27;65(12):E28
Shin HW, Kang SY, Sohn YH	Dopaminergic influence on disturbed spatial discrimination in Parkinson's disease	Mov Disord	2005 Dec;20(12):1640-3
Kang SY, Sohn YH, Kim HS, Lyoo CH, Lee MS	Corticospinal disinhibition in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	Clin Neurophysiol	2006 Jan;117(1):57-60
Kim J, Park JH, Ryu YH, Lee KY	Tc-99m ECD SPECT and FDG PET in partial status epilepticus resulting from cerebral sparganosis	Clin Nucl Med	2006 May;31(5):307-9

Author	Title	Journal	Year
Heo K, Han SD, Lim SR, Kim MA, Lee BI	Patient awareness of complex partial seizures	Epilepsia	2006 Nov;47(11):1931-5
Nam HS, Han SW, Lee JY, Ahn SH, Ha JW, Rim SJ, et al	Association of aortic plaque with intracranial atherosclerosis in patients with stroke	Neurology	2006 Oct 10;67(7):1184-8
Han SW, Kim SH, Shin HY, Choi HY, Park CH, Kim JK, et al	Paradoxically accelerated fatal brain herniation following thrombolytic therapy in acute ischemic stroke	Neurocrit Care	2006;5(1):35-8
Cho HJ, Song DB, Choi HY, Heo JH	Lenticulostriate-medullary artery anastomoses in moyamoya disease	Neurology	2007 Apr 10;68(15):E21
Cho HJ, Song SK, Lee DW, Choi HY, Heo JH	Carotid-subclavian steal phenomenon	Neurology	2007 Feb 27;68(9):702
Lee KY, Han SW, Kim SH, Nam HS, Ahn SW, Kim DJ, et al	Early recanalization after intravenous administration of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as assessed by pre- and post-thrombolytic angiography in acute ischemic stroke patients	Stroke	2007 Jan;38(1):192-3
Shin HW, Ye BS, Kim J, Kim SM, Sohn YH	The contribution of a spinal mechanism in developing peripheral myoclonus: a case report	Mov Disord	2007 Jul 15;22(9):1350-2
Lyoo CH, Lee SY, Song TJ, Lee MS	Abnormal temporal discrimination threshold in patients with multiple system atrophy	Mov Disord	2007 Mar 15;22(4):556-9
Choi HY, Lee JE, Jung YH, Cho HJ, Kim DJ, Heo JH	Progression of isolated middle cerebral artery stenosis into moyamoya disease	Neurology	2007 Mar 20;68(12):954
Lyoo CH, Aalto S, Rinne JO, Lee KO, Oh SH, Chang JW, et al	Different cerebral cortical areas influence the effect of subthalamic nucleus stimulation on parkinsonian motor deficits and freezing of gait	Mov Disord	2007 Nov 15;22(15):2176-82
Shin HW, Kang SY, Sohn YH	Disturbed surround inhibition in preclinical parkinsonism	Clin Neurophysiol	2007 Oct; 118(10):2176-9
Lyoo CH, Kim DJ, Chang H, Lee MS	Moyamoya disease presenting with paroxysmal exercise-induced dyskinesia	Parkinsonism Relat Disord	2007 Oct;13(7):446-8
Lee PH, Yong SW, An YS	Changes in cerebral glucose metabolism in patients with Parkinson disease with dementia after cholinesterase inhibitor therapy	J Nucl Med	2008 Dec;49(12):2006-11
Lyoo CH, Jeong Y, Ryu YH, Lee SY, Song TJ, Lee JH, et al	Effects of disease duration on the clinical features and brain glucose metabolism in patients with mixed type multiple system atrophy	Brain	2008 Feb;131(Pt 2):438-46

Author	Title	Journal	Year
Lyoo CH, Prokisch H, Meitinger T, Lee SY, Kim do H, Lee MS	Anticholinergic-responsive gait freezing in a patient with pantothenate kinase-associated neurodegeneration	Mov Disord	2008 Jan 30;23(2):283-4
Doh WY, Kang SY, Sohn YH	Enhanced spatial discrimination in paretic hands	Clin Neurophysiol	2008 May;119(5):1153-7
Kim J, Choi HY, Nam HS, Lee JY, Heo JH	Mechanism of tuberothalamic infarction	Eur J Neurol	2008 Oct;15(10):1118-23
Lee PH, Lim TS, Shin HW, Yong SW, Nam HS, Sohn YH	Serum cholesterol levels and the risk of multiple system atrophy: a case-control study	Mov Disord	2009 Apr 15;24(5):752-8
Shin HW, Sohn YH, Hallett M	Hemispheric asymmetry of surround inhibition in the human motor system	Clin Neurophysiol	2009 Apr;120(4):816-9
Cho YJ, Heo K, Kim WJ, Jang SH, Jung YH, Ye BS, et al	Long-term efficacy and tolerability of topiramate as add-on therapy in refractory partial epilepsies: an observational study	Epilepsia	2009 Aug;50(8):1910-9
Cho YJ, Han SD, Song SK, Lee BI, Heo K	Palilalia, echolalia, and echopraxia-palipraxia as ictal manifestations in a patient with left frontal lobe epilepsy	Epilepsia	2009 Jun;50(6):1616-9
Lee JE, Shin HW, Kim KS, Sohn YH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restless legs syndrome in patients with Parkinson disease	Mov Disord	2009 Mar 15;24(4):579-82
Lee BI, Yi S, Hong SB, Kim MK, Lee SA, Lee SK, et al	Pregabalin add-on therapy using a flexible, optimized dose schedule in refractory partial epilepsies: a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multicenter trial	Epilepsia	2009 Mar;50(3):464-74
Park HJ, Cho HJ, Kim YD, Lee DW, Choi HY, Kim SM, et al	Comparison of the characteristics for in-hospital and out-of-hospital ischaemic strokes	Eur J Neurol	2009 May;16(5):582-8
Cho KJ, Lee BI, Cheon SY, Kim HW, Kim HJ, Kim GW	Inhibition of apoptosis signal-regulating kinase 1 reduces endoplasmic reticulum stress and nuclear huntingtin fragments in a mouse model of Huntington disease	Neuroscience	2009 Nov 10;163(4):1128-34
Kim YD, Choi HY, Jung YH, Nam CM, Yang JH, Cho HJ, et al	Mirror pattern of cerebral artery atherosclerosis in patients with ischaemic stroke	Eur J Neurol	2009 Oct;16(10):1159-64
Cho HJ, Choi HY, Kim YD, Nam HS, Han SW, Ha JW, et al	Transoesophageal echocardiography in patients with acute stroke with sinus rhythm and no cardiac disease history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10 Apr;81(4):412-5

Author	Title	Journal	Year
Lee JY, Lee KY, Suh SH	Different meaning of vessel signs in acute cerebral infarction	Neurology	2010 Aug 17;75(7):668
Cho HJ, Yang JH, Jung YH, Kim YD, Choi HY, Nam HS, et al	Cortex-sparing infarctions in patients with occlusion of the middle cerebral artery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10 Aug;81(8):859-63
Ye BS, Kim YD, Nam HS, Lee HS, Nam CM, Heo JH	Clinical manifestations of cerebellar infarction according to specific lobular involvement	Cerebellum	2010 Dec;9(4):571-9
Lee JE, Kim KS, Shin HW, Sohn YH	Factors related to clinically probable REM sleep behavior disorder in Parkinson disease	Parkinsonism Relat Disord	2010 Feb;16(2):105-8
Lee JE, Park B, Song SK, Sohn YH, Park HJ, Lee PH	A comparison of gray and white matter density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dementia and dementia with Lewy bodies using voxel-based morphometry	Mov Disord	2010 Jan 15;25(1):28-34
Shin HW, Kang SY, Hallett M, Sohn YH	Extended surround inhibition in idiopathic 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	Clin Neurophysiol	2010 Jul;121(7):1138-41
Choi HY, Yang JH, Cho HJ, Kim YD, Nam HS, Heo JH	Systemic atherosclerosis in patients with perforating artery territorial infarction	Eur J Neurol	2010 Jun 1;17(6):788-93
Lyoo CH, Ryu YH, Lee MS	Topographical distribution of cerebral cortical thinning in patients with mild Parkinson's disease without dementia	Mov Disord	2010 Mar 15;25(4):496-9
Lee MS, Lyoo CH, Lee MJ, Sim J, Cho H, Choi YH	Impaired finger dexterity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correlates with discriminative cutaneous sensory dysfunction	Mov Disord	2010 Nov 15;25(15):2531-5
Lee SY, Choi YC, Kim JH, Kim WJ	Serum neuron-specific enolase level as a biomarker in differential diagnosis of seizure and syncope	J Neurol	2010 Oct;257(10):1708-12
Seo JH, Yong SW, Song SK, Lee JE, Sohn YH, Lee PH	A case-control study of multiple system atrophy in Korean patients	Mov Disord	2010 Sep 15;25(12):1953-9
Song TJ, Kim SJ, Kim GS, Choi YC, Kim WJ	The prevalence of thyrotoxicosis-related seizures	Thyroid	2010 Sep;20(9):955-8
Heo JH, Kim YD, Nam HS, Hong KS, Ahn SH, Cho HJ, et al	A computerized in-hospital alert system for thrombolysis in acute stroke	Stroke	2010 Sep;41(9):1978-83
Kim YD, Cha MJ, Kim J, Lee DH, Lee HS, Nam CM, et al	Ischaemic cardiovascular mortality in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according to CHADS(2) score	Thromb Haemost	2011 Apr;105(4):712-20

Author	Title	Journal	Year
Kim J, Cha MJ, Lee DH, Lee HS, Nam CM, Nam HS, et al	The association between cerebral atherosclerosis and arterial stiffness in acute ischemic stroke	Atherosclerosis	2011 Dec;219(2):887-91
Song SK, Lee SK, Lee JJ, Lee JE, Choi HS, Sohn YH, et al	Blood-brain barrier impairment is functionally correlated with clinical severity in patients of multiple system atrophy	Neurobiol Aging	2011 Dec;32(12):2183-9
Cha MJ, Kim SW, Kim EH, Kim YD, Nam HS, Heo JH	Teaching NeuroImages: isolated sensory loss of the arm sparing the hand in cortical infarction	Neurology	2011 Jan 4;76(1):e3
Cho HJ, Jung YH, Kim YD, Nam HS, Kim DS, Heo JH	The different infarct patterns between adulthood-onset and childhood-onset moyamoya disease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11 Jan;82(1):38-40
Lee JE, Song SK, Sohn YH, Lee PH	Uric acid as a potential disease modifier in patients with multiple system atrophy	Mov Disord	2011 Jul;26(8):1533-6
Oh J, Sunwoo MK, Sunwoo IN	Serial electrophysiological changes in uraemic patients with tetrodotoxin intoxication	Clin Neurophysiol	2011 Nov; 122(11):2310-1
Na SJ, So SH, Lee KO, Choi YC	Elevated serum level of interleukin-32alpha in the patients with myasthenia gravis	J Neurol	2011 Oct;258(10):1865-70
Lyoo CH, Ryu YH, Lee MS	Cerebral cortical areas in which thickness correlates with severity of motor deficits of Parkinson's disease	J Neurol	2011 Oct; 258(10):1871-6
Heo K, Rhee Y, Lee HW, Lee SA, Shin DJ, Kim WJ, et al	The effect of topiramate monotherapy on bone mineral density and markers of bone and mineral metabolism in premenopausal women with epilepsy	Epilepsia	2011 Oct;52(10):1884-9
Kim YD, Lee JH, Jung YH, Cha MJ, Choi HY, Nam CM, et al	Effect of warfarin withdrawal on thrombolytic treatment in patients with ischaemic stroke	Eur J Neurol	2011 Sep;18(9):1165-70
Nam HS, Lee KY, Kim YD, Choi HY, Cho HJ, Cha MJ, et al	Failure of complete recanalization is associated with poor outcome after cardioembolic stroke	Eur J Neurol	2011 Sep;18(9):1171-8
Lee PH, Kim HS, Lee JE, Choi Y, Hong JY, Nam HS, et al	Comparison of endothelial progenitor cells in Parkinson's disease patients treated with levodopa and levodopa/COMT inhibitor	PLoS One	2011;6(6):e21536
Lee KO, Nam JS, Ahn CW, Hong JM, Kim SM, Sunwoo IN, et al	Insulin resistance i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peripheral and autonomic neuropathy in Korean type 2 diabetic patients	Acta Diabetol	2012 Apr;49(2):97-103

Author	Title	Journal	Year
Baek A, Park HJ, Na SJ, Shim DS, Moon JS, Yang Y, et al	The expression of BAFF in the muscles of patients with dermatomyositis	J Neuroimmunol	2012 Aug 15;249(1-2):96-100
Kim J, Kim YD, Song TJ, Park JH, Lee HS, Nam CM, et al	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 is associated with poor clinical outcome in acute cerebral infarction	Thromb Haemost	2012 Aug;108(2):349-56
Hong JY, Lee JE, Sohn YH, Lee PH	Neurocognitive and atrophic patterns in Parkinson's disease based on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J Neurol	2012 Aug;259(8):1706-12
Shin S, Lee JE, Hong JY, Sunwoo MK, Sohn YH, Lee PH	Neuroanatomical substrates of visual hallucinations in patients with non-demented Parkinson's disease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12 Dec;83(12):1155-61
Choi SH, Jung TM, Lee JE, Lee SK, Sohn YH, Lee PH	Volumetric analysis of the substantia innominata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ccording to cognitive status	Neurobiol Aging	2012 Jul;33(7):1265-72
Lee PH, Lee JE, Kim HS, Song SK, Lee HS, Nam HS, et al	A randomized trial of mesenchymal stem cells in multiple system atrophy	Ann Neurol	2012 Jul;72(1):32-40
Lee DH, Kim J, Lee HS, Cha MJ, Kim YD, Nam HS, et al	Low ankle-brachial index is a predictive factor for initial severity of acute ischaemic stroke	Eur J Neurol	2012 Jun;19(6):892-8
Kim J, Song TJ, Park JH, Lee HS, Nam CM, Nam HS, et al	Different prognostic value of white blood cell subtypes in patients with acute cerebral infarction	Atherosclerosis	2012 Jun;222(2):464-7
Nam HS, Cha MJ, Kim YD, Kim EH, Park E, Lee HS, et al	Use of a handheld, computerized device as a decision support tool for stroke classification	Eur J Neurol	2012 Mar;19(3):426-30
Cha MJ, Kim YD, Nam HS, Kim J, Lee DH, Heo JH	Stroke mechanism in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according to the CHADS2 and CHA2 DS2 -VASc scores	Eur J Neurol	2012 Mar;19(3):473-9
Lee JE, Cho KH, Kim M, Sohn YH, Lee PH	The pattern of cortical atrophy in Parkinson's disease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according to the timing of cognitive dysfunction	J Neurol	2012 Mar;259(3):469-73
Shin J, Choi S, Lee JE, Lee HS, Sohn YH, Lee PH	Subcortical white matter hyperintensities within the cholinergic pathways of Parkinson's disease patients according to cognitive status	J Neurol Neurosurg Psychiatry	2012 Mar;83(3):315-21

Author	Title	Journal	Year
Kang SY, Hallett M, Sohn YH	Synchronized finger exercise reduces surround inhibition	Clin Neurophysiol	2012 Nov;123(11):2227-31
Nam HS, Kim HC, Kim YD, Lee HS, Kim J, Lee DH, et al	Long-term mortality in patients with stroke of undetermined etiology	Stroke	2012 Nov;43(11):2948-56
Kim J, Lee DH, Cha MJ, Song TJ, Park JH, Lee HS, et al	Low ankle-brachial index is an independent predictor of poor functional outcome in acute cerebral infarction	Atherosclerosis	2012 Sep;224(1):113-7
Shin JY, Ahn YH, Paik MJ, Park HJ, Sohn YH, Lee PH	Elevated homocysteine by levodopa is detrimental to neurogenesis in parkinsonian model	PLoS One	2012;7(11):e50496
Shin S, Park E, Lee DH, Lee KJ, Heo JH, Nam HS	An objective pronator drift test application (iPronator) using handheld device	PLoS One	2012;7(7):e41544
Kim J, Song TJ, Song D, Lee HS, Nam CM, Nam HS, et al	Interarm blood pressure difference and mortality in patients with acute ischemic stroke	Neurology	2013 Apr 16;80(16):1457-64
Cha MJ, Lee HS, Kim YD, Nam HS, Heo JH	The association between asymptomatic coronary artery disease and CHADS and CHADS -VASc scores in patients with stroke	Eur J Neurol	2013 Apr 5
Lee JE, Song SK, Hong JY, Sunwoo MK, Park HJ, Sohn YH, et al	Changes in the blood-brain barrier status closely correlate with the rate of disease progression in patients with multiple system atrophy: a longitudinal study	Parkinsonism Relat Disord	2013 Apr;19(4):450-2
Sunwoo MK, Kim KM, Hong JY, Sohn YH, Lee PH	Levodopa-induced dyskinesia in a patient who has normal presynaptic dopaminergic neurons	Mov Disord	2013 Feb 5
Kang SY, Hallett M, Sohn YH	Exercise-induced strengthening of inter-digital connections in musicians	Clin Neurophysiol	2013 Mar 26
Shin HY, Park HJ, Choi YC, Kim SM	Clinical and electromyographic features of radiation-induced lower cranial neuropathy	Clin Neurophysiol	2013 Mar;124(3):598-602
Song TJ, Kim J, Lee HS, Nam CM, Nam HS, Heo JH, et al	The frequency of cerebral microbleeds increases with CHADS(2) scores in stroke patients with 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Eur J Neurol	2013 Mar;20(3):502-8

3. 진료

■ 검사실의 역사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경계 검사는 1969년 정신과의 김채원 교수와 신경과의 이수익 교수에 의하여 8채널 뇌파기계(Grass model 6)가 도입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근전도검사기기는 1971년도에 재활의학과(당시 정형외과 소속)에서 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신경과가 내과의 한 분과로 소속되어 있었고 검사기기들은 내과가 아닌 타과 소속이었기 때문에 신경내과에서 신경계 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없었으며 이수익 교수가 도미한 이후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해졌다. 1983년 3월 신경과학교실이 신설되고 김기환 초대 교수의 노력으로 그해 12월에 비로소 뇌파검사, 근전도검사 및 유발전위검사가 고루 갖추어진 신경학 검사실이 마련되었다. 신경학 검사실의 위치는 당시 본부건물 2층 중환자실 옆이었다. 1989년 이후에는 신경학 검사실에서 신경근육병리검사도 시행되었고, 1993년부터는 경두개 초음파검사도 시행되었다. 초창기 신경학 검사실에서는 뇌파검사와 근전도검사가 함께 시행되었는데 1997년에는 당시 별관 2층에 근전도검사실이 이전하면서 기존의 신경학 검사실에서는 주로 뇌파검사가 시행되었으며 뇌혈류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장되었다. 그때부터 신경학 검사실은 뇌파검사실로 불려졌다. 1989년도에는 당시 별관 8층 87병동에 24시간 비디오-뇌파 검사실이 신설되었다. 2005년도에 세브란스 새 병원이 개원하면서 검사실들도 새로운 병원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뇌파, 근전도, 뇌혈류 검사들은 5층 뇌신경센터 내에 외래와 함께 자리잡은 검사실에서 시행되었다. 운동검사실과 인지검사실은 새로운 병원 개원 후 독립된 공간을 갖추게 되었다. 뇌전증집중검사실과 수면다원검사실은 새 병원 11층에 자리를 잡았다.

신경계 검사실 기사로는 서영숙이 1971년 처음으로 발령받아 뇌파를 담당하였다. 신경과학교실이 창립된 1983년에는 검사실 직원 수가 모두 5명이었는데 직원의 충원이 지속되어 2013년 현재에는 26명으로 늘어나 임상병리사로는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고운경, 김정규, 이승준, 조성훈, 김영찬, 박진, 강진호, 최정혜, 유은지, 이종찬, 한민호, 이한미, 김동우, 구자균,

신경과 검사실 직원현황(2013년 5월 현재)

직무		
임상병리사	정규직	15
	계약직	4
	인턴	3
임상심리사		2
의료기수		1
기능원		1
계		26

고아름, 송재환, 오정선, 여유진, 강운석이, 강남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박명화, 채선영, 이창용이 근무 중이며 임상심리사로 조희란과 박정란이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 중 이다. 구숙진은 의료기수, 권순주는 기능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검사실을 거쳐간 직원들은 서영숙, 남도희, 김효정, 한난전, 서경희, 유재형, 양명숙, 김귀란, 박옥희, 손영미, 김명자, 정말숙, 오서영^{현 신경과학교실 비서}, 이해원, 이시연, 이진숙, 조연아, 최진경, 이민녕, 이성기, 권오운, 김희선, 민영진, 안대수, 이성수, 문재훈, 진민주, 배지현, 라석환, 김보미, 조인호, 이나연, 마여경, 이민혜, 김수진, 엄효진, 김민경, 이진숙, 황은희, 김솔지 등이 있다.

■ 뇌파검사실/뇌전증집중검사실/뇌유발전위검사실/수면다원검사실

세브란스병원 뇌파검사실의 시초는 1969년 이수익 교수가 8채널 뇌파기계Grass를 도입하여 정신과 김채원 교수와 함께 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당시 1년간(1969년 3월 ~ 1970년 2월) 224명의 뇌파 검사를 시행한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최초의 검사실은 제증관 지하 1층에 위치하였다. 1971년에 최초의 뇌파기사로 서영숙이 발령받았고 1975년에 남도희, 1977년에 김효정, 1979년에 고운경 기사가 발령받았다. 고운경 기사는 지금까지 현직으로 근무하면서 1987년에 기사로서는 국내 최초로 1년간 미국 조지아 의대에서 뇌파 검사 연수를 받았다.



제6내과(신경내과) 뇌파검사실의 고운경 뇌파기사(1976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비디오 뇌파 검사기계(1988년)

장비는 조금씩 증가되어 1976년에 16채널 뇌파기계Grass가 추가되었고 1983년에 신경과로 독립하면서 당시 본부건물 2층에 신경학검사실이 신설되면서 뇌파검사실이 확장 이전하였다. 당시에 17채널 Nihon-Kohden 장비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1988년에 이병인, 허균 교수가 미국에서 본격적인 뇌전증 치료 및 수술프로그램을 국내



Nihon Kohden 21ch 비디오 뇌파 장비(1993년)



24시간 비디오-뇌파 검사실의 오서영 뇌파기사(1995년)



뇌파판독실(2004년)



뇌전증집중검사실의 controlling room 내부(2005년)

에 도입하면서 뇌전증 수술 전 환자 평가 및 정확한 뇌전증 진단을 위한 24시간 비디오-뇌파 검사실 뇌전증 집중검사실이 1989년에 당시 별관 8층 신경과 병동에 개소되었다. 장비는 Grass-Telefactor의 아날로그 타입 24시간 비디오 뇌파 장비였으며 2005년 이전할 때까지 4개의 모니터링 병실을 운영하였다. 1983년에 수술 중 감시를 위한 뇌유발전위검사실이 신경외과에 설치되었으나, 1993년부터 신경과로 이전 통합 운영되었다. 2004년에는 허경 교수 지도하에 별관 8층에 수면다원검사실이 개소되어 뇌전증집중검사실과 같이 운영되었다.

2005년 5월에 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하면서 검사실들이 새 병원으로 확장 이전하였는데, 5층 뇌신경센터에 6개의 디지털 뇌파검사실 소아병원 1실, 하나의 뇌유발전위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층 신경과 병동에 7개의 뇌전증집중검사실과 2개의 수면다원검사실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2개의 판독실과 1개의 통합조정실, 1개의 서버실을 운영 중이다. 2013년 현재 13명의 뇌파기사가 근무 중이며, 장비는 7대의 64채널 혹은 128채널 디지털 비디오뇌파기계 Grass-Telefactor, 2대의 수면다원검사기계, 3대의 이동형 뇌파검사기계, 1대의 뇌자극기계, 그리고 MEP, SSEP, BAEP 등의 다양한 수술 중 감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검사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뇌파 검사의 경우 1978년에 2,194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12,317건으로 약

600% 증가하였으며, 24시간 비디오-뇌파검사의 경우 1989년에 74건에서 2012년에는 3,089건, 유발전위수술 중 감시 포함은 1985년 265건에서 2012년 1,975건, 수면다원검사는 2004년 50건에서 2012년 463건으로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 신경생리검사실(근전도검사실)

세브란스병원에서 근전도검사가 시작된 해는 1971년으로 당시 재활의학과에서 국내 최초로 근전도검사기기를 구비하여 근전도검사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까지 신경내과에서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독립적인 신경생리검사실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상황은 1980년대 초반까지도 비슷하여 1982년 선우일남이 미국에서 근전도를 연수하고 귀국한 이후에도 때에 따라 재활의학과 근전도검사실을 이용하는 정도였으며 차츰 이것마저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러던 중 1983년 DISA 1500 digital EMG system을 구입하면서 세브란스병원 신경과학교실은 독자적으로 신경생리검사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1983년 당시 뇌파의료기사였던 유재형이 최초로 근전도 의료기사로 근무를 하였다. 처음에는 요일제로 뇌파검사와 신경전도검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후 김귀란^{1987~1990}, 박옥희^{1984~1993}, 이민아^{1995~1996}, 그리고 김명자^{1993~2001}가 근무하였고 현재 광진^{2001~2013년 현재} 의료기사가 신경생리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사실은 처음 1983년 당시 본부건물 2층 중환자실 옆에 뇌파검사실과 함께 신경학 검사실에 위치하였다. 1997년에는 신경생리검사실이 뇌파검사실과 분리되어 당시 별관 현 어린이병원 2층에 자리잡았다. 신경생리검사실은 2005년 5월부터 현 위치인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뇌신경센터에 자리하였으며 3개의 검사실과 하나의 판독실을 두고 있다. 신경생리검사장비는 그동안 DISA 1500 digital EMG system^{1983년 도입}, Cadwell 5200A^{1991년 도입}, Cadwell Excel^{1991년 도입}, Toennies Neuroscreen^{1997년 도입}, Schwarzer topas EMG^{Natus; 2009년 도입} 등이 사용되었으



현 신경생리검사실(근전도검사실)



현 신경생리검사 판독실(근전도판독실)

며, 현재 Sierra Wave EMG system(Cadwell Lab Inc.; 2006년과 2012년 도입 두 대, Medelec Synergy(Oxford Instruments Medical; 2002년 도입, TSA-II Neuro Sensory Analyzer(Medoc; 2005년 도입) 를 구비하여 신경근육 질환 환자 진료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 신경근육병리검사실

선우일남이 1989년에 알라바마대학에서 근육병리 연수를 다녀온 이후 근육과 신경의 조직 검사를 시작한 것이 신경근육병리검사실의 시작이다. 신경근육병리검사는 신경학 검사실 내에서 시행되었다. 이 당시에는 병리학과에서도 처음 신경근육병리를 전공한 병리의사가 거의 없던 시절이어서 선우일남이 직접 근육과 신경의 병리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하였다. 그 이후 김승민이 Mayo clinic에 연수를 다녀오고 1997년 원주 연세의대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복귀한 이후 별관 2층 근전도실에서 신경조직검사를 이전에 비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2005년 세브란스 새 병원^{현 본관}이 완공된 이후 신경과가 새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신경근육병리검사실도 현 위치인 뇌신경센터 안에 자리잡았다. 2013년 현재는 병리학과 김세훈 교수가 말초신경 및 근육조직검사를 시행하고 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말초신경갈래검사만 신경근육병리검사실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경근육질환 진료부에서 2002년 도입한 Medelec Synergy(Oxford Instruments Medical)



신경근육질환 진료부에서 2005년 도입한 TSA-II Neuro Sensory Analyzer(Medoc)



신경근육질환 진료부에서 2006년 도입한 Sierra Wave EMG system(Cadwell Lab Inc.)

■ 뇌혈류검사실

세브란스병원에서 뇌혈관초음파의 역사는 1993년 손영호가 경두개 초음파(transcranial doppler; TCD)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뇌혈류검사실은 구 본부건물 2층 중환자실 옆에 있었던 신경학 검사실 안에 위치하였다 1997년부터 뇌혈류검사실의 크기를 확장하였고, 새 병원이 새로 개원한 2005부터는 본관 5층 뇌신경센터 내에 독립된 뇌혈류검사실과 판독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는 새로운 경동맥초음파(carotid duplex; CD)장비를 도입하게 되면서 보다 양질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여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말초혈관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ABIankle brachial index, PWVpulse wave velocity, central blood pressure 기기를 사용 중에 있다. 처음 뇌혈류 검사를 도입할 당시에는 의사에 의해 검사를 진행하다 1999년도부터 구숙진이 검사를 함께 시행했으며, 새 병원 개원 후부터는 최정혜 기사2005년~현재와 한민호 기사2010년~현재가 뇌졸중 파트 전임의들과 함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시간제로 기사들이 근무하면서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뇌혈류검사를 시행하였고, 현재까지 연 4,000TCD, CD, ABI&PWV 등을 포함한 전체진수건의 많은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경동맥초음파는 메디슨 ACCUIX XQ2005년 도입-현재, Philips iU22 2009년 도입-현재를 사용하고 있고, 경두개 초음파는 COMPANION III2004년 도입, TC-80802005년 도입, ABI는 Colin VP-10002006년-현재, Central BP는 SPHYGMOCOR-CPV2012년-현재를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다.



뇌혈류검사실(2013년)



경두개 초음파검사기기(2013년)



경동맥 초음파검사기기(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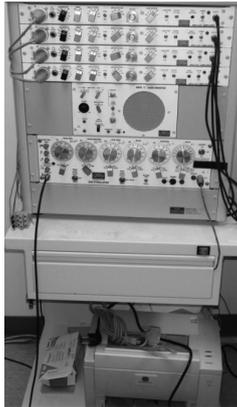
■ 운동검사실

2005년 신경과 외래가 새 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현재의 운동검사실이 신설되었다. 운동검사실에서는 운동질환척도검사, 동영상 촬영, 진전 분석(tremor analysis), 후각기능검사, 보툴리눔독소 주사치료 시의 근전도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두개자극술(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공간은 신경외과의 정위기능 신경외과 진료부(functional neurosurgery section)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신경외과에서는 수술상담, 뇌심부자극술 기계 조절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외에 신경퇴행성질환 연구강사와 연구간호사가 운동검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운동검사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로는 MAGSTIM 200 mono pulse 2기, BiStim 1기, magnetic coil 1기 이상 Jali Medical, Inc. stimulator set S48 stimulator 1기, IP511 A.C. amplifier 4기, AM10 audio monitor 1기; 이상 Grass Technologies, Nihon Kohden Neuropack MS-210BK Demo, PiexotronTM coupler KISTLER type 5134가 있다.



Tremor recording system(PiexotronTM coupler, KISTLER type 5134)



Stimulator(S48 stimulator, IP511 A.C. amplifier, AM10 audio monitor; Grass Technologies)



TMS stimulator and coil(MAGSTIM 200 mono pulse, BiStim, magnetic coil; Jali Medical, Inc.)



EMG system(Neuropack MS-210BK, NIHON KOHDEN)

■ 인지검사실

신경과 인지검사실은 2004년 처음으로 신설되어 인지검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신설 당시에는 전문인력이 없이 전공의와 임상병리사가 상황에 맞춰 검사를 시행하였다. 2005년 새 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2개의 독립된 검사실을 갖추게 되었으며 2008년에야 비로소

임상심리사를 선발하여 체계화된 검사체계를 구축하였다. 2008년 김수진^{2008.3~2010.2}이 처음으로 근무하였고, 2009년에는 엄효진^{2009.3~2009.11}이 함께 근무하였다. 2010년에 들어서는 김민경^{2010.3~2012.2}, 이진숙^{2010.4~2012.3}이 근무하였고, 2011년에는 황은희^{2011.4~2013.4}와 김솔지^{2011.3~2012.4}가 근무를 시작하였다. 조희란^{2012.3~}과 박정란^{2012.4~}은 2012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3년 현재까지 인지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사로는 주로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외에 Mini-Mental State Exam, Beck's Depression Inventory 등의 검사를 하고 있다.

인지검사실은 역사는 길지 않으나 전문적인 인력이 안정적으로 충원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검사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와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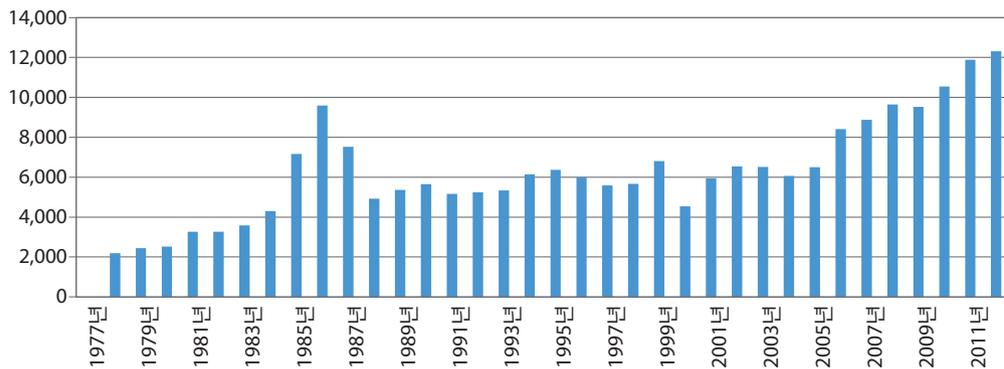
■ 검사실적

신촌세브란스병원 검사실적(1971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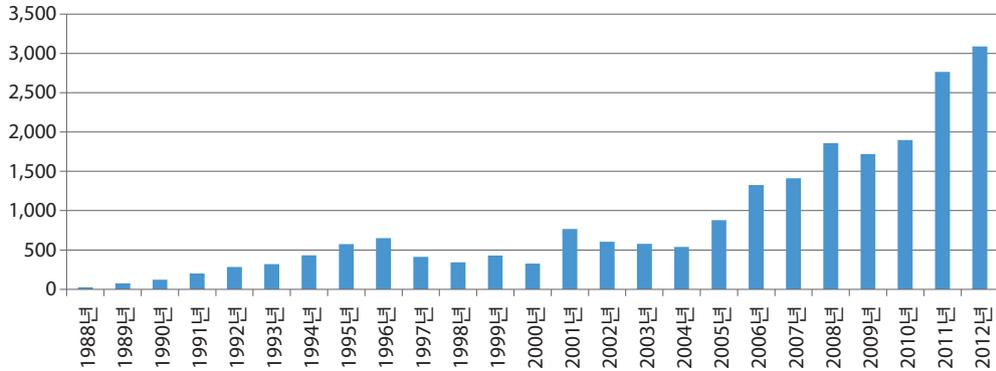
연도	뇌파검사	Video EEG monitoring	수면다원 검사	신경생리 검사	유발전위 검사	뇌혈류검사	인지검사	운동기능 검사
1978년	2,194							
1979년	2,445							
1980년	2,519							
1981년	3,266							
1982년	3,269							
1983년	3,580			63				
1984년	4,297			1,266	12			
1985년	7,162			2,325	265			
1986년	9,598			2,878	517			
1987년	7,525			2,237	314			
1988년	4,927	25		3,824	667			
1989년	5,364	74	2	3,744	972			
1990년	5,647	123	9	2,577	199			
1991년	5,168	200	5	2,265	841			
1992년	5,238	284	2	3,135	570			
1993년	5,328	321	1	3,101	294			
1994년	6,138	432	0	3,221	87	792		

연도	뇌파검사	Video EEG monitoring	수면다원 검사	신경생리 검사	유발전위 검사	뇌혈류검사	인지검사	운동기능 검사
1995년	6,364	576	0	4,681	286	495		
1996년	5,980	652	0	5,295	263	261		
1997년	5,589	412	0	4,627	183	204		
1998년	5,670	343	0	4,162	457	133		
1999년	6,805	428	0	4,258	666	254		
2000년	4,536	327	0	3,684	686	274		
2001년	5,949	768	0	7,534	970	190		
2002년	6,537	606	0	8,243	848	589		
2003년	6,518	577	0	7,775	671	970		
2004년	6,064	540	50	8,209	623	641	95	
2005년	6,500	880	155	6,601	1,398	2,749	296	113
2006년	8,405	1,327	249	6,790	3,550	818	325	124
2007년	8,873	1,412	286	7,402	1,617	2,749	760	132
2008년	9,644	1,858	290	9,009	2,224	3,008	2,987	838
2009년	9,520	1,721	315	10,138	2,136	4,854	4,275	930
2010년	10,550	1,899	378	9,579	1,813	6,305	4,361	995
2011년	11,881	2,764	469	9,347	2,116	7,917	3,470	1,205
2012년	12,317	3,089	463	10,032	1,975	4,215	6,278	7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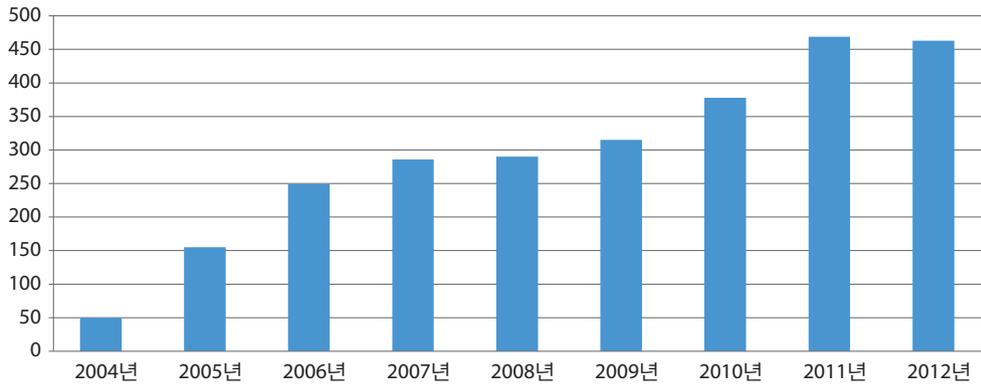
뇌파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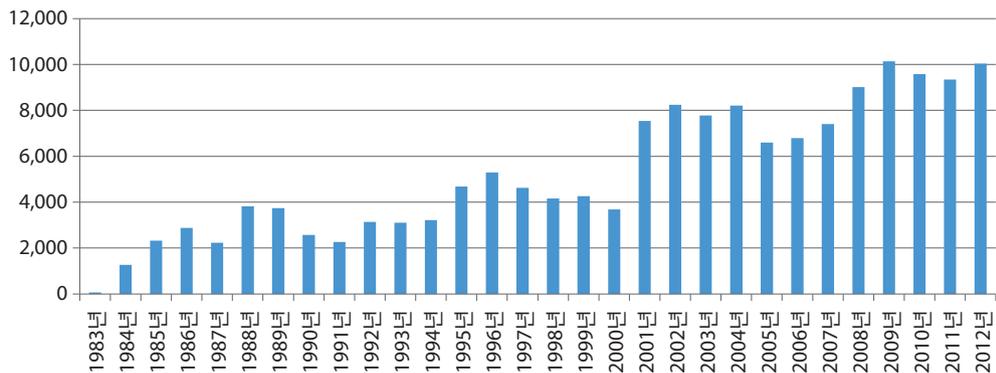
Video EEG Monitoring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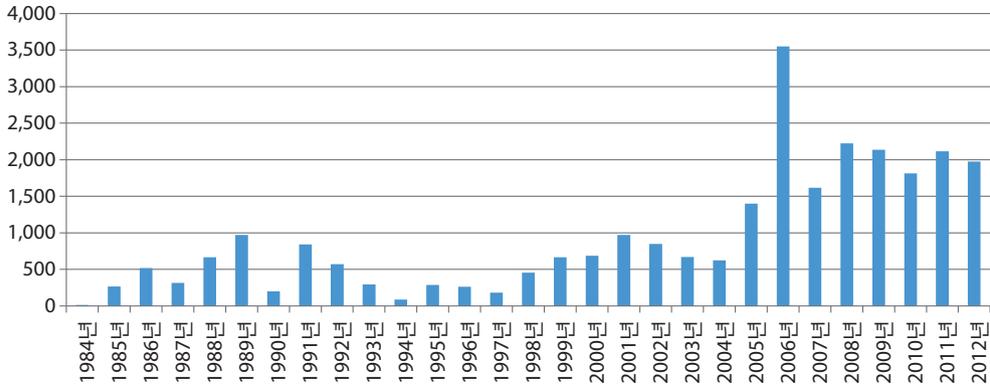
수면다원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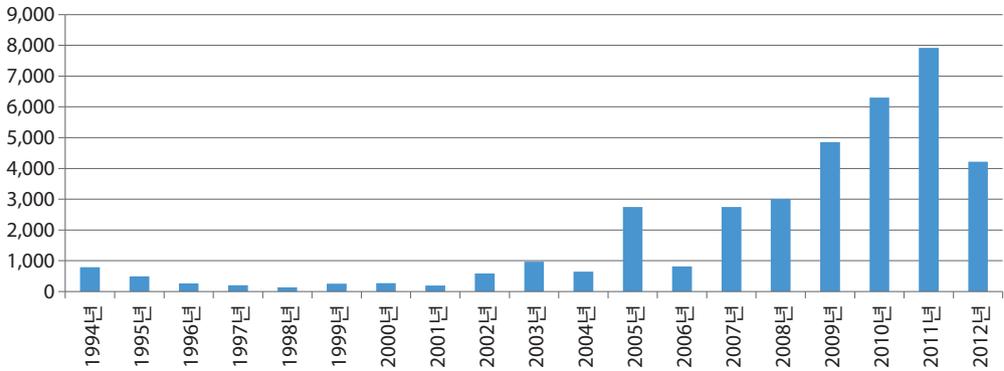
근전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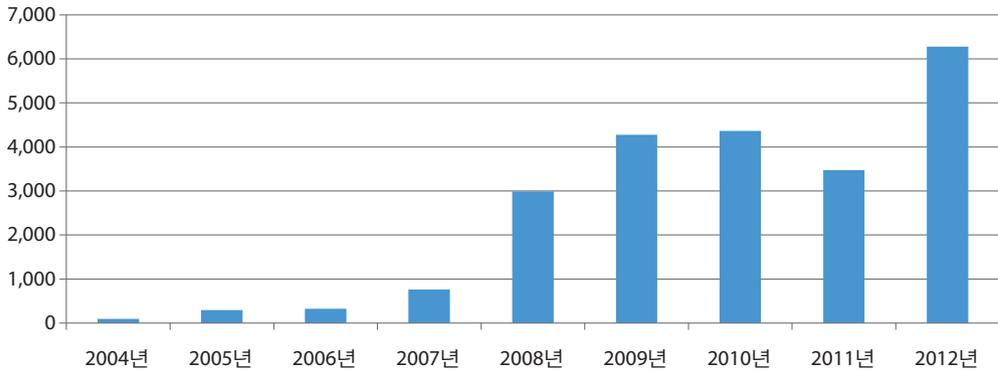
유발전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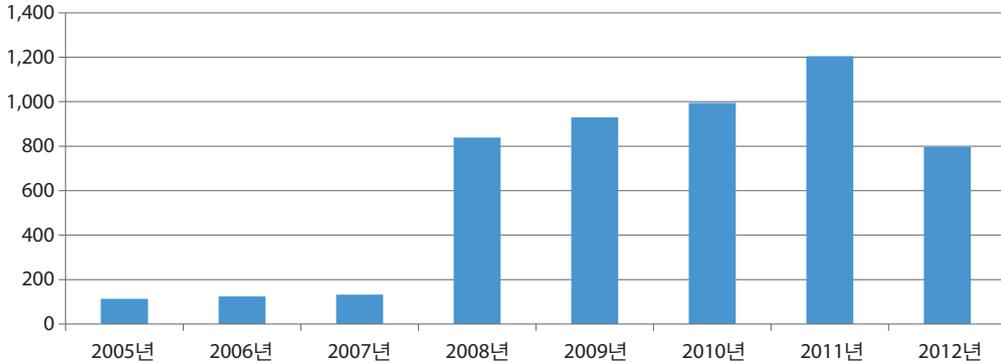
뇌혈류검사



인지검사



운동기능검사



강남세브란스병원 검사실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는 2013년 현재 뇌파검사실 및 비디오뇌파검사실, 신경생리검사실, 근육병리검사실, 뇌혈류검사실, 인지검사실이 운영되고 있다. 뇌파검사는 1984년부터, 근전도 검사는 1993년부터, 뇌혈류검사는 2001년, 인지검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다. 뇌파검사실은 처음에 본관 2동 2층에 위치하였다. 당시는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 초기로, 병원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검사실이 2차례 이전하였다가 본관 2동 1층에 위치했던 신경과 외래 옆에 위치하였다. 2000년도에 신경과 외래가 이전하면서 뇌파검사실도 함께 이전하여 현재 위치인 본관 3동 1층 안과 외래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다. 근전도검사실은 처음에 본관 2동 1층에 위치했던 신경과 외래 옆에 뇌파검사실과 함께 위치하였으며, 2000년 신경과 외래가 이전하면서 함께 이전하여, 뇌파검사실과 함께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뇌혈류검사실은 외래 진료실을 수년간 임시로 사용하다가 2009년 10월부터 본관 3동 신경과 외래 옆에 독립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지검사실은 처음에는 전공의들이 외래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가, 2012년 1월경부터 본관 3동 8층에 개설하게 되었다.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검사실에는 박명화, 이창용, 홍명동, 채선영, 이신애가 근무하고 있다. 뇌파검사실에서는 처음에 정말숙 기사가 근무하였다. 198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박명화 기사가 근무 중이다. 2007년 2월부터 이창용^{2007. 1~2013년 현재} 기사가 인력 보강되어 비디오뇌파검사와 수면다원검사를 시작하였다. 2013년 6월부터 홍명동 기사가 충원되어 근무하고 있다. 근전도검사실에서는 1996년 6월에 의료기사로 채선영이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김태형^{2011. 9~2013. 8} 이 채선영 기사의 육아휴직 중 근무하였다. 근육병리검사실에서

는 2002년에 이은영 연구원을 시작으로, 소선화^{2009. 3~2011. 2}, 백아미^{2011. 3~2012. 2}, 김미옥^{2013. 3~2013년 현재} 연구원이 근육조직에 대한 면역화학염색 및 유전자검사와 이를 활용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뇌혈류검사실은 전공의에 의해 검사가 진행되다가, 2007년 1월에 이창용이 뇌파검사실 근무를 시작하면서 뇌혈류검사도 시작하게 되었다. 인지검사실 또한 전공의에 의해 검사가 진행되다가,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신애가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뇌파 검사실 장비는 처음에 Nihon-Kohden analog EEG^{1984~1999. 12, 16ch} 장비를 사용하였다가 2000년 검사 장비가 digital화 됨에 따라 DEEG-32ch^{2000. 1~2010. 2}를 사용하였으며, 2007년 2월부터 비디오뇌파검사기기^{Beehive Horizon, Grass-technologies}가 도입되었고, Comet EEG^{2010. 3~2013년 현재}가 이후 도입되었으며, 2011년에는 비디오뇌파검사와 수면다원검사로 2개 병실이 54병동에 개설되어 Comet PSG^{Grass-technologies} 검사 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 중이다. 신경생리검사 장비는 그동안 Cadwell Excel^{1993. 3~2006. 5}을 사용해오다가 현재는 Keypoint Medotronics^{2006. 6~2013년 현재}를 구비하여 운영 중이다. 뇌혈류검사 장비는 그동안 Spencer Technologies의 PMD 100^{2003. 11~2012. 6}을 사용해오다가, 현재는 Spencer Technologies의 PMD 150^{2012. 6~2013년 현재}를 구비하여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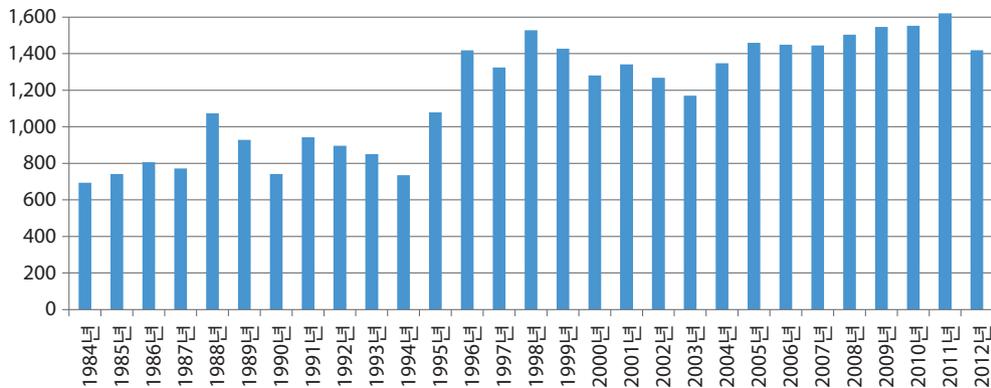
강남세브란스병원 검사실적(1984년~2012년)

연도	뇌파검사	Video EEG monitoring	수면다원검사	신경생리검사*	뇌혈류검사	인지검사
1984년	688					
1985년	759					
1986년	802					
1987년	784					
1988년	1,069					
1989년	932					
1990년	759					
1991년	944					
1992년	900					
1993년	858					
1994년	751					
1995년	1,077			688		
1996년	1,412			1,406		
1997년	1,325			1,686		
1998년	1,534			2,102		

연도	뇌파검사	Video EEG monitoring	수면다원검사	신경생리검사*	뇌혈류검사	인지검사
1999년	1,419			2,520		
2000년	1,287			2,127		
2001년	1,378			4,228		
2002년	1,281			4,067	184	
2003년	1,191			3,716	157	
2004년	1,349			3,334	118	
2005년	1,440			3,442	51	
2006년	1,417			3,065	164	
2007년	1,415	20	39	2,294	92	
2008년	1,497	38	66	3,137	140	
2009년	1,558	30	57	3,710	144	
2010년	1,563	20	84	4,105	93	
2011년	1,618	31	84	4,082	52	
2012년	1,413	36	176	4,468	246	313

* 신경생리검사는 신경전도, 근전도, 유발전위검사를 포함함.

뇌파검사



용인세브란스병원 검사실적(2010년~2012년)

연도	신경생리검사	인지기능검사
2010	275	
2011	409	128
2012	542	201

▣ 진료실적

신촌세브란스병원 진료실적(1982년~2013년)

외래환자			입원환자			
연도	초진	재진	합계	연도	실인원	연인원
1982	4,269	14,497	18,766	1982	970	12,422
1983	3,973	12,954	16,927	1983	923	23,726
1984	3,446	13,233	16,679	1984	890	10,476
1985	4,356	16,146	20,502	1985	842	11,000
1986	4,439	16,938	21,377	1986	1,093	11,957
1987	4,760	17,232	21,992	1987	1,159	14,965
1988	5,529	18,962	24,491	1988	934	15,364
1989	4,330	21,838	26,168	1989	822	16,812
1990	4,162	25,115	29,277	1990	730	15,972
1991	4,754	27,673	32,427	1991	764	16,675
1992	4,584	22,959	27,543	1992	1,297	20,132
1993	3,090	28,694	31,784	1993	1,231	20,432
1994	2,541	22,043	24,584	1994	1,220	16,787
1995	3,662	28,261	31,923	1995	1,338	18,720
1996	6,187	42,177	48,364	1996	782	13,888
1997	6,249	47,247	53,496	1997	978	11,958
1998	7,037	51,038	58,075	1998	961	12,344
1999	8,476	59,405	67,881	1999	961	17,010
2000	7,049	55,610	62,659	2000	981	13,946
2001	9,132	57,591	66,723	2001	1,211	14,238
2002	10,704	56,652	67,356	2002	1,369	14,723
2003	11,502	63,109	74,611	2003	1,412	14,806
2004	11,131	62,838	73,969	2004	1,518	15,598
2005	11,845	61,532	73,377	2005	1,590	18,896
2006	13,528	56,527	70,055	2006	1,696	19,106
2007	13,317	57,616	70,933	2007	1,723	16,798
2008	14,077	61,795	75,872	2008	2,030	20,341
2009	15,259	67,525	82,784	2009	2,092	18,816
2010	16,292	71,043	87,335	2010	1,803	16,569
2011	16,479	72,908	89,387	2011	1,863	15,948

강남세브란스병원 진료실적(1984년~2013년)

오래환자			입원환자			
연도	초진	재진	합계	연도	심인원	연인원
1984	332	1,226	1,558	1984	106	961
1985	706	4,562	5,268	1985	285	3,453
1986	1,176	6,771	7,947	1986	314	3,002
1987	1,248	6,283	7,531	1987	381	4,079
1988	1,971	7,542	9,513	1988	522	5,792
1989	1,686	9,900	11,586	1989	444	7,673
1990	1,684	11,008	12,692	1990	365	7,204
1991	1,871	12,130	14,001	1991	347	9,440
1992	1,861	12,165	14,026	1992	394	9,200
1993	1,739	14,489	16,228	1993	426	6,575
1994	1,986	14,347	16,333	1994	460	7,950
1995	1,816	12,456	14,272	1995	559	10,483
1996	2,355	11,327	13,682	1996	626	8,644
1997	2,713	11,809	14,522	1997	771	8,908
1998	2,024	12,860	14,884	1998	610	6,462
1999	3,088	16,241	19,329	1999	650	7,497
2000	2,637	15,948	18,585	2000	681	9,547
2001	3,404	17,087	20,491	2001	769	9,120
2002	3,774	16,475	20,249	2002	724	8,549
2003	4,820	15,792	20,612	2003	749	5,867
2004	4,636	15,971	20,607	2004	881	9,439
2005	4,624	16,261	20,885	2005	830	6,856
2006	4,387	16,467	20,854	2006	626	6,264
2007	3,048	15,804	18,852	2007	611	7,380
2008	3,740	16,844	20,584	2008	988	5,699
2009	4,486	18,989	23,475	2009	1,142	6,277
2010	4,913	20,508	25,421	2010	1,110	5,983
2011	4,221	20,043	24,264	2011	893	5,479
2012	4,275	20,939	25,214	2012	1,002	4,669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료실적(2008년~2012년)

외래환자			입원환자			
연도	초진	재진	합계	연도	실인원	연인원
2008	264	668	932	2008	0	0
2009	443	1,259	1,702	2009	2	5
2010	1,122	4,479	5,601	2010	235	1,024
2011	1,545	5,741	7,286	2011	223	1,168
2012	2,450	6,108	8,558	2012	254	1,023

인천세브란스병원 진료실적(1991년~1999년)

외래환자			입원환자			
연도	초진	재진	합계	연도	실인원	연인원
1991	556		2,049	1991	164	2,771
1992				1992		
1993	934		4,036	1993	192	2,915
1994	884		3,617	1994	132	1,813
1995	984		3,448	1995	131	1,738
1996	980		3,604	1996	120	1,319
1997				1997		
1998				1998		
1999				1999		

※ 빈 칸은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임

4.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 교실의 역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자병원으로 지난 2000년 3월 3일에 개원하여 현재 연간 100만 명 이상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다. 199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기 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수가의 기준평가와 특정 재료대 보상수준 결정, 병원 경영 적자 원인분석 및 모델병원 개발, 병상부족해소 기여 등 4가지 정책목표를 가진 직영병원의 건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외국에서는 이미 보험자 직영병원이 있어 보건,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처음 시도되는 만큼 일단 수도권에 1개소를 건립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연세대학교 확보 부지에 매입을 추진하였고 일산지역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으로 의료 수요나 교통여건이 양호하여 적정경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건립을 추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건립 이상으로 중요한 우수의료진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1993년 9월 26일 연세의료원과 '기술 및 인력지원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의료 인력의 교류, 환자 진료, 의학교육 및 연구 등 연세의료원의 기술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개원 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을 통해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1999년 7월부터 이준홍 임상교수가 병원 설립에 관한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0년부터 최선



개원 초기 신경과 의국원들(2000년)

아 임상교수, 2001년부터 임성룡 임상교수가 2004년까지 재직하였다.

2003년부터 김규식 임상교수, 2006년부터 조정희 임상교수, 2010년부터 김종현 임상교수가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최일생 교수가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재직하였다.



최일생 교수 퇴임 기념(2012년)

■ 교실 소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검사실은 뇌파검사실, 수면다원검사실, 근전도검사실, 기억력검사실, 뇌혈류검사실, 경동맥초음파검사실 등 총 6개 검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임상병리사 5인이 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개원 초에는 수면다원검사실과 기억력검사실을 제외한 4개 검사실과 임상병리사 3인으로 운영하다가 환자 수 증가와 진료 및 규모의 확대에 따라 2004년 수면다원검사실, 2007년 기억력검사실이 추가 설치되었으며, 또한 임상병리사 2명을 증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일산병원 신경과는 2010년 병원의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예방센터를 개소한 것을 비롯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임의 1명이 증원되어 현재 신수정 선생이 근무하고 있고 수면과 관련된 분야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 치매예방센터 및 근전도검사실에서 임상경험을 쌓고 연구에도 매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는 2004년 8월 2일 뇌혈관센터를 개소하여 신경외과 및 영상

의학과와 함께 뇌졸중 치료에 대한 협력 진료를 체계화하였고, 2006년 7월 1일에 뇌졸중 전문치료실(stroke unit)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합병증 방지 및 최선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초급성 뇌경색 환자의 보다 빠른 치료를 위해 2007년 'SAVE(Salvage from Acute stroke Via Early treatment)'로 이름 지어진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뇌영상 촬영 및 혈액검사 진행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혈전용해제 투여 시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경과는 기존의 수면검사실을 12층 병동에 새로 확장하여 2009년 12월 23일부터 검사를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치매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수면 관련 질환과 기억력장애 및 치매에 대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진료를 시행하고자 노력해왔다.



치매예방센터 개소식 기념(2010년)

제1대 이준홍 과장이 2000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신경과를 운영하였고 제2대 최선아 과장이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신경과를 담당하고 있다. 2000년 외래환자 연인원 8,092명을 시작으로 2011년 외래 환자 연인원 43,689명, 2000년 당시 연인원 5,483명이던 입원환자 또한 2011년 입원환자 연인원 8,815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치매예방센터를 개소하여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와 함께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협력 진료를 구축하였다. 현재 신경과 각 분야별로 세부전문영역을 구축하여 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준홍 임상교수는 치매, 뇌졸중, 뇌혈관초음파 분야를, 최선아 임상교수는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치매 분야를, 김규식 임상교수는 뇌졸중 및 신경과 집중치료분야를 조정희 임상교수는 말초신경, 척수 및 근육질환을, 김종현 임상교수는 치매 및 퇴행성 뇌질환 분야를 특화하여 진료 및 연구하고 있다.

또한, 중례 보고 및 임상 연구를 통해 진료 및 교육과 더불어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는데 특히, 이준홍 임상교수는 미국 Washington 대학에서 신경초음파를 연수하고, 현재 대한 신경초음파학회 회장직에 있으며 대한치매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대한노인신경의학회 등의 이사로 활동을 하였으며 치매 약제 개발에 대한 국책연구에도 관여하고 있다.

최선아 임상교수는 미국 Mayo clinic Scottsdale에서 연수를 했고, 파킨슨병 치매 환자의 병리소견에서 백질부 변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Acta Neuropathologica 등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임상약물 유효성 평가를 위한 전국적 다기관 연구 및 역학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김규식 임상교수는 미국 Duke대학교에서 신경집중치료에 대한 연수를 했고, 뇌졸중 및 신경집중치료에 연구를 하고 있다. 조정희 임상교수는 말초신경과 척수 및 근육 분야를 전공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학회활동 및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근전도검사를 운영하며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전공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현 임상교수는 인지신경학/치매를 전공했고, 연구 분야는 인지신경학/치매 [bioinformatics](#), [neurogenetics](#), [neuroimaging](#)이다.



신경과 의국원들(2013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는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진료를 시행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전공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예방센터를 집중 육성하여 국내에서 손꼽히는 수준으로 환자 진료 및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다.

5.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 교실의 역사

원주의과대학에 신경과학교실이 개설된 것은 1990년이며, 그 이전에는 1984년부터 내과 소속의 김원천이 신경과학에 대한 교육 및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김원천은 세브란스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으며, 수련 당시 세브란스병원에서 신경과학은 신경내과라는 세부 과목으로 내과학교실에 소속되어 있었고, 후에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을 창립하게 되는 김기환이 신경내과를 담당하고 있었다.

신경과학을 담당하던 김원천이 1988년 사직하게 되면서,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첫 회 전공의 수련과정을 수료했던 이성수가 연구강사로 부임하였다. 1990년에는 당시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 근무하던 김승민이 2년간 파견 형식으로 원주의과대학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성수, 박영관과 함께 신경과학교실을 개설하게 되었다. 김승민이 처음 근무하였던 2년간은 첫째에는 박영관이, 이듬해에는 이성수가 각각 교환파견으로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근무하였다. 1992년 3월 김승민이 원주기독병원 신경과의 초대 과장으로 임용되었으나 미국 메이요 클리닉으로 말초신경질환에 대한 연수를 2년 동안 가게 되어, 연세의대로 파견되었던 이성수가 전임강사로 복귀하였고, 1993년에는 박영관이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1995년에는 이성수가 미국 조지아 의대로 뇌전증에 대한 연수를 다녀왔다. 1996년 박영관이 사직하게 되면서 문준식이 새로 연구강사로 임용되었으며, 1997년 2월 김승민이 연세의대로 다시 복귀하게 되어 이성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되었다. 1997년 문준식이 전임강사로 임명되었고, 1998년에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던 이지용이 연구강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문준식이 미국으로 연수를 가면서 사직하였고, 이지용은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2004년 연세의대 신경과 뇌졸중 분야에서 강사로 재직하던 김서현이 원주의과대학으로 전보되어 2007년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2008년부터는 이지용이 주임교수로 임명되어 2013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에는 원주기독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고 연세의대 신경과 말초신경 분야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박찬익이 연구강사로 부임하여 2010년부터는 임상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김서현이 2년 계획으로 미국으로 연수를 떠났고, 2013년에는 연세의대 신경과 운동질환 및 치매분야에서 강사로 있던 홍진용이 연구강사로 임용되어 일하고 있다.



신경과학교실 교실원 산행(1997년)



원주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20주년 기념 동문심포지엄(2011년)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과의 관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그 태동은 세브란스병원과 함께하지는 않지만, 신경과학교실에 있어서는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먼저, 원주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이 개설될 때 연세의대의 김승민이 파견되어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초대 주임교수로서 초창기 교실의 위치를 확립하고 안정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후 원주기독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면서 세브란스병원과 전공의를 상호 파견하여

수련을 하였고, 이 상호 파견은 2002년까지 계속되었다. 2002년 이후에는 원주기독병원의 3년 차 전공의가 1~2개월 동안 세브란스병원에 파견되어 뇌전증 분야에 대해 수련받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매년마다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동문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의국과 함께 입국식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과 한 가족이라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서현, 박찬익, 홍진용이 모두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에서 강사로 재직하다가 원주의과대학으로 부임하였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았던 함지현이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의 강사로 임용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두 교실 간에 긴밀한 교류가 있는 상태이다. 현재 두 교실 간에 많은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공의 파견수련도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두 교실간에 교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실원 현황

- ※ 교원: 이성수, 이지용, 김서현, 박찬익, 홍진용
- ※ 전공의: 송영기, 김지인, 최진교, 이진우

역대 교원

근무기간	최종직위	성명	비고
1985~1988	조교수	김원천	내과 소속
1989~현재	교수	이성수	
1990~1997	부교수	김승민	연세의대 신경과, 현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1990~1996	조교수	박영관	개원
1996~2000	조교수	문준식	University of Oklahoma
1998~현재	교수	이지용	현 주임교수
2004~현재	조교수	김서현	UCLA에서 연수 중
2009~현재	임상 조교수	박찬익	
2013~현재	연구강사	홍진용	

역대 배출 전문의

수료연도	성명	현 소속
1995	이지용	연세대원주이대 신경과학교실
1996	손일홍	원광의대 산본병원 신경과
1997	조성진	성애병원
1998	박기철	김포우리병원
1999	한범기	연세신경과의원
2000	권준범	온누리병원
2001	양현덕	원광의대 산본병원 신경과
2002	이성익	원광의대 산본병원 신경과
2004	이일형	혜민병원
2005	박찬익	연세대원주이대 신경과학교실
2006	이동헌	효원요양병원
2007	이재민	김포우리병원
2009	박상현	서울대효병원
2010	천정민	미소들병원
2011	장현찬	상주시 모서면 보건지소
2012	김도한	강원도 삼척의료원
2013	함지현	세브란스병원 연구강사

제3장 교실원

1. 역대 주임교수
2. 명예교수
3. 전/현직교수
4. 교실원 이모저모

제3장 교실원

1. 역대 주임교수

초대 주임교수



김기환 1983~1989

제2대 주임교수



김진수 1989~1995

제3대 주임교수



최일생 1995~1999

제4대 주임교수



이병인 1999~2007

제5대 주임교수



김승민 2007~2011

제6대 주임교수



최영철 2011~현재

2. 명예교수



김기환 1974~1995

학력 및 경력

1950	용산고등학교 졸업
195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51	군복무(육군 이등병)
196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내과)
1961 ~ 1963	도림순천병원 및 도림천안병원 내과장(의료동원)
1963 ~ 1974	가톨릭의대 내과 전임강사, 조교수 및 부교수
1968	가톨릭 의과대학 의학박사 학위취득
1972 ~ 1973	미국 알라바마대학 신경과학 연수
1974 ~ 199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74 ~ 198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제6내과(신경내과) 과장
1990 ~ 199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사제도 연구 및 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1992 ~ 199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뇌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1992 ~ 1995	연세대학교 교수평의회 위원 및 부의장
1995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학회활동

1961	내과전문의 자격 취득
1964 ~ 1990	대한신경과학회 평의원
1976 ~ 1982	대한신경과학회 설립추진위원회 대표
1983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
1985 ~ 1989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및 초대 이사장
1986 ~ 1987	대한신경과학회 회장(4대)
1987 ~ 1989	대한신경과학회 초대 이사장



김진수 1984~2005

학력 및 경력

1958	서울고등학교 졸업
1964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75	독일 Hannover 박사
1979	독일 Ulm대학교 교수자격(Habilitation) 취득
1964 ~ 1967	해군 군의관
1967 ~ 1978	Max-Planck 뇌연구소 수석연구원
1974 ~ 1978	독일 Max-Planck 뇌연구소 신경전달물질실실장
1978 ~ 1984	독일 Ulm대학교 신경화학 실험실장
1979 ~ 1983	독일 Ulm대학교 Privatdozent
1984	독일 Ulm대학교 신경과 교수
1984 ~ 200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교수
1989 ~ 1995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
1996 ~ 1998	연세대학교 뇌연구소 소장
2005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2005 ~ 현재	김진수 신경과, 정신과 개원

학회활동

1991 ~ 1992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1991 ~ 1993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장
1992 ~ 1996	세계신경과학회 부회장
1995	Neurology, Psychiatry and Brain Research 편집위원
1996 ~ 2000	2000 Asian-Oceanian 신경과학회 회장 & 세계신경과학회 부회장
2001 ~ 2003	아세아태평양파킨슨병학회 회장
2002	세계신경과학회 부회장, 편집위원, Rong Range Planning & Continuing Education Committee 위원
2006	인도 파킨슨학회 명예회원



최일생 1976~2007

학력 및 경력

1960	목포고등학교 졸업
196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72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석사)
1973 ~ 1975	대구통합병원 내과 과장(대위 및 소령)
1975 ~ 1976	국군보안사령부 의무실장(소령)
1976 ~ 2007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78 ~ 1979	미국 Alabama, UAB 신경과 fellow
1983 ~ 1984	신촌세브란스병원 수련부 차장
1984 ~ 1995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과장
1985 ~ 1989	강남세브란스병원 약사위원장
1989 ~ 1990	강남세브란스병원 초대 적정진료위원장
1990 ~ 1994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육연구부장
1990 ~ 1994	강남세브란스병원 실험이사장
1993 ~ 1997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위원회 위원(신경과분과)
1994 ~ 1995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원장
1995 ~ 1999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주임교수(제3대)
1998 ~ 2000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신약심사분과위원회
2007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학회활동

1984 ~ 1986	대한신경과학회 학술부장
1986 ~ 1989	대한신경과학회 초대간행이사 및 편집인
1988 ~ 1991	대한의학협회 공제회 심사위원회 위원
1991 ~ 1994	대한의학협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1994 ~ 1995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제13대)
1998 ~ 1999	세계신경과학회(WFN) 한국대표(Delegate)
1998 ~ 2000	신경과학회 이사장(제6대)



선우일남 1979~2011

학력 및 경력

1965	경남고등학교 졸업
197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76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석사)
1976 ~ 1979	군의원
1979 ~ 201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80 ~ 1982	Fellowship in Electromyography,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1989	근육병리 연수,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1994 ~ 1997	연세의료원 전산차장
1999 ~ 2001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장
2001 ~ 2004	연세의료원 의료정보실장
2008 ~ 2010	세브란스병원 뇌신경센터 소장
2011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2011 ~ 현재	선우 & 조 신경과 개원

학회활동

1985 ~ 1986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
1987	대한신경과학회 보험이사
1988 ~ 1989	대한신경과학회 재무이사
1994 ~ 1997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
1994 ~ 1995	대한신경과학회 수련고시이사
1996	대한신경과학회 고시이사
1998 ~ 1999	대한신경과학회 정보이사
2000 ~ 2001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제7대)
2002 ~ 2003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회장
2005	대한신경과학회 회장(제23대)
2005 ~ 2011	대한통증연구학회 부회장
2006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2007 ~ 2009	대한근전도·전기진단의학회 회장

3. 전/현직교수

현직교수(신촌)



이병인 교수
(1988~현재)



김승민 교수
(1986~현재)



허지회 교수
(1993~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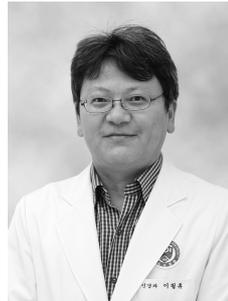
손영호 교수
(1993~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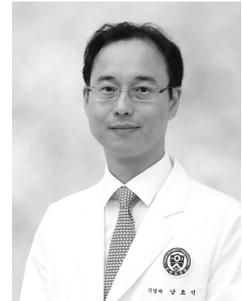
허경 교수
(2000~현재)



박수철 조교수
(1996~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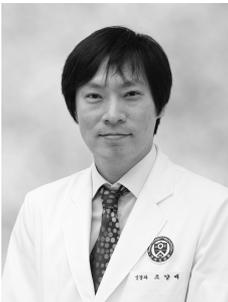
이필휴 부교수
(2008~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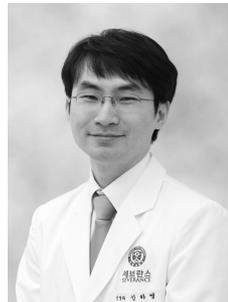
남효석 조교수
(2008~현재)



김영대 조교수
(2009~현재)



조양제 임상조교수
(2011~현재)



신하영 임상조교수
(2012~현재)



송동범 임상조교수
(2013~현재)

현직교수(강남)



이명식 교수
(1988~현재)



최영철 교수
(1995~현재)



김원주 교수
(1997~현재)



이경열 교수
(2003~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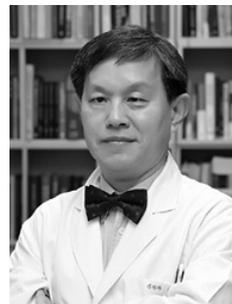
류철형 조교수
(2008~현재)

현직교수(용인)



홍지만 임상조교수
(2010~현재)

전직교수



허균 교수
(1988~1994)
현 아주의대 신경과학교실



김우경 교수
(1997~2001)
현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4. 교실원 이모저모



1987년 1월 신년모임



1988년 1월 신년모임



1987년 5월 야유회에서 가족들과 함께



1995년 7월 김기환 교수 정년퇴임 기념



2005년 김진수 교수 정년퇴임 기념



2004년 발전기획세미나를 마치고



2006년 본관 하늘정원에서



2011년 선우일남 교수 정년퇴임 기념



2010년 2월 의대 로비에서



2013년 7월 본관 천국의 계단에서



1986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1987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1989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1991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1993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1994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1998년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



2013년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



2013년 동문심포지엄을 마치고



1985년 봄 야유회에서



1985년 봄 야유회에서



1985년 봄 야유회에서



1985년 봄 야유회에서



1985년 여름 전공의들끼리의 즐거운 한 때



1986년 봄 야유회에서



1987년 봄 야유회에서



1987년 봄 야유회에서



2002년 가을 동문등산모임에서



2002년 가을 동문등산모임에서



2004년 봄 동문등산모임에서



2004년 봄 동문등산모임에서



1980년 대한뇌파기사협회에서 강의 중인 최일생



1982년 학회에서



1980년대 초창기 학회에서



1980년대 초창기 학회에서



1980년대 초창기 학회에서
서울대 명호진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김기환 교수



1985년 학회에서



1999년 학회에서 동문모임



1999년 학회에서 동문모임



1985년 12월 병동에서



1987년 1월 검사실에서



1988년 봄 의국에서



1989년 봄 해운대에서



1990년 의국에서



2004년 뇌파관독실에서



2011년 공원에서의 의국원들



2013년 신년회에서의 의국원들



2013년 112병동 간호사들



2013년 111병동 간호사들



2013년 외래 간호사들



2004년 52병동 간호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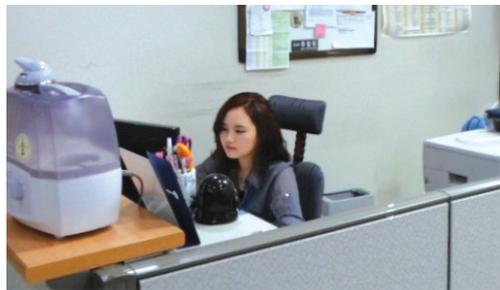
2013년 뇌전증 및 수면검사실 직원들



2013년 검사실 직원들



2013년 신경과학교실 비서들(신춘)



2013년 신경과학교실 비서(강남)

제4장 동문회

1. 동문회 소개
2. 동문회 회칙
3. 동문 회고
4. 동문회원

동문회 소개

희망의 연세 신경과 동문회

안재훈(1986년 입국)

우리 신경과 동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신경과의 지존입니다. 하지만 첫 동문들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82년에 신경과 전공의 생활을 처음 시작 한 최경규, 황연미 동문은 의국이 따로 없어서 내과의국에서 더부살이 생활을 하였고 이듬해의 박기덕, 이광수 동문들도 초기에는 내과에서 신세를 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초라했지만 어느덧 세월이 흘러 교실 창립 30주년이 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니 감개가 무량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우리 모두와 감사와 축하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연세대학교 신경과 동문회는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회원이 많지 않아서 동문회라는 이름 보다는 가족 모임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신경과 동문회’라는 명칭으로 의견을 모으고 간단하게나마 자격기준을 정한 것은 1991년부터입니다. 자격은 연세의대와 원주의대에서 신경과를 수료했거나 fellow를 마친 분들 및 소정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정하였고, 동문회장직은 가능하면 본교에 있는 동문보다는 외부에 있는 동문들이 맡는 것이 신경과 교실과 동문들의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초대회장은 이대

목동 병원의 최경규 동문이 지냈으며, 2년의 임기를 기본으로 하여 현재는 대전에서 신경과 전문병원을 공동개원하고 있는 김돈수 동문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총 동문수는 181명인데 근무 현황을 보면 대학병원 52%, 개원의 16%, 종합병원 18%, 해외 1%, 기타 3% 등입니다.

초창기 정기적인 모임으로는 매년 2월에 신입회원 환영회와 12월에 송년회가 있었고 설날과 추석에는 참석이 가능한 사람끼리 모여 김기환, 김진수, 최일생 교수님들 댁에 찾아가 조촐한 모임을 가졌는데 빙 둘러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4월에는 ‘동문 등산회’ 라는 이름으로 모여 산행을 하고 애프터를 했는데, 4시간 정도 산행을 하면서 그동안 서먹했던 동문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주고받으며 정보도 교류하는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11월이나 12월경에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4년 차 전공의들과 몇몇 동문 선배들이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격려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그 외에 비공식적인 소규모의 모임을 자주 갖는 편이었고 이를 통해 끈끈한 정이 오가는 동문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2월의 신입생 환영회가 ‘동문 심포지엄’으로 이름을 변경, 확대되어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의 강의를 듣고 끝나면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 자리로 upgrade 되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동문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설날과 추석에 퇴임하신 교수님들 댁에 찾아가서 조촐한 만남을 갖지 못하는 것과, 최근 들어 동문 산악회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문회의 규모가 커진 만큼 이에 걸맞은 모임이 다시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30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고 신경과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우리 동문들 또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도약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며 동문들과의 유대관계, 특히 교실과 동문회 간의 유대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배 동문들도 교수, 봉직의, 개원의로서의 삶이 아닌 조금 다른 분야로 시야를 넓혀 도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계와 신경과를 선도하는 우리 연세대학교 신경과 동문, 동문회가 앞으로도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동문회 회칙

연세대학교 신경과 동문회 회칙

1993년 2월 제정
2002년 6월 22일 1차 개정

제1조(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신경과 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및 사업)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협조하여 동창 및 모교 신경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원주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신경과 수련이나 전임의를 마친 사람 및 전·현직 신경과 교수.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지만 모교 신경과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 정한다.

제4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고문 약간 명

명예회장 2명(모교 신경과 주임교수 및 직전 회장)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이사 10명 내외(무임소이사는 원주의과대학 신경과 출신을 포함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1.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임한다.
2.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자문에 응한다.
3.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이사회,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이사
 - 1) 총무 : 회무 일반을 관장하고 특히 회원의 동태를 파악하며 본회 문서를 기록, 보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또한 타 이사가 공석일 경우 그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 2) 간행 : 도서와 간행물의 출판을 담당한다.
 - 3) 재무 : 본회 재정과 장학 사업을 담당한다.
 - 4) 학술 : 회원의 교육 및 학술 사업을 담당한다.
 - 5) 홍보 : 대외 사업 및 활동을 담당한다.
 - 6) 정보 :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 7) 무임소
6. 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정에 관한 처리를 감사한다.

제6조(임원의 선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와 고문은 회장단의 합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명예회장은 현직 신경과 주임교수 및 직전 회장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전문의 시험이 끝난 후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02년 6월 22일부터 발효한다.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타 본 회칙의 미비된 점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세브란스 30년의 단상

최 경 규(1983년 입국)

김기환 교수님과 타 대학의 여러 원로교수님들께서 주관하셔서 1982년 신경과학회가 창립을 하게 되어 1983년 3월부터 나와(최경규, 이화의대 봉직) 황연미 선생님이(아산중앙병원 봉직, 개원)이 1년 차로 의국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내과는 1내과(소화기), 2내과(혈액), 3내과(순환기신장), 5내과(알레르기내분비), 6내과(신경), 7내과(흉곽)로 분과되어 있었는데 신경과는 6내과가 그대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이 되었다. 외래와 검사실도 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시까지 내과에서 6내과를 전공하신 선배분들로는 최일생(정년퇴임), 선우일남(정년퇴임, 개업), 정우제(이대 봉직, 개업), 조효근(인제대 봉직, 개업), 김현숙(개업), 김원천(원주의대 봉직, 개업), 김승민(모교 신경과), 허균(아주의대 봉직) 선생님 등이었다. 1983년 처음에 1년 차가 되었을 때 김기환 교수님과 최일생 교수님께서 봉직하고 계셨고 선우일남 교수님께서 미국 알라바마 대학에서 말초신경학을 연수하시고 합류하셨다. 당시 내과에서 2년 차 전공의가 파견 나오고 신경과 1년 차는 둘이서 신경과 6개월, 내과 파견 6개월씩 근무하였다. 당시 내과의국은 병동의 작은 당직실 3~4개와 6인 입원실 규모의 방 1개를 시니어(3년 차) 의국으로, 그리고 6인 입원실 2배 규모의 방 1개를 전체 의국 및 주니어 의국으로 사용했는데 신경과는 내과 주니어 의국을 같이 사용하였다.(당시 내과계는 대부분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었음.) 1984년에 박기덕 선생과, 이광수 선생이 1년 차로 들어오면서 의국이 독립을 하게 되어 6인실 크기의 방 1개를 배정받았다. 1984년 후반기에 독일 울름대학교에 계시던 김진수 교

수님께서 신경과 교수로 합류하셨다. 1984년 영동세브란스병원(현 강남세브란스)이 개원되고 최일생 교수님께서 과장직을 맡으시면서 파견근무를 하시게 되었다. 그 후 1985년 이명식(강남세브란스), 허지회(신촌세브란스), 이상암(아산중앙병원) 선생이 1년 차로 들어왔다.

당시 입원 환자는 평균 50명 내외였고 첫해에는 내과 2년 차와 신경과 1년 차 두 명이 입원 환자들을 돌보기에 상당히 힘이 들었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는 응급실에서 신경외과, 정신과와 신경전을 벌여야 했고, 뇌경색 환자는 신경외과와 갈등이 있었다. 입원환자가 많아 힘들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의사 사회에서도 신경과가 무슨 과인지 모를 때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응급실에 상주하다시피 하여 입원환자를 확보하던 기억이 난다. 1980년대에는 지금과는 달리 대부분의 가정이 난방으로 연탄을 사용하여 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연탄가스 중독 환자가 신경과의 응급환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종합병원마다 응급실에 고압산소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용 빈도가 아주 높았다. 1984년에 최일생 교수님께서 세계 최대 예수의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을 Neurology에 보고하셔서 당해의 저널로 선정되고 1985년 Adamas 'Principes of Neurology'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실렸다. 당시 CT scan이 들어온 지 몇 년 되었으나 MRI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시절이라 의식수준이 저하된 환자들은 대부분 CT scan을 하였는데 CT를 빨리 촬영하기 위해 CT실 직원들과 잘 지내야 했던 일이 생각난다. 신경과 의국원들과 CT실 직원들이 1년에 2~3회 회식자리를 같이 하여 아침 시작 시간에 2~3개의 CT를 신경과에 배정받기도 했다.

1983년 선우일남 교수께서 귀국하시면서 신경과 진단에 EMG의 사용이 본격화되고 체계화되었다. 그때까지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에서 근전도기와 유발전위검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진단에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세브란스 신경과에 EMG가 들어오면서 많은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의 진단과 연구에 이용, 환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어 타 학교에서 파견을 많이 나왔다. 서울대의 정진상(아산중앙병원), 박성호(서울대분당병원), 한양대의 정근호(개업), 권기한(한림대), 순천향대의 신현길(개업), 영남대의 하정상, 부산대의 정대수, 메리놀병원의 최문성 선생, 그리고 타 병원의 정신과 선생님들도 파견을 나와서 함께 공부하고 배웠다. 선우일남 선생님은 외래에서 환자를 입원시킬 때 임상 진단명을 그럴듯한 다른 병명으로 기입해 입원시켜 다음날 아침 conference 시간에 발표하는 전공의들을 혼내곤 하셨다. 선우일남 교수 다음에는 2년 후 서울대 이광우 교수께서 말초신경을 전공하고 귀국하시어 함께 말초신경학 분야를 이끌어 나가셨다.

신경과 초기에 학회는 주로 서울에서 하였고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대 병원 강당에서 번갈아 진행하였다. 학회 등록회원 수는 많았지만 정신과 선생님들은 총회 때 위임장을 보낸 분들이 많았고 학술대회와 후에 회식에 참여한 분들은 순수한 신경과 전문의들이었다. 신경과 첫 1년 차는 전국에 5명이었고 2회도 12명 정도여서 학회 후 회식 자리에는 스텝 선생님들뿐 아니라 전공의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그 때 김기환 교수님과 서울대 명호진 교수님께서 경쟁적으로 전공의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셨는데 항상 양주를 맥주잔에 가득 부어 원샷으로 마시게 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했으며 나중에 많이 살아 남은 대학의 의국이 승리하는 분위기였다.

신경과 창설 후 1~2년에는 신경과 전체 인원이 얼마 안 되어 스텝 선생님들과 전공의들이 함께 회식하는 자리가 많았다. 1차 회식 후 2차를 지금의 강남역 뒤의 아파치, 바나나 같은 곳으로 갔었는데 큰 홀의 중간 중간에 춤을 추는 무대가 있어 무희들이 춤을 추었다. 김기환 교수는 따님 나이의 젊은 무희들을 보면 불쌍하다고 홀 내를 다니시면서 무희들에게 10만 원 짜리 수표를 톱으로 한 장씩 쥐어 주셨는데(당시 전공의 월급이 40~50만원 정도였다), 최일생 선생님이 나에게 눈짓으로 지시하셔서 그때마다 김기환 교수님을 쫓아다니며 무희들에게 수표를 빼앗아 다시 김기환 교수님 지갑에 집어넣곤 하였다.

독일에서 20년 가까이 연구 및 교수생활을 하시다가 귀국하여 합류하신 김진수 교수님은 당시 striatonigral GABA pathway를 발견하셨고 schizophrenia의 glutamate theory를 처음 발표하여 미국 및 유럽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자주 다니셨다. 아직 임상 신경학도 정착이 안 된 우리나라에서 신경과 의사가 이런 기초 분야도 연구해야 한다는 자극을 젊은 의사들이 많이 받았다. 지금도 glutamate theory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나와 의국생활을 같이 하던 의국원들은 모교에서, 혹은 또 다른 대학에서 열심히 연구와 진료, 교육에 전념하여 모두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또 의사로서 성실하게 환자 진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전통있는 명문대학에서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좋은 동료들과 함께 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능력있고 성실한 후학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세브란스 신경과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30년이 지났다. 30주년을 맞이하여 감회가 새롭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새로운 30년의 미래를 위해 서로 돕고 헌신적이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동문 회고

아, 옛날이여 !

오래 전 의국생활을 돌아보며.....

이 광 수(1984년 입국)

1984년 3월 1일 레지던트 1년 차를 시작하는 날, 신촌 5층의 신경과 의국으로 출근하였다. 최경규, 황연미 2년 차 선생님들과, 박기덕 선생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상견례와 함께 1년 차는 오늘부터 바로 당직이란 2년 차 선생님 말에 겁이 잔뜩 났다. 모든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겠지만 이맘때면 내 자신이 의사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자신이 없을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두려움을 안고 첫 날 당직을 서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 연차는 2명으로 당직은 이틀에 한번 돌아왔으며 비번인 짝꿍이 신촌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과 맑은 물(?)을 사오면 오순도순 친목 도모를 하였다. 잘 모르는 환자가 오면 2년 차 선생님들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상의하던 것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다음 날 아침이 오자 회의실에 모든 교수님(김기환 과장님, 최일생, 선우일남)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콘퍼런스를 시작하였다. 준비한 환자 브리핑을 내 나름대로 멋지게 했다고 자부할 때쯤 선우일남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저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신경 진찰은 제대로 한거냐? 내 머리는 순간 얼어붙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진땀만 흘렸다. 침묵의 시간이 보통 1분 이상 흐르면 김기환 교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면서 이제 “회진 돕시다”란 말씀으로 위기를 모면해주시곤 하셨다. 당시 저녁부터 밤사이 방문한 환자를 다음 날 아침 브리핑

하는 시간은 가장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었다. 선우일남 교수님의 질문과 지적을 걱정하면서 밤새 책을 뒤지고 공부하던 시간이 당시 세브란스 신경과 전공의들의 실력이 쑥 쑥 늘어난 비결이 아니었나 싶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모든 교수님들 특히 선우일남 교수님의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린다.

1년 차 시절에 가장 많았던 환자는 뇌졸중, 뇌수막염, 일산화탄소 중독, 근무력증, 길랑-바레 증후군, 파킨슨병 등으로 기억난다. 당시는 뇌 영상검사가 오로지 뇌 CT검사로 한정되어 있어 답답한 면도 있었지만 오히려 신경과 의사들의 실력 발휘를 마음껏 하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래도 아침마다 신경방사선과 서 교수님, 김동익 교수님과의 미팅은 많은 정보를 얻었던 시간이었고 향후 시행해야 할 검사를 정하는데 유익하였다. 김기환 교수님은 일요일도 나오셔서 항상 뇌파검사실에서 미팅을 하고 회진을 도셨다.

4월인가 5월경 나에게는 지금도 생생한 한 사건이 있었다. 저녁 8시경 과장님의 전화가 바로 그것이었다. “누구냐?” “네, 1년 차입니다.” “의국에 연세우유 있나?” “아, 예 잠시만요.” 냉장고 안에 연세우유 한 개가 놓여있었다. “네, 있습니다”. “아 그걸 가지고 종로 어디 어디로 와라” “네??? 저 당직인데요, 과장님.” 전화는 이미 끊어진 후였다. 최경규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 “선생님, 과장님께서 우유를 가지고 오라는데, 어떻게 하죠?” “어, 그렇게 해” “예??” “내과 의국에 가서 당직자에게 뺨뺨 맡기고 갔다 와” 아주 단순한 답이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 시간에 우유가 필요한거지? 식사를 못 하셨나? 여러 궁금증을 품고 도착한 고급스런 술집은 여러 분의 교수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셨다. “과장님, 여기 우유 가져왔는데요.” “어, 왔어 임자 노래 한 번 부르고 가” “예??” “노래는 말야, 0000 불러봐” 그야말로 당황스런 시간이었다. 여하튼 그런 사건 이후 나는 과장님에게 가수란 호칭을 얻게 되었다.

1985년 2년 차 시절은 새로운 의국원으로 이명식, 허지희, 이상암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정식으로 신경과학회가 창립된 해로 병원 밖으로도 바쁜 시기였다. 초대 이사장을 지내신 김기환 교수님, 서울대 명호진 교수님, 부산대 김상호 교수님, 영남대 박충서 교수님 등이 모여 정신과 교수님들과 신경과학회 설립을 위해 연일 바쁜 일정을 보내던 시기였고 주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해였다. 제6내과의 명찰 대신 신경과란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며 학회가 열리면 겨우 십여 명이 모여 토론을 하던 시기였다. 당시 재미있던 추억으로는 박충서 교수님께서 두통환자가 자석 머리띠를 하면 좋아진다는 논문 발표를 하였을 때 김기환 교수님의 질문이 아직 눈에 선하다. “임자, 그러면 MRI 찍으면 모든 신경질병 다 낫겠네” 여기에 대한 답은 글썽 아직도 잘 모르겠다.

1985년은 의국의 큰 변화가 있던 한 해였다. 안으로는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에 계시던 김진수 교수님이 귀국하여 신경과 교수진에 합류하게 된 것이고 한편으로 영동세브란스 병원이 개원하던 해였다. 신경과에서는 최일생 교수님이 결정되었고 전공의 2년 차 한명이 교대로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영동세브란스는 당시 의국이 별도로 없어 내과 의국에서 같이 생활하였으며 덕분에 내과 선생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다. 특히 병원 밖 가까운 곳에 음식점들이 많아 밤 생활이 바쁘던(?) 시기였다.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자상히 해주셨던 최일생 과장님은 끄적이라도 제자를 아끼셨는데 그 이유는 식탁 위의 주류는 항상 맥주 2병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다음 해 2월 최경규, 황연미 선생님은 우수한 성적으로 1회 신경과 전문의가 되었고 당시 서울대에서는 정진상, 박성호 선생님이 전문의가 되었다.

1986년 3년 차가 되던 해 새로운 의국원으로 김장성, 이병철, 안재훈 선생님이 의국에 합류하게 되었다. 의국에서 개성 강하기로 소문난 모든 명장(?)들이 모이던 시기였고 재미있지만 긴장감 넘치는 의국생활이 시작되었다. 당시 부산대 정대수 선생이 6개월 파견, 경북대 변영주, 하정상 선생님이 내과 전문의로 신경과 전공의 2년 차부터 시작한 이후 1개월 파견, 국립의료원 정근호 선생, 순천향 신현길 선생 등이 파견 나와 의국생활을 함께 하였다. 이 모든 선생님들은 지금도 똑같은 세브란스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데 선우 교수님에게 야단맞던 기억이 바로 그 것이다. 회진이 끝나면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고문이 시작된다. 모르는 게 많아서도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는지는 얼굴에 튀긴 맑은 물(?)의 양으로 가늠할 수 있었다. 다음 해, 허균, 이병인 선생님이 교수진으로 합류하여 세브란스 신경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교수진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한 교실로 발돋움 했다.

신촌과 강남세브란스 의국에서 3년간 짧지만 아주 긴~ 세월을 무사히 마치고 전문의가 되어 서울성모병원 교수로 20년 이상을 지내고 있는 현재, 당시 의국에서 동고동락했던 박기덕 선생님, 선배로 보살핌을 잘 해주신 최경규, 황연미 선생님, 의국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신 이명식, 허지희, 이상암, 안재훈, 이병철, 김장성 선생님 그리고 우리 의국으로 파견 나와 같이 우정을 쌓았던 여러 선생님들에게 새삼 감사함을 느끼며 특히 내 자신이 있기 까지 가장 도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 김기환, 김진수, 최일생, 선우일남, 이병인, 허균 교수님께 지면으로나마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의국 30주년을 기념하여 세브란스 신경과가 더 빛나도록 노력하고 계신 김승민 학회 이사장님과 최영철 주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

이 병 철(1986년 입국)

저는 앞날이 어찌될 지 몰랐지만 ‘신경’이란 단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신경외과를 포기하고 간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 또 다시 신경과에 입국했습니다. 솔직히 당시에는 신경과에는 응급환자도 많지 않아 당직을 한다 해도 의국에서 책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conference 시간까지는 전날 신환환자에 대해 나름 진단을 내리고 있어야 하루를 곱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질문은 “그래서 병변은 도대체 어디란 얘기에요?” “선생님의 진단은?” “어떻게 할거예요?”

MRI도 없던 시절 CT만으로 답이 나올 리 없었고 질환 별 뚜렷한 biomarker도 없어 대개가 syndromic diagnosis였겠죠. 목소리 큰 사람이 우세!!! 그나마 생각 없이 CT를 찍었다가는 환자들이 아까운 돈만 낭비했다며 전공의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하기도 하고 치료제도 몇 가지 안 되고 공부할 책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Internet search? 그 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주로 아담스 책을 빨간 줄 그어가며 읽었고 교수님들이 연수 갔다 오시면서 가져오신 책을 복사해서 보물처럼 나누어 가졌지요. 지금처럼 powerpoint나 beam projector가 없던 시절이라 Journal 발표나 grandround 발표를 하려면 적어도 1주 전에 원고를 만들고 사진을 찍어 청색 slide에 맡겨야 했구요. 논문을 쓰려면 참고문헌을 찾으러 며칠간 도서관 서고를 뒤져야 했어요. 우리 신경과 의국은 그래도 타 과에 비해 항상 앞선터라 당시 286 전 model 의 PC가 있었고 ‘보석글’이란 알량한 word processer를 쓰고 있었지만 다른 의국에서는 아직 원고지에 쓰고

있었어요. PC는 DOS 운영체제고 하드는 100mega, 저장은 5.25 inch floppy diskette... 저는 그때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 주제였는데 1200case 가량의 NCV data를 입력하는데만 한 달이 걸렸고 PC RAM이 보잘것없으니 말초신경 한 구간 전도속도 평균값을 계산해 내는데 dot printer가 몇시간을 짹짹거리며 움직여야 인쇄되어 나왔지요. 벌써 26~7년 전 일인데.. 저에게는 얼마 전 일인듯 느껴져요.

당시에는 매달 신경과 월례집담회가 열렸어요. 서울에도 모든 대학병원에 신경과가 미처 다 개설되어 있지 않아 다들 모여야 20~30명이 안되기 때문에 타 대학 교수님이나 전공의들이 서로를 다 알고 지냈지요. 우리 의국원들에게는 우리 스승님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김기환 교수님, 김진수 교수님, 최일생 교수님, 선우일남 교수님, 그리고 말년 차 때 이병인 교수님, 허균 교수님이 귀국하여 뇌전증 분야에 획기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요. 전공의 때나 임상강사 시절 전국에서 파견을 오기 때문에 늘 어깨가 으쓱했었습니다.

저년 차 때는 선우일남 교수님이 전공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야단맞으며 들었던 주옥같은 말씀들이 지금도 셉니다. “어떤 병이라도 환자 1000case data만 잘 정리해가지고 있으면 남 뒤질게 없단다...”. 그 때 그 말씀에 따라 임상강사 시절 stroke data bank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 Hallym stroke registry가 Korean Stroke Registry로, 또 CRCS stroke databank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제 자신 자부하고 있지요.

타 대학 누구보다 먼저 뇌파에 눈을 뜨게 해주신 이병인 교수님과 허균 교수님께도 늘 감사드리지요. 임상강사는 Stroke & Epilepsy program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stroke은 subspecialty로 할 만큼 되질 못했어요. 그래도 임상강사 시절에 TCD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되어 제일 먼저 독학하며 set up 해볼 기회도 가질 수 있었고, 국내 처음으로 intra-arterial thrombolysis를 시작해서 밤샘도 많이 했고, 신경과 개설 이후 epilepsy surgery 첫 case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짧은 기간에 참 많이도 배웠고 경험하고 열심히 뛰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교를 떠난 지 오래고 한림의대에서 한 살림 차리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스승님들의 교훈을 마음에 담고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실의 눈부신 발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후배들이 발표하는 뛰어난 연구성과를 관심 있게 보면서 모범이 될 선배로서의 위상을 갖추려 노력하며 그때 그시절 추억을 그려봅니다.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동문회원



강 사 윤

인하의대 1993년 졸업
 제주대병원
 제주도 제주시 아란 13길 15
 T 064-754-8175
 F 064-754-1109
 E neurokang@jejunu.ac.kr
 M 010-6432-9894



강 석 윤

연세의대 1995년 졸업
 한림대학교의료원 동탄성심병원
 경기 화성시 석우동 40
 T 031-8086-2310
 F 031-8086-2317
 E sukyunkang@hanmail.net
 M 010-2379-7665



고 혜 선

연세의대 2003년 졸업
 한도병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T 031-8040-1237
 E dasolmom08@naver.com
 M 010-8860-4814



곽 용 태

연세의대 1990년 졸업
 용인효자병원
 경기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33
 T 031-288-0602
 F 031-288-0539
 E kwakdr@gmail.com
 M 010-6255-0609



권 기 한

한양의대 1984년 졸업
 한림대학교의료원 동탄성심병원
 경기 화성시 석우동 40
 T 031-8086-2849
 F 031-8086-2058
 E neurokkh@medigate.net
 M 010-7275-1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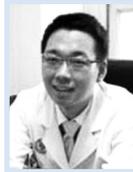
권 순 희

연세대 원주의대 1989년 졸업
 강남효병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945-2
 T 064-750-1122
 E shkwon0217@hanmir.com
 M 010-4651-9668



권 준 범

연세대 원주의대 1995년 졸업
 온누리병원
 서울 성북구 장위동 50-50
 T 02-919-2700
 F 02-912-8088
 E abulopia@hanmail.net
 M 010-9980-3065



김 경 섭

연세의대 2004년 졸업
 남평미래병원
 전남 나주시 남평읍 교원리 387-1
 T 061-339-9029
 F 061-331-9950
 E icelover98@empal.com
 M 010-9503-1522



연세의대 1987년 졸업
 M 010-8997-9442

김 경 환



연세의대 1996년 졸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32
 T 031-900-0431
 F 031-900-0668
 E jiyongkim2002@yahoo.co.kr
 M 010-6847-4027

김 규 식



연세의대 1957년 졸업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749
 코오롱레이크폴리스2 A동1404 호
 T 031-913-8005

김 기 환



순천향의대 2007년 졸업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T 041-570-2290
 E libra81@naver.com
 M 010-8871-6325

김 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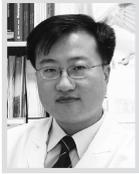
연세대 원주의대 2007년 졸업
 강원도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55-9
 T 033-570-7409
 E prapiroon@nate.com
 M 010-5349-6553

김 도 한



연세의대 2004년 졸업
 파주의료원
 경기 파주시 중앙로 207
 T 031-940-9102
 E mdhyuni@naver.com
 M 016-458-2885

김 도 현



연세대 원주의대 1991년 졸업
 비엔피신경과병원
 대전 서구 갈마동 1435 계룡랜드 4, 8층
 T 042-522-8275
 E drdonsoo@hanmail.net
 M 010-9165-5227

김 돈 수



연세의대 1998년 졸업
 국민연금보험공단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
 대한제지빌딩 5층
 T 02-2175-2983
 E miae0213@hanmail.net
 M 010-3013-2671

김 미 애



인제의대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2370
 E 1127SHALOM@yuhs.ac
 M 010-9990-8301

김 사 롬



연세의대 1997년 졸업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T 033-741-1252
 F 033-748-1752
 E s-hkim@yonsei.ac.kr
 M 011-9155-2780

김 서 현



연세의대 1993년 졸업
 상주시립노인요양병원
 경북 상주시 도남동 산 57-52
 T 054-530-5300
 E neuro67@hanmail.net
 M 010-8742-6090

김 선 곤



원주이대 2005년 졸업
 올림픽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T 1644-2119
 E let-itbe@hanmail.net
 M 010-2228-1435

김 선 정



김순관

전북의대 1984년 졸업
Sydney medical school
 5 Coonardoo place Castle Hill
 NSW 2154 Australia
 T 612-9899-3783 F 612-9899-3783
 E robertkim522@hotmail.com
 M 614-2303-6887



김승민

연세의대 1979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04
 F 002-393-0705
 E kims@yuhs.ac
 M 010-5205-2156



김영대

연세의대 1999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19
 F 02-393-0705
 E neuro05@yuhs.ac
 M 010-2635-0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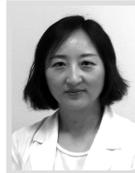
김옥준

연세의대 1990년 졸업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T 031-780-5481
 F 031-780-5198
 E okjun77@cha.ac.kr
 M 011-9348-5460



김용덕

연세의대 1990년 졸업
 건양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과수원동 685
 T 042-600-6923
 F 042-600-9090
 E yongduk@kyuh.co.kr
 M 011-9757-9183



김우경

연세의대 1989년 졸업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서울 강동구 성내길 150
 T 02-2225-2731
 F 02-487-6330
 E wkkim@hallym.or.kr
 M 010-3230-9807



김원주

연세의대 1988년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3324
 F 02-3462-5904
 E kzoo@yuhs.ac
 M 010-9276-6766



김원찬

연세의대 1994년 졸업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T 031-780-5482
 F 031-780-4931
 E wckim@cha.ac.kr
 M 017-272-1549



김원천

연세의대 1977년 졸업
 세브란스내과신경과의원
 제주 제주시 노형동 2577-4
 T 064-712-3933
 F 064-712-3934
 E wontsen@yahoo.co.kr
 M 011-9654-7654



김윤중

연세의대 1989년 졸업
 한림대학교의료원 성심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 896
 T 031-380-1666
 F 031-381-4659
 E yunkim@hallym.ac.kr
 M 010-6799-1666



김은혜

연세대 원주의대 2008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5284
 E EUNHYE8157@yuhs.ac
 M 010-8919-4217



김장성

연세의대 1982년 졸업
 연세신경내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8
 보성빌딩 3층
 T 031-898-7675 F 031-216-7675
 E jsk12180@kornet.net
 M 010-4766-4628



연세의대 1991년 졸업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T 02-950-1090
 F 02-950-1955
 E jykimmd@paik.ac.kr
 M 010-5715-4917

김 정 연



연세의대 2003년 졸업
 MH연세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남동 2가 5
 T 055-240-7450
 E drwk25@gmail.com
 M 010-8639-4805

김 지 윤



연세대 원주이대 1989년 졸업
 강원도원주의료원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37
 T 033-760-4524
 F 033-761-5121
 E schmolke@naver.com
 M 011-9791-2326

김 지 현



동아의대 1997년 졸업
 강북성심요양병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6-2
 T 031-978-1122
 E medilac@lycos.co.kr
 M 010-8908-2395

김 지 현



연세의대 2002년 졸업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 야탑로 59
 T 031-780-5480
 F 031-780-4931
 E antithrombus@gmail.com
 M 010-3256-7889

김 진 권



연세의대 1964년 졸업
 김진수 신경과정신과
 서울 마포 노고산동 40-19 송원빌딩 5층
 T 02-712-9990
 F 02-712-9915
 M 010-9958-4057

김 진 수



조선의대 1985년 졸업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서석동 588
 T 062-220-3021
 F 062-232-7587
 E jhkim@mail.chosun.ac.kr
 M 011-9431-9124

김 진 호



연세의대 1976년 졸업
 연우내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15-9
 T 02-306-2467
 F 02-306-2452
 E joykimhs@hanmail.net
 M 019-681-8004

김 현 숙



이화의대 1998년 졸업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 분당 야탑 351
 T 031-780-5480
 F 031-780-4931
 E hskim626@cha.ac.kr

김 현 숙



연세의대 2007년 졸업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T 02-3410-3599
 E evekhj.kim@samsung.com
 M 010-8654-7347

김 희 진



한양의대 2000년 졸업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685
 T 042-600-8814
 F 042-600-9090
 E nukedoc@hanmail.net
 M 010-4594-6165

나 상 준



연세의대 1996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00
 F 02-393-0705
 E hsnam@yuhs.ac
 M 310-918-0064

남 효 석



도 유 림

부산의대 2000년 졸업
보라매성모병원
서울 동작구 대방동 417-3
T 02-812-7777
E doh0823@hanmail.net
M 010-8509-1004



류 철 형

연세의대 1996년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3326
F 02-3462-5904
E lyoochel@yuhs.ac
M 010-4921-6198



문 준 식

연세의대 1988년 졸업
University of Oklahoma
711 S.L.Young Blvd., Suite 215,
Oklahoma City, OK 73104
T 405-271-4113
E moonjoonshik@hotmail.com



민 양 기

연세의대 1993년 졸업
한림대학교의료원 강남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
T 02-829-5125
F 02-847-1617
E yangki2@unitel.co.kr
M 010-8641-0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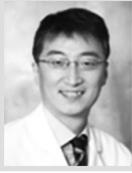
박 기 덕

연세의대 1983년 졸업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T 02-2650-6010
E pkd1165@ewha.ac.kr
M 011-236-5280



박 기 철

연세대 원주의대 1993년 졸업
김포우리병원
경기 김포시 곁포동 389-15
T 031-999-1768
E pkcneuro@yahoo.co.kr
M 016-9233-0522



박 동 철

연세의대 1995년 졸업
Harford Neurology Associates
520 Upper Chesapeake Drive,
Suite 313 Bel Air, MD 21014
T 443-643-3335 F 443-643-3337
E dcpark89@gmail.com
M 443-619-2224



박 보 석

한양의대 2005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5290
E bspark@yuhs.ac
M 010-3375-0951



박 상 현

연세대 원주의대 2004년 졸업
서울대효병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701-15
T 02-2663-1114
E qqkrtd@naver.com
M 010-9721-0516



박 선 아

연세의대 1993년 졸업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T 032-621-5221
F 032-621-5018
E sapark@schmc.ac.kr
M 010-7496-3182



박 수 철

연세의대 1984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08
F 02-393-0705
E scpark@yuhs.ac
M 010-3392-9475



박 영 관

연세의대 1986년 졸업
연세신경과의원
충북 제천시 중앙로 1가 92
T 043-645-5501
F 043-645-5502
E azzoa@hanmail.net
M 010-6375-8848



연세의대 1986년 졸업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T 02-950-1990
 F 02-950-1955
 E jhparkmd@paik.ac.kr
 M 010-4177-1713

박재현



이화여대 2000년 졸업
 은천오양병원
 서울 관악구 은천동 937-15 원익빌딩
 T 02-882-6900
 E drari@freechal.com
 M 019-318-2877

박지형



연세대 원주의대 2000년 졸업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T 033-741-1254
 E resun@yonsei.ac.kr
 M 010-3179-7940

박찬익



연세의대 1998년 졸업
 중평온누리병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7-4
 T 043-838-9771
 E chanheep@naver.com
 M 010-8900-7084

박찬희



순천향의대 1987년 졸업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병명동 23-20
 T 041-570-2292
 F 041-579-9021
 E phkook@schch.co.kr
 M 017-411-0932

박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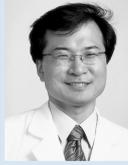
연세의대 2003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5290
 F 02-393-0705
 E sigund@yuhs.ac
 M 010-4174-4876

박형준



연세의대 1992년 졸업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T 02-3410-3599
 F 02-3410-0052
 E nmboy@unitel.co.kr
 M 010-9933-5253

방오영



연세대 원주의대 1993년 졸업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T 02-950-1990
 F 02-950-1955
 E jsbaik@paik.ac.kr
 M 010-6500-4571

백종삼



연세의대 1996년 졸업
 시지노인전문병원
 대구 수성 옥수동 48-1
 T 053-819-2038
 E paikpaul@naver.com
 M 017-502-0706

백종원



연세의대 2005년 졸업
 인천산재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T 032-500-0140
 E seomone@naver.com
 M 010-5755-8172

서경임



연세의대 2004년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3584
 E seobin7@naver.com
 M 011-295-2781

서권덕



연세의대 1996년 졸업
 강북삼성병원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78
 T 02-2001-2101
 F 02-2001-1284
 E zooes@hanmail.net
 M 010-2217-0723

서범천



연세의대 1997년 졸업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T 02-3410-1233
 F 02-3410-0052
 E sangwonseo@empal.com
 M 010-9933-1397

서 상 원



연세의대 2005년 졸업
 보바스기념병원
 경기 성남 분당구 금곡동 대왕판교로 155-7
 T 031-786-3000 F 02-3462-5904
 E joohyuns25@hanmail.net
 M 010-2971-9811

서 주 현



원광의대 1988년 졸업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2
 T 031-390-2420
 F 031-390-2414
 E suksh@wonkwang.ac.kr
 M 0010-9647-5100

석 승 한



연세대 원주의대 2006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5282
 E mksunwoo@yuhs.ac
 M 010-8886-2115

선우문경



연세의대 1971년 졸업
 선우&조 신경과
 서울 중구 광희2가319, SW빌딩 7층
 T 02-2268-1400
 F 02-2268-4400
 E sunwoo@yuhs.ac
 M 010-5273-5403

선우일남



연세의대 1986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01
 F 02-393-0705
 E yhsohn62@yuhs.ac
 M 010-9061-5468

손 영 호



연세대 원주의대 1991년 졸업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2
 T 031-390-2421
 F 031-390-2414
 E sonih@wonkwang.ac.kr
 M 010-2399-9325

손 일 흥



연세의대 2004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18
 F 02-393-0705
 E DBSONG@yuhs.ac
 M 010-5586-6501

송 동 범



연세의대 2003년 졸업
 제주대병원
 제주시 아라1동 1753-3
 T 064-717-2123
 E song2wind@naver.com
 M 010-4247-5512

송 숙 근



연세대 원주의대 2003년 졸업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T 02-2650-5298
 E knstar@hanmail.net
 M 010-8919-8764

송 태 진



이화여대 2007년 졸업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32
 T 031-900-0990
 E himitsu@naver.com
 M 010-9600-8712

신 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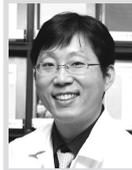
연세의대 2001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11
 F 02-393-0705
 E hayshin@yuhs.ac
 M 010-2707-0353

신 하 영



신혜원

연세의대 2000년 졸업
 중앙대의료원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T 02-6299-1503
 E haether@gmail.com
 M 017-750-8734



심동석

가톨릭대 1995년 졸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2동
 T 032-340-7052
 E neuroshim@hotmail.com
 M 010-3747-2384



심재은

건양대의대 2006년 졸업
 성남시노인보건센터의의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9-10
 T 031-739-3020
 E simjaeeun@nate.com
 M 010-8839-5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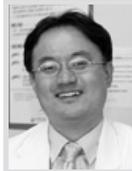
안성환

조선의대 1997년 졸업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서석동 588
 T 062-220-3128
 E shahn@chosun.ac.kr
 M 010-3644-2780



안재훈

연세의대 1985년 졸업
 신구의원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362
 T 031-745-5678
 F 031-745-5672
 E heahn1303@gmail.com
 M 011-765-5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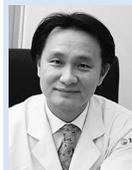
양광익

순천향의대 1993년 졸업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봉명동 23-20
 T 041-570-2291
 F 041-579-9021
 E neurofan@schmc.ac.kr
 M 010-3208-9293



양재훈

연세의대 2000년 졸업
 천안두신경과의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3-6
 U-타워 3층
 T 041-578-0502
 E bonojh@naver.com
 M 010-2424-9428



양진우

연세의대 1997년 졸업
 연세영동병원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1-4
 T 02-487-5211
 E nonihilist@hanmail.net
 M 010-2721-2351



양현덕

원광의대 1996년 졸업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2
 T 031-390-2422
 F 031-390-2422
 E vcyang@wonkwang.ac.kr
 M 010-3229-7554



예병석

연세의대 2004년 졸업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T 02-823-9290
 E romel79@gmail.com
 M 010-2505-9280



오승현

연세의대 1998년 졸업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
 T 031-780-5198
 F 031-780-4800
 E kuidungi@hanmail.net
 M 016-740-9342



오원석

연세의대 1997년 졸업
 연세오원석신경과의원
 강남구 신사동 615 현대종합상가 2층
 T 02-547-2360
 F 02-3443-2360
 E wsneuro@medimail.co.kr
 M 010-7466-2360



연세의대 1999년 졸업
강북성심요양병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6-2
T 031-978-1122
F 031-978-0182
E won5@dreamwiz.com
M 010-2988-0856

원 요 섭



연세의대 2006년 졸업
부여외산보건지소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15-2
T 041-830-2493
E quarksea@netsgo.com
M 010-8715-4518

유 준 상



연세의대 1992년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3325
F 02-3462-5904
E kylee@yuhs.ac
M 010-3507-0305

이 경 열



가톨릭대 1983년 졸업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T 02-2258-6075
F 02-599-9686
E ks1007@catholic.ac.kr
M 010-8772-0223

이 광 수



연세의대 2002년 졸업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가수원동 685
T 042-600-8814
F 042-600-9090
E iatros@hanmail.net
M 010-2745-4056

이 기 옥



연세의대 2008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5284
E LOVING8263@yuhs.ac
M 010-7192-8804

이 기 정



연세의대 2005년 졸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본부
T 043-719-7252
E hanamankum@naver.com
M 010-8747-6575

이 동 우



연세대 원주의대 2002년 졸업
호원요양병원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T 031-402-1119
E leadhern@hanmail.net
M 011-9193-4573

이 동 현



연세의대 2002년 졸업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
T 032-621-6570
E bigeasy@schmc.ac.kr
M 010-9433-4738

이 동 현



연세의대 1981년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3322
F 02-3462-5904
E mslee@yuhs.ac
M 011-344-2372

이 명 식



연세의대 2004년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3584
F 02-3462-5904
E mslayer9@yuhs.ac
M 010-3056-2885

이 명 준



연세의대 2000년 졸업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T 033-610-3114
E ardourpour@gnah.co.kr
M 010-4154-2098

이 문 규



이 미 희

연세의대 2000년 졸업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504-2

T 055-270-1248

E mihibabo@hanmail.net

M 017-311-4390



이 병 인

연세의대 1974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03

F 02-393-0705

E bilee@yuhs.ac

M 010-6668-4676



이 병 철

연세의대 1981년 졸업

한림대학교의료원 성심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 896

T 031-380-3741

F 031-381-4659

E ssbrain@hallym.ac.kr

M 010-4104-0284



이 상 무

연세의대 1989년 졸업

연세이상무신경과

강원 춘천시 후평동 701-8

엠타워빌딩 501

T 033-252-9636

E mooleemda@naver.com

M 010-6233-9606



이 상 복

연세의대 1989년 졸업

현대한방병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648

T 041-332-9500

E neuro@Koreahospital.co.kr

M 017-324-9965



이 상 암

연세의대 1984년 졸업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

T 02-3010-3445

F 02-474-4691

E salee@amc.seoul.kr

M 010-9890-0817



이 성 수

연세의대 1984년 졸업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일산동 162

T 033-741-0521

F 033-748-1752

E sungslee@yonsei.ac.kr

M 010-2614-5439



이 성 익

연세대 원주의대 1997년 졸업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2

T 031-390-2423

F 031-390-2414

E esungik@paran.com

M 010-4239-5575



이 세 진

영남의대 1987년 졸업

영남대학교병원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7-1

T 053-620-3683

F 053-627-1688

E sjlee@med.yu.ac.kr

M 010-9350-3683



이 승 현

연세의대 1990년 졸업

E hyuntrio@naver.com

M 010-2873-4368



이 승 엽

연세의대 2003년 졸업

인천산재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T 031-500-0140

E lancet97@hanmail.net

M 010-9273-3773



이 영 진

연세의대 1983년 졸업

홀론센터

서울 중구 신당3동 366-144

서울송도병원 신관 6층

T 02-2250-7515

F 02-2250-7846

M 011-9173-5362



연세대 원주외대 1999년 졸업
헤민병원
 서울 광진구 자양로 85
 T 02-2049-9000
 E neu210@naver.com
 M 017-213-3983

이 일 형



연세대 원주외대 2000년 졸업
김포우리병원
 경기 김포시 결포동 389-15
 T 031-999-1000
 E redskull@dreamwiz.com
 M 010-3361-4276

이 재 민



연세대의대 2006년 졸업
당진시 순성보건지소
 충남 당진시 순성면 산 143-5
 T 041-360-6220
 E leejo@naver.com
 M 010-8392-8594

이 재 정



연세대의대 2006년 졸업
경기립노인전문병원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
 T 031-860-4108
 E blubear@hanmail.net
 M 010-8863-9353

이 정 환



연세대 원주외대 1999년 졸업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9
 T 02-2260-7446
 F 02-2273-7144
 E jjongyl@gmail.com
 M 010-5252-5545

이 종 윤



아주의대 2006년 졸업
홍익병원
 서울 양천구 목동로 225
 T 02-2600-0578
 F 02-2697-4605
 E acupunct@hanmail.net
 M 010-2738-7219

이 준 범



연세대의대 1988년 졸업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32
 T 031-900-0225
 F 031-900-0668
 E jhlee@nhimc.or.kr
 M 010-7722-9720

이 준 홍



연세대 원주외대 1990년 졸업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강원 원주시 일산동 162
 T 033-741-0522
 F 033-748-1752
 E bstuff@yonsei.ac.kr
 M 019-325-2767

이 지 용



연세대의대 2004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5282
 F 02-393-0705
 E jelee9@yuhs.ac
 M 010-9515-0812

이 지 은



연세대의대 1996년 졸업
에스중앙병원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중앙병원
 T 064-720-2000
 E sgot@hitel.net
 M 010-9471-5290

이 진 구



연세대의대 1994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08
 F 02-393-0705
 E phlee@yuhs.ac
 M 011-9004-2025

이 필 휴



순천향대의대 1996년 졸업
리더스헬스케어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1층
 T 02-2184-3000 F 02-2184-3131
 E hjjjw@hanmail.net
 M 016-722-2351

이 현 정



원주의대 2008년 졸업
영광기독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212
 T 061-350-3000
 F 061-626-6007
 E JUNY0215@hanmail.net
 M 010-2445-9159

임수환



고려의대 2000년 졸업
대전 을지대학병원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1306
 T 042-611-3441
 E mich23@nate.com
 M 010-7481-0923

장상현



원주의대 2006년 졸업
상주시 모서면보건지소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삼포리 2-3
 T 054-533-2181
 F 054-534-8443
 E assabegopa@hanmail.net
 M 010-9020-2692

장현찬



한양의대 1983년 졸업
토마스신경과
 서울 동대문 전농 10
 SK아파트 스포츠센터동 201
 T 02-3394-4430 F 02-3394-4431
 E nchung77@hotmail.com
 M 019-9152-4430

정근호



부산의대 1996년 졸업
국립의료원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9
 T 02-2260-7114
 F 02-2273-7144
 E yekyujung@hanmail.net
 M 010-6438-8840

정연경



연세의대 2003년 졸업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2
 T 055-270-1594
 F 055-265-7766
 E eyasyohan@gmail.com
 M 010-3694-8643

정요한



연세의대 1991년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유성구 구성동 KAIST
 T 042-350-4380
 F 042-869-4310
 E yong1225@hanmail.net
 M 010-8003-1225

정용



연세의대 1974년 졸업
정내과
 서울 구로구 구로6동 142-75
 T 02-866-0356
 F 02-830-3188
 E cwooje@hitel.net
 M 011-9021-5764

정우제



충남의대 1982년 졸업
메디팜 재활요양병원
 전남 순천시 인월동 575-1
 T 061-729-3300
 F 061-729-3301
 E wondoyl@hanmail.net
 M 010-2937-7655

정원영



연세대 원주의대 1987년 졸업
한도병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T 031-8040-1237
 F 042-869-4310
 E cjw6969@hanmail.net
 M 010-9161-1687

정재우



원광의대 2007년 졸업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T 063-859-1411
 E neurojulie@gmail.com
 M 010-4007-7290

정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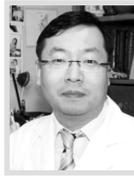
전북의대 1985년 졸업
원광대학교의과대학병원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T 063-859-1411
 F 063-842-7379
 E neurlogy@wonkwang.ac.kr
 M 010-3650-5915

조광호



조규호

연세의대 2006년 졸업
충북제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충북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25
T 043-646-0808
E zhan@naver.com
M 010-3392-0381



조성진

연세대 원주의대 1992년 졸업
성애병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451-5
T 02-840-7259
F 02-840-7755
E hkek@hanmail.net
M 017-728-1282



조수진

연세의대 1992년 졸업
한림대학교의료원 동탄성심병원
경기 화성시 석우동 40
T 031-8086-2310
F 031-8086-2316
E downc@naver.com
M 010-8483-0783



조양제

연세의대 1998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15
F 02-393-0705
E choyj@yuhs.ac
M 010-3298-7456



조유나

연세대 원주대의대 2008년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3584
E UNADe@yuhs.ac
M 010-6790-3742



조은경

이화대의대 1995년 졸업
중앙보훈병원
서울 강동구 둔촌2동 6-2
T 02-2225-1325
F 02-2225-1327
E neurocho@hanmail.net
M 010-3242-1656



조정훈

연세의대 1994년 졸업
푸른솔신경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179-13
T 032-518-3080
F 032-519-3080
E cjh816@paran.com
M 010-2304-2130



조정희

연세의대 1998년 졸업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1동 1232
T 031-900-0570
F 031-900-0668
E jhcho.neuro@gmail.com
M 010-3299-3685



조태영

연세의대 1987년 졸업
연세신경과의원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602-8 21세기
병원건물 6층
T 02-3489-8062 F 02-3472-7780
E tycho@21spine.co.kr
M 010-3905-8663



조한나

연세의대 2005년 졸업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T 02-3410-1031
E iguhanna@naver.com
M 010-3000-4975



조한진

부산의대 2000년 졸업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05
T 051-240-7818
E hammer479@medimail.co.kr
M 010-9912-1209



조현지

이화대의대 2001년 졸업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665-8
T 032-280-5010
E fairlife@dreamwiz.com
M 010-5292-2407



조 효 민

연세의대 1975년 졸업
 남산내과 · 신경내과 크리닉
 부산시 급정구 구서동 184-34
 T 051-582-9461
 F 051-582-9465
 E yjpark53@kornet.net
 M 010-2562-4225



주 민 경

연세의대 1992년 졸업
 한림대성심병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 896
 T 031-380-3744
 F 031-381-4659
 E chumk@hallym.or.kr
 M 016-587-0875



주 종 규

연세대 원주의대 1999년 졸업
 남양주한양병원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570
 T 031-510-0114
 E ttazo73@hanmail.net
 M 011-9797-7924



차 명 진

서남의대 2004년 졸업
 성균관대북숙삼성성창원병원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 50
 T 055-290-1261
 E mjcha@gmail.com
 M 010-9919-3559



채 경 민

충남의대 2001년 졸업
 안성의료원
 경기 안성시 고수2로 17
 T 031-8046-5119
 E uliana2000@paran.com
 M 016-9555-5253



천 정 민

연세대 원주의대 2005년 졸업
 미소들병원
 서울 구로구 개봉1동 43-1
 T 02-3666-1114
 E sinofdestiny@hanmail.net
 M 010-2022-75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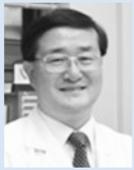
천 화 영

연세의대 1993년 졸업
 메트로병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42-105
 T 031-467-9000
 F 031-467-9887
 E cheonhy@hanmail.net
 M 010-3927-3202



최 경 규

연세의대 1982년 졸업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T 02-2650-5036
 F 02-2650-2652
 E kgchoi@ewha.ac.kr
 M 010-9092-9281



최 병 옥

연세의대 1989년 졸업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서울 양천구 목동 911-1
 T 02-2650-2842
 E bochoi@ewha.ac.kr
 M 010-9365-9516



최 선 아

연세의대 1994년 졸업
 국민보험공단 일산병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1232
 T 031-900-0343
 F 031-900-0668
 E sachoi0416@naver.com
 M 010-9747-6715



최 영 철

연세의대 1985년 졸업
 연세의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T 02-2019-3323
 F 02-3462-5904
 E ycchoi@yuhs.ac
 M 011-9999-2026



최 윤 호

원주의대 2008년 졸업
 서산의료원
 충남 서산시 중앙로 149
 T 041-689-7000
 F 041-665-8010
 E RECLUSE21@naver.com
 M 010-2036-1342



최 일 생

연세의대 1968년 졸업
E ischoi1123@naver.com
M 010-9500-7396



최 철 희

연세의대 1991년 졸업
한국과학기술원
대전 유성구 구성동 KAIST
T 042-350-4321
F 042-350-4380
E cchoi@kaist.ac.kr
M 010-8667-1680



최 헤 연

연세의대 2000년 졸업
경희대학교 강동경희대병원
서울 강동구 상일동 149
T 02-440-6269
E hyechoi@gmail.com
M 010-2812-3730



한 범 기

연세대 원주대 1994년 졸업
연세신경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3432-7722 F 02-3432-7721
E sharkneuro@hanafos.com
M 010-8791-6987



한 상 돈

건국의대 2001년 졸업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620-5
T 043-840-8754
E hihanol@gmail.com
M 010-4701-7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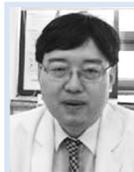
한 상 원

연세의대 1995년 졸업
인제대상계백병원
서울 노원구 상계7동 761-1
T 02-950-1990
F 02-950-1955
E swhan@paik.ac.kr
M 011-387-0637



함 지 현

연세대 원주대 2008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5282
F 02-393-0705
E HJHSCSF@yuhs.ac
M 010-8740-2480



허 경

연세의대 1985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07
F 02-393-0705
E kheo@yuhs.ac
M 010-8792-7573



허 군

연세의대 1979년 졸업
아주대병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T 031-219-5171
F 031-219-5178
E khuh@ajou.ac.kr
M 010-9096-7911



허 지 회

연세의대 1984년 졸업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T 02-2228-1605
F 02-393-0705
E jhheo@yuhs.ac
M 010-9533-0864



홍 지 만

연세의대 2001년 졸업
연세의료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경기 용인시 용문로 23
T 031-331-8700
E jimaan@yuhs.ac
M 010-2783-5482



홍 진 응

연세의대 2007년 졸업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
T 033-741-1253
E mlunoilu@hanmail.net
M 010-6272-3794



이화의대 2007년 졸업

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T 054-850-6120

E ireloje@naver.com

M 010-8838-0925

홍 현 정



연세의대 1987년 졸업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48-1

T 02-829-5125

F 02-847-1617

E hwang@hallym.ac.kr

M 011-9678-6146

황 성 희



연세의대 1982년 졸업

한마음신경내과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2-14

성지하이츠 301호

T 02-455-2264 F 02-455-2265

E dr3ymhwang@hanmail.net

M 010-8947-2265

황 연 미

우리 교실의 개설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역사를 정리하여 책자를 제작해보자는 최영철 현 주임교수님의 제안으로 2012년 초여름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30년사’ 편찬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잠깐씩 짬을 내어 여러 선배님들께 지난 시절 이야기를 청하기도 하고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가며 우리 교실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대학 신경과학교실의 역사 관련 서적들과 여러 대학, 병원, 교실, 학회 등의 ‘몇 주년사’ 책자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처음 계획은 1983년 3월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창립 이후의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자료들을 수집하여 검토하다 보니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우리 교실이 제 상상 이상으로 대한민국 신경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의대 신경과학교실 창립 이전의 신경과 관련 역사를 빼놓고는 우리 교실의 뿌리와 그 발자취를 논할 수 없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새로 알게 된 우리 교실의 역사적 사실들을 때때로 주변 선배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실들이 저에게만 생소하였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그 첫 시작부터 정리하여 작가는 우리 교실 동문들에게, 크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난 일 년여간 부족한 시간을 쪼개가며 나름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부족한 점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특히 제가 신경과 의사이며, 근무처가 신촌이어서 너무 의사들의 이야기 그것도 신촌의 이야기들을 위주로 책을 구성한 것 같아 강남과 용인의 선생님들과 간호사, 의료기사, 사무원 등 우리 교실과 연관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것이라 사료 수집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부 내용들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며 중요한 사실들이 기록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제가 뜻하지 않게 실례를 범한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넓은 마음으

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실은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볼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맥라렌, 이중철, 서석조, 이수익 선생님들과 같은 위인들이 있음에도 그분들의 뜻을 제대로 기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이외에 다른 훌륭한 분들이 계신지 찾으려는 시도도 없었습니다. 이번 30주년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 교실이 있기까지 공헌하신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찾아 그분들의 공적을 기리는 일을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는 선대의 그분들을 위함도 있겠지만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임을 확신합니다.

이번 '30년사' 편찬은 우리 교실에 있어서 처음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시도였습니다. 이런 시도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입니다. 반드시 40년, 50년, 100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나온 시절을 정리하여 되돌아보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앞으로의 역사를 새로 추가하는 작업은 물론 이번 '30년사'에서 잘못되었거나 부족하였던 것들을 바로 잡고 보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에 대한 반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실 30년사 편찬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기환 선생님을 찾아 뵙고 긴 시간 동안 우리 교실 창립 무렵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제게는 커다란 영광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외에 우리 교실 초창기의 산 증인들이시며 그 역사를 알려주신 김진수, 최일생, 선우일남 선생님들께도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여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 중에도 옛 기억을 되살려 소중한 원고와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수고스러운 작업들을 함께 도와준 후배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창립 이전기' 원고를 집필하여 주신 의사학과 여인석 교수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과 관련하여 사려 깊은 도움을 주신 씨아이알 커뮤니케이션의 박승애 기획실장 및 관계자 여러분의 고마움도 잊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년사' 편찬을 기획하시고 이끌어주신 최영철 주임교수님 및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30년사 1983-2013

인 쇄 일 2013년 8월 16일

발 행 일 2013년 8월 24일

발 행 인 최영철

발 행 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연 락 처 02-2228-1600

편집제작 씨아이알 커뮤니케이션

연 락 처 02-2275-8603

〈비매품〉

본 책자의 원고 및 사진자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 사용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